# 1주. 그리스 로마 신화의 현대적 의미

3000년 경 전에 그리스 로마 신화가 생겨남

(1) 현대인들이 신화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

1. 살아 움직이는 역동성, 지혜

→ 신화는 학문이 체계적으로 확립되기 전부터 세계와 인간에 대한 보편적 경험들을 토대로 이루어진 정신적 유산이다. 그것은 과거로부터 시작하지만 역사를 통해 끊임없이 인류와 소통하며 현재성을 확보함으로써 현대에도 살아 움직이는 역동성을 보여준다.

1. 신화는 학문과 예술의 기초이다

→ 신화는 학문이 체계적으로 확립되기 전부터 세계와 인간에 대한 보편적 경험들을 토대로 이루어진 정신적 유산이다. 그것은 과거로부터 시작하지만 역사를 통해 끊임없이 인류와 소통하며 현재성을 확보함으로써 현대에도 살아 움직이는 역동성을 보여준다. 신화는 인류 의 보편적 사유의 원형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많은 인문학 분야에 기초적인 원리를 제공 한다.

→ 신화는 인류이 보편적 사유의 원형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많은 인문학 분야에 기초적인 원 리를 제공한다.

: · 오이디푸스, 파이드라, 이아손, 메데이아, 엘렉트라, 오레스테이아 등의 이야기 ⇨ 인간의 운명과 자유 의지, 욕망과 절제, 앎과 실천 등과 같은 철학적 주제들과 자연스럽게 연결

⇨ 이러한 논의는 인간과 세계에 대해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도움

· 오늘날 우리는 문학과 예술의 형태로 신화와 만나고 있으며 다양한 문학작품과 예술의 원형을 그리스로마 신화에서 찾고 있다.

* 그리스로마 신화는 여러 학문의 토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들 학문의 사상을 한 층 더 깊고 풍부하게 해주고 있다.
* 철학, 문학, 신학, 심리학, 민속학, 인류학, 사회학, 정신분석학, 미술

→ 첨단과학 및 포켓몬스터와 디지몬의 다양한 캐릭터, 게임산업이 난무하는 오늘날 우리는 전통적 그리스로마 신화가 지닌 자유분방한 신화적 상상력의 활기에서 그 생명력을 찾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③ 이성과 감성

→ 신화는 이성과 감성의 균형을 통해서 설득적 인간이 되게 한다.

→ 신화는 철학이나 그 외 다른 이성적 학문과 달리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사실 이야기는 그 자체만으로도 때로는 인간의 감성을 건드리며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 으며 우리를 세계에 개방시키도록 만든다. 더욱이 신화는 다른 일반적 이야기와 달리 인류 역사를 통해 끈질긴 생명력으로 존속할 수 있었던 검증된 이야기라 할 수 있다.

→ 근대 이후의 학문에서 이론과 실천을 매개하기 위한 중요한 계기는 설득이다. 만약 우리가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요소가 필요하다. 그렇지만 이성에 의해 논박하는 것과 설득되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우리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철저하게 반박을 했을지라도 상대방이 가슴으로 설득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 · 설득의 3요소 - 설득, 토론, 스토리텔링 ⇨ 신화는 스토리텔링

· 에로스와 프시케

* 의심을 누를 길 없는 프시케가 등불을 높이 들고 보니, 잠자리에는 잘 생긴 청년 에 로스가 잠들어 있었다. 등유의 뜨거운 방울이 어깨에 떨어지자 에로스는 깨어나 당 장에 사라져 버렸다. 에로스를 잡으려다 창에서 떨어지는 프시케를 보며 에로스는 “의심이 자리 잡은 마음에는 사랑이 깃들지 못한다”라는 말을 남기고 밤하늘로 날 아가 버렸다.
* 알다시피 에로스는 ‘사랑’이라는 뜻이다. 그리고 프시케는 그리스어로 ‘마음’을 뜻 한다. 이 이야기는 그리스 사람들만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다.

→ 관계의 매듭 속에 갈등하고 고민하는 그리스로마 신화 속의 신들에게서 지금 우리와 꼭 닮 음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다. 그들의 고민의 내용과 그 고민이 해결되는 지점을 통해 우리 는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하는지 그 방향도 어렴풋이 깨달을 수 있다.

④ 신화는 상상과 추론의 균형을 갖게 한다.

→ 신화 : 인간의 상상력을 자극, 이성적 추론 능력을 필요로 함

→ 신화에 상상력의 원리만이 아닌 추론의 원리도 필요한 이유

: 현대는 이미지의 시대라 불리면서 점차 상상력이 강화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상상력은 단지 감성의 영역에서만 길러지는 것이 아니라 이성의 영역과도 매우 밀접하게 작용한다. 이것이 단지 상상력의 원리만이 아닌 추론의 원리도 신화에 필요한 이유이다.

→ 최초의 우주의 상태는 어떠했는지? ⇨ 어떻게 이 세계가 생겨났는지? ⇨ 어떻게 이 세계 가 만들어졌는지? ⇨ 왜 고대인들이 이 세계 혹은 우주를 우리가 알고 있는 신화로 이야 기 했는가?

: 이러한 과정을 통해 그리스 당시 철학과 과학에서 경험적으로 세계를 이해했던 방식을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으며 현대의 제 이론과 학설과 연결시켜 생각해 볼 수 있다.

→ 특히 그리스의 우주생성신화는 독립적인 인격체로 나타나는 신들이 개념의 유사성과 차이 성을 기준으로 결합되고 분리되며 확산되기 때문에 상상의 원리뿐만 아니라 추론의 원리를 사용해야 적절한 해석이 나올 수 있다.

⑤ 동일과 차이

→ 현대에 이르러 세계 지역 신화가 유사성을 가진 사실이 알려지며 신화학 또는 비교종교학 이나 정신분석학 등에서 여러 가지 분석을 내놓았다.

: · 캠벨 - 비종교학자, 인류의 이동과 관련하여 세계 신화의 유사성을 설명하려 했다.

· 칼 융 - 분석심리학자, 인간 정신의 보편적 원형으로서의 신화가 근본적으로 유사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 신화를 통해 각 지역의 문화의 유사성과 차이성을 알 수 있다.

→ 물론 세계 각 지역 신화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구체적 상징물이나 대상들과 관련하여 지 역별로 차이가 많이 난다. 근본적으로 동일한 유형의 상징이 지역별로 또는 문화적으로 차 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유사성의 원리에 의해 다양한 세계 지역 신화들이 보편적인 상징과 이미지를 통해 인간을 둘러싼 세계에 대해 보 다 심층적인 이해를 도모할 수 있다.

: 인류 탄생 신화 - 인류 탄생 신화와 관련하여 세계 지역 신화들 중 상당 부분이 인류의 기원을 흙이라 하는 이유에 대해 살펴볼 수 있다. 세부적으로 그릿의 인류탄생실화를 살펴볼 때 다른 지역 신화들과의 비교를 통해 상호 유 사성과 차이성을 살펴봄으로써 고대인의 사유의 주요 원리들을 이해할 수 있다.

⑥ 현대는 신화의 시대

→ 현대에는 자연을 지배하려는 서구의 과학 중심 사고가 신화를 통해 억눌렸던 인간의 상상 력이 해방되는 현상을 나타난다. 이성의 발달로 인해 탈신화화 경향 속에서도 인간들은 신 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고, 유사 신화를 믿고 있다. 오늘날 신화는 민족의 집단적인 가치, 공공의 본능적인 가치, 또는 개인적 가치에 대해 상징적으로 투영하고 있다.

→ 신화는 진보된 이성을 등에 업고 역사의 주인공으로 재등장하고 있다.

: · 슈퍼맨 신화 - 특별한 인간, 영웅을 꿈꾸는 현대인의 감추어진 동경을 만족시켜주고 있다.

· 슈퍼우먼 신화 - 다양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주인공을 꿈꾸는 현대 여성의 심리 를 대리만족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 매스미디어에 의한 공인의 신화화, 선택된 소수집단에 속하고 있다는 엘리트 신화와 같은 신화적 행위는 현대사회에서 인간의 특별한 한계를 초월하는 성공에 대한 집념의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현대의 정신적 위기, 영상매체와 애니메이션에서 신화의 부활, 고 도로 의식화된 종교적 행위 등에서 과거의 신화를 발견해내고 있다.

: 그리스 신화가 현재까지 존속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이러한 신화의 재생산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신화를 공부함으로써 합리적으로 또는 우리시대의 진보로 설 명할 수 없는 현대의 다양한 현상들을 판단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는 안목을 키울 수 있다.

(2) 그리스 로마 신화의 특징

① 그리스와 로마 신화의 융합

→ 로마인들의 신에 대한 관념

: · 엄밀한 의미에서의 로마 신화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물론 고대 로마 고유의 신화 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소멸되고 말았다. 원래 로마인들은 천지간의 모든 사물 이나 장소에는 그곳에 내재하는 비인격적인 신 또는 영이 있다고 믿었다. 그 신령의 힘 을 누멘이라 하였는데, 이 누멘은 모든 현상과 관계를 갖고 있어 때로는 사람에게 해를 끼치기도 한다고 생각하였다.

· 그러다가 로마인이 그리스인과 접촉을 갖고 그리스 문화를 알게 되면서, 그리스 신화의 신들, 즉 인간과 같은 생활을 하는 구체적 인격을 갖춘 신들을 받아들임으로써 로마 고 유의 신들도 그 성격을 바꾸어 인격신(人格神)이 되었다.

· 이렇게 하여 서로 비슷한 성격을 지닌 로마의 신과 그리스의 신이 짝을 이루게 되어 마침 내는 같은 신으로 보게 되었다.

· 로마의 신 - 그리스의 신 유피테르-제우스, 유노-헤라, 엡투누스-포세이돈, 미네르바-아테나, 마르스-아레스, 비너스-아프로디테, 디아나-아르테미스, 불카누스-헤파이스토스, 베스타-헤스티아, 메르쿠리우스-헤르메스, 케레스-데메테르

· 그리스에 대응하는 신을 갖지 않는 유일한 신

- 그리스에 대응하는 신을 갖지 않은 유일한 신은 문의 수호신이며, 앞뒤로 향한 두 개 의 머리를 가진 모습으로 표현되는 야누스이다.

→ 오늘날 로마 신화로서 전해지고 있는 것은 옛 로마나 로마의 이웃에 전해지고 있던 이야기 들을 모아, 그리스 신화를 본떠 이루어진 것이다.

→ 이 밖에 로마 건국기에 활약한 왕이나 영웅에 관한 전설도 포함되는데, 이를테면 트로이의 영웅 아이네아스가 이탈리아 땅에 와서 로마 건국의 시조가 된다는 로마 건국 신화도 실은 그리스와 로마의 신화적 융합에 불과하다.

② 그리스 신화의 기원

→ 현재의 그리스로마 신화의 근원인 그리스 신화는 그리스인들이 이주, 정착이 완료된 후 올 림포스 신들의 세계를 노래한 호메로스 시대의 신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한 것이다.

: 미케네 시대를 뒤이은 암흑기 동안 수많은 음유시인들에 의해 구전 ⇨ 기원전 8세기 호 메로스의 서사시 및 헤시오도스가 올림포스 주신 제우스를 중심으로 한 신들의 계보를 확립 ⇨ 몇 세기를 거치면서 전해진 다양한 이본의 형태를 취합

→ 호메로스 시기 이전 이름 없는 음유시인들에 의해 구전되어 왔기 때문에 그 기원에 관해 정확히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자들은 그 기원을 미케네 시기까지 소급하여 찾 고 있다.

→ 초기 그리스인의 생활은 파종과 추수와 같은 자연현상의 절대적인 지배를 받아왔기 때문에 그들의 의식은 계절 등 자연현상과 직접적인 관련을 갖게 마련인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연을 통제하는 신을 숭배할 수밖에 없었다.

- 이민족의 침범, 지역과 계급 간의 갈등, 신들 간의 전쟁, 신과 영웅간의 이야기, 영웅들 의 모험담, 근친상간, 우주생성, 신들의 탄생, 초목육식, 만물의 시원과 같은 자연 질서 의 근원, 낮과 밤의 교차와 같은 계절의 주기와 관련된 내용

→ 그리스인들은 모든 자연현상을 신격화하였고 인간의 모든 생활이 신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 어지는 것으로 믿었다. 따라서 그들은 신화를 통해 자연 질서의 근원, 계절의 주기를 설명 하려했고 또한 그것을 통해 인간의 운명과 미래를 내다보려고 하였다. 이는 그리스인이 신 화를 통해 과거를 인식하려고 했으며, 신화 안에서 세계를 인식하는 방법을 찾으려고 했던 것이다.

→ 따라서 신화는 도시국가가 정착하기 이전의 우주에 대한 신비를 설명해주는 원시적인 과학 으로 간주할 수 있다. 더욱이 호메로스와 헤시오도스는 신화에 형이상학적 가치를 부여하 는 동시에 신성한 의미와 신비로움을 부여하였다.

→ 그리스 신화는 한 번에 고정된 형태의 교리가 아니라 구전된 이야기로 볼 수 있다. 구전으 로 전해진 그리스 신화를 기원전 8세기 호메로스가 정리하고 헤시오도스가 신들의 계보를 체계화시켰다. 그러나 신화 창안 작업은 결코 기원전 8세기에 끝난 것은 아니었다.

→ 그리스 지역 간의 정치적 질서 확립에 부합하기 위해서, 혹은 정착하는 과정 속에 비-그리 스인의 전통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교육적 효과를 위해서 변형이 요구되었던 것이 다. 즉, 옛 구전에 새로운 해석을 덧붙이면서 신화 만들기는 계속되었다.

→ 그리스 신화는 목격한 바를 전달해주는 것이 아니라, 유모나 할머니로부터 어릴 적부터 반 복해 들었던 이야기였다. 따라서 신들이나 영웅들에 관한 유일한 출처는 전설과 소문이었 고, 이것은 신비스러운 권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③ 그리스 신화의 기능

→ 그리스인은 인간사에 나타나는 전염병 및 재난 그리고 그들의 판단으로 해석하기 어렵고 곤란한 전조나 경이를 그들과 친숙한 신에게 호소하여 해결하려 했다. 또한 그리스인은 모 든 생활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신이 그들에게 보여주는 은총이나 충고, 위협 등으로 이해 하였다.

→ 따라서 그리스인들은 사생활에서뿐만 아니라 공적인 전쟁과 같은 경우에서도 반드시 신탁 을 받은 후에 실행하였으며, 신탁이 맞는 경우 신에게 감사하며, 재물을 봉헌하였고, 신탁 이 틀릴 경우는 신을 원망하기도 했다.

→ 신화의 기능은인간의 공적, 사적 모든 의례와 관련된다. 고대 사회에서 의례는 사회적 범 주와 심리적 과정을 다룰 뿐 아니라 종교적 경험을 의미했다.

→ 따라서 그리스에서 의식은 공적이든사적이든 삶의 중심에 위치해 있었으며, 신탁이라는 제 례의식을 통해 전통적 신화가 재연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 신탁이라는 종교적, 사회적 관례를 통해 그리스인은 민족의 공동체 의식 형성과 각 국가들 간의 유대강화에 기여를 했다.

: 델포이 무녀의 예언 - 아폴로 신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여겨 그리스인들의 마음에 믿음을 한층 강하게 해주는 동시에 사회통합의 유일한 요인이 되었다. 더 욱이 그리스 전역의 사람들과 각계각층의 그리스인들은 정기적으로 이 신탁을 들으러 왔다는 점은 신탁의 대중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이성으로 인해 전통이 도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 사회에서 신탁은 사회적으로 필요 하였던 것이며, 나아가 그리스인의 삶의 일부로서 받아들였던 동시에 신탁의 역할도 이에 부합하였다. 왜냐하면 신탁을 만들어낸 사람들은 바로 그 사회의 산물이기 때문에 신탁에 는 그리스인의 잠재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그리스인들은 신탁이 무질서한 권위에 저항하는 사회적 메커니즘으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 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들은 정치적으로 논란이 일어날 것 같은 문제에 관해서는 그들 임 의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의 권위를 빌어 재가를 얻는 형식을 취했다. 즉, 그들은 어떤 결정이 나올 것인지 알면서도 그런 문제에 고나해 신의 권위를 빌어 재가와 승인을 구했던 것이다.

⇨ 델포이 신탁은 그리스인이 결정해 놓은 것을 뒤집는 역할이 아니라 공동체의 의사결정 을 존중하면서 상담과 자문역할을 했다.

→ 그리스인들은 신화를 진실이냐, 거짓이냐를 규명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의 규범으로서 그들 의 생활의 일부로서 받아들였던 것이다. 즉, 그들의 생활 속에는 언제나 신화가 반영되어 있었으며, 그리스인의 삶과 문화가 내재되어 있었다. 그리스인은 신화를 세부적으로 비판 할 수는 있었지만 무시할 수는 없었다. 그들에게 신화는 의무적인 믿음일 뿐이었다. 나아가 그들은 신화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 했기 때문에 신화는 그리스인의 삶 전체 로서 이해해야만 한다.

(3) 신화를 쓴 작가들

1. 호메로스

→ 호메로스는 신화를 우리에게까지 전해 준 가장 중요한 작가이다. 그의 일리아드, 오디세이 아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그리스 작품이다. 그런데 이 두작품의 연대가 정확히 언제인지 추정할 길이 없다. 학자들에 따라 서로 의견이 분분하며 사정은 앞으로도 여전할 것이 분 명하다. 어쨌든 두 작품 중에 더 초기의 작품으로 꼽히는 일리아드의 경우 기원전 800년 정도는 되었을 것이다.

1. 헤시오도스

→ 헤시오도스는 8세기 무렵에 활동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헤시오도스는 힘들고 가혹한 삶을 살았던 농부였다. 혹독한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훌륭하게 살 수 있는지 사람들에게 알려주 고자 ‘일과 나날’을 썼다. 특히 헤시오도스는 신들에 대해서 할 말이 많았고, 대개 그의 두 번째 작품으로 인정되고 있는 ‘신통기’는 전적으로 신화만을 다루고 있다. 이 작품이 헤시 오도스가 쓴 것이 정말이라면, 그 당시 그리스에서 세상, 하늘, 신들, 인류가 어떻게 해서 생겨나게 되었는지 의문을 품고 그에 대한 해답을 생각해낸 최초의 사람은 바로 도시로부 터 멀리 떨어진 한적한 농토에서 살아가고 있던 비천한 한 농부였던 셈이다.

1. 핀다로스

→ 그리스 최고의 서정시인인 핀다로스는 6세기 말 무렵부터 작품을 쓰기 시작했다. 그는 그 리스의 대규모 국가적인 축제에서 열리는 경기의 우승자들을 찬양하는 송가들을 썼고 그의 모든 시 속에는 신화가 언급되어 있거나 암시되어 있다.

1. 그리스 3대 비극작가와 기타

→ 아이스킬로스, 소포클레스, 에우리피데스

→ 아이스킬로스는 핀다로스와 같은 시대의 사람이었다. 나머지 두 사람인 소포클레스와 에우 리피데스는 약간 이후의 사람들이다. 살라미스 해전에서 페르시아인들을 제압한 그리스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쓴 아이스킬로스의 ‘페르시아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비극작가들이 쓴 모든 희곡들이 신화적인 소재를 다루고 있다.

→ 또한 세기 말과 4세기 초에 걸쳐 살았던 위대한 희극 작가인 아리스토파네스도 자주 신화 에 대해 언급했으며, 위대한 두 산문 작가인, 유럽 최고의 역사가 헤로도토스 역시 신화에 대해 자주 언급했다.

# 2주. 그리스 신화의 배경과 세계관(1)

(1) 미노아 문명과 미케네 문명

① 미노아 문명

* 미노아 문명은 기원전 3000년경 소아시아에서 크레타로 이주해 온 사람들에 의해 건설됨 그 후 1천년 동안에 그들은 신석기 시대에서 금속 시대로의 이행과정을 거쳐, 기원전 2000년경에 도시 및 초기 형태의 문자를 발전시켰으며, 미노아 종교의 많은 특징들은 그리스의 신비한 종교로 그대로 흘러 들어갔다.
* 크레타 섬은 기원전 1800년경 그 최초의 번성기에 있었으며, 동지중해의 해상권과 무역권을 독점하고 초기의 궁전을 세웠으며 문화는 번성했다.
* 크노소스를 수도로 하는 나라의 임금이 된 미노스 왕
* 기원전 1406년, 백성들에게 법을 제정해준 현명하고 절드 있는 정의의 입법가
* 공정한 판관
* 위대한 바다의 지배자
* 미노아 문명 - 미노아의 종교는 동물과 조류(황소, 뱀, 비둘기), 신성한 나무, 번식을 상징하 는 신성한 물건들(양날도끼, 기둥, 십자가)를 숭배함.
* 모계 중심적 신앙 체계의 특성에 따라 여성 사제가 종교의식을 주관했다.
* 주신은 언제나 어머니 여신이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묘사됨
* 풍요의 강력한 신이 황소의 형태로 여신과 함께 숭배됨
* 신들은 궁전, 집, 산 정상의 성소나 성스러운 동굴에서 숭배됨
* 미노아 종교의 많은 특징들은 그리스의 신비한 종교로 그대로 흘러 들어감

② 미케네 문명

* 미노아 문명이 번성하고 있는 동안, 이들의 영향을 받은 또 다른 문명이 그리스 본토에서 성장하고 있었음
* 기원전 1600년경 기원전 1900년경에 초기 형태의 그리스어를 구사하는 아카이아인과 이오니아인이 그리스 반도로 침공해 들어왔다.

그들은 기원전 166년경에 이르기까지 그곳에 정착하여 공동체를 형성함

* 기원전 1600년경 이후
* 그들은 1600년경 이후에 이웃한 크레타의 미노아문명으로부터 크게 영향을 받게 되었다. - 그리스적 요소와 미노아적 요소가 융합된 이 문명을 1600년경에서 1200년경 사이에 그리스의 중심 도시였던 미케네의 이름을 따서 미케네 문명이라고 부른다.
* 기원전 1500년경
* 크레타 섬에서 커다란 지진 발생 ⇨ 지진으로 크레타 세력은 매우 약화

⇨ 미케네인들이 그 섬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 - 기원전 15세기에 이르러 미케네인은 크레타인의 자리를 차지하여 약 200년 동안 동지중해를 완전히 장악하였고, 기원전 14세기, 13세기 전반에는 마침내 미케네시대의 전성기를 이루었다. 기원전 1250년경에 미케네인은 소아시아 서부의 트로이인과의 전쟁에서 승리 - 기원전 1500년경에 크레타 섬에서 발생한 커다란 지진은 크레타의 세력을 매우 약화시켰 고, 이로 인해 미케네인들이 그 섬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게 되었지만 기원전 1200년경에서 1100년 사이에 내부적으로 문명이 쇠락하고 있던 미케네인은 마침내 그리스의 서북으로부터 철제 무기로 무장한 도리아인에게 굴복했다.

* 미케네 문명
* 미케네인의 신앙은 영웅숭배의 형식을 취했다. 영웅은 그 행위에 의해 조상이라는 점을 초월하여 다음 세대의 전설로 남아, 그 전설 속에서 숭배된다. 그 전설이 곧 서사시이며 그 서사시에 의해 후세 그리스사람의 보재가 되는 영웅전설이 형성되는 것이다.
* 미케네시대는 영웅들의 시대였다
* ex) 전설에서 두드러진 것으로는 트로이 전쟁, 미케네왕가의 운명 등이 있다.

③ 암흑시대

* 기원전 1250년경에 미케네인은 소아시아 서부의 트로이인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 그러나 기원전 1200년에서 1100년 사이에 내부적으로 문명이 쇠락하고 있던 미케네인은 마침내 그리스의 서북으로부터 철제 무기로 무장한 도리아인에게 굴복했다.
* 이로써 에게문명 그 자체는 멸망했지만 귀중한 유산을 다음 시대에 남겼다.
* 에게문명의 생활양식 ⇨계승⇨ 그리스적인 생활양식
* 미케네 영웅들의 이야기는 그리스정신의 끊임없는 샘물로 이어지게 됨
* 기원전 1100년경 미케네 문명의 붕괴 ⇨ 기원전 800년경 암흑시대 도래
* 호메로스의 서사시 두 편 일리아드, 오디세이 가 전해지고 있어 어느 정도의 정보를 전함

(2) 지중해의 지리적 영향

① 그리스인들의 외향적 성격

* 그리스적 사유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합리적 사유(세계 질서와 명료성 그리고 지적인 것 에 대한 열정)은 그들의 환경적 영향이 크다.

여름의 구름 한 점 없는 날씨와, 겨울에조차도 지중해의 햇빛은 어떤 나라보다도 맑고 투명 하며, 강렬하다. 그 빛 속에서 그리스인들은 직관적으로 이 세상의 존재자들을 보았던 것이다.

* 한 사물을 다른 사물과 대비해서 그 윤곽을 두드러지게 보여주는 조각 작품, 건축물들, 회 화에서 찾아지는 어두운 구석이 전혀 배제되고 있는 그들의 시각과 밝은 색조들은 그리스라는 특유의 환경 조건이 만들어낸 부산품
* 그리스인들의 사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 그리스인들의 사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왜 그들이 그리스 본토와 펠로폰네소스 반도에 고립되어 머물지 않고 지중해 전 지역을 장악하려는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했고, 외부로 향하는 그들의 노력 가운데 그들의 문화와 문명이 싹텄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 그들이 처한 환경적 조건은 그들의 경제적, 종교적 사고를 규정해 주었으며, 나아가 그 밖의 다른 여러 역사적 사실들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② 그리스인들의 내향적 성격

* 수많은 산과 산맥 - 그리스의 영토는 수많은 산과 산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산맥은 알프스 산맥과 연결되어 있다.
* 산들은 작은 평야 지대를 구성하는 울타리였고, - 도시국가들은 이 평야 지대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 항구와 수많은 섬 - 그리스는 해상국가로 발전했는데 이유는 해안이 여러 부분으로 분리되어 있는 그리스의 지리 조건이 항 구를 보호하게 되고, 수많은 섬들이 서로 근접해 있기 때문이며 또한 그리스 바다는 언제나 순풍으로 잔잔했다.
* 지리적 환경 - 산맥과 항구, 섬으로 지역이 꾸분됨

⇨ 그리스의 특징 -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소규모적 집단 사회의 특성을 낳게 됨

* 산맥과 항구 그리고 섬으로 지역이 구분되는 지리적 환경으로 인해 그리스는 다른 지역과는 구별되는 소규모적 집단 사회의 특성을 낳게 되었다.

그리스는 기원전 9-2세기에 고도의 문명사회를 이루며 소단위의 국가(polis 폴리스) 형태를 갖추어왔으며, 다른 민족이나 사회의 종교 문화를 다양하게 수용하여 그 문화의 깊이와 폭은 우리의 상상 을 초월한다.

* 이러한 지리적 특성 속에서 고대 그리스 종교문화는 몇 가지 독특한 속성을 지니게 됨 다신교인 그리스 종교는 신화를 바탕으로 지역과 지역민의 기원에 부응하여 종교화되었다. 이 신화는 여러 작가들에 의해 시대적 배경에 맞도록 수정되게도 하였고 새로운 내용이 덧 붙여지기도 하면서 전해 내려옴
* 그리스의 대표 작가 - 호메로스로 그의 서사시는 일종의 신화집 - 시인 헤시오도스 역시 그리스인들을 위한 여러 전설을 문학 작품으로 집대성함
* 이러한 종교문화는 그리스인들에게 학습되고, 한 사회에서 다음 세대로 전달되며 새롭게 다루어진 내용들이 덧붙여지는 것
* 고대 그리스 종교 ⇨ 경제문화, 정치문화, 도시문화, 교육문화 고대 그리스 종교는 경제문화, 정치문화, 도시문화, 교육문화 전반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이는 다양한 문화의 요소가 그들 상호간에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시사함

새로이 유입된 외래문화는 그 사회 배경과는 문화 접변을 통해 새로이 변신하고 확대됨

* 그리스의 종교문화는 가정 혹은 집의 테두리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써 가정의 테두리 안에서 정착했다.
* 그리스인들은 국가가 정한 12신 중 한 신을 개인적으로 자유롭게 선택 가능했음 - 다른 가정과 구별되는 수호신 하나만을 선택한 경우도 있었고, 여러 신을 동시에 모시는 가정도 있었다.
* 제단을 만들고 그곳에 신의 상을 모시는데, 이는 우리나라 가정의 경우 불상, 숭배의 대상을 집 안 중요한 장소에 모시는 것과 같음
* 다신교로서 그리스 종교는 그리스인들의 신앙심과 함께 사회, 정치, 경제, 예술 문화의 형성 에 크게 기여함

그리스 종교문화는 그리스인의 인생관, 세계관, 사회 전체를 이끌어나가게 함

(3) 고대 그리스인들의 세계관과 문화

① 신화의 세계관은 인간에게 질서를 부여한다

* 그리스인 특유의 종교관이 그들의 사유 구조를 지배하고 있다.

신들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가 헤브라이즘과는 달리 더 이상 건널 수 없는 심연의 장벽이 가 로막혀 있다고 그들은 보지 않았다.

⇨ 그들은 인간의 세계를 그릴 때, 질서 있게 자리 잡혀 있는 신들의 세계와 마찬가지로 동 일한 질서로 이루어진 세계를 가장 이상적인 인간세계로 보았다.

* ‘만물은 신들로 가득 차있다’라는 그리스인의 생각은 헤시오도스에 이르면, 호메로스와 다른 어떤 생각들이 나타나기 시작함
* 헤시오도스의 신통기
* 무려 300여 명에 달하는 신들의 기원에 대해 밝힘
* 헤시오도스에 의하여 언급되는 신들의 목록은 사소한 것들까지도 지배하는 신
* 검푸른 색의 요정 그라우케, 섬 처녀 요정인 네사이에, 동굴의 요정 스페이오, 암초의 요정 아크타이아, 파도 위를 뛰어다니는 큐모토에, 파도를 움켜쥔 요정 큐모도케,

장려한 요정 아기웨 등

⇨ 섬, 동굴, 암초(절벽)사이에 퍼져서 활기차게 출렁대는 에게해의 아주 아름답고 생동하는 이미지를 나타냄 - 처녀인 도토, 일의 발단을 배려하는 프로토,

운반 및 목적지로 인도하는 처녀인 페에로사, 뒤나메데는 힘이 강한 처녀, 데샤메네는 영접하는 처녀, 판오페는 모든 것을 보는 처녀 - 헤시오도스의 의도는 과연 무엇인가?

* 지루하리만치 신들의 명칭에 대한 그 기원과 계보를 세우려는 그의 의도는 인간세계에 질서를 부여하려는 시도이다.

② 그리스의 신관 - 그리스의 신은 자연과 동일하다.

* 그리스 인간들은 (호메로스에게서 나타나고 있듯이) 그의 신들에 대해 자유롭다. 모든 것을 신에게 맡기면서도 절대적인 주종 관계로 그들 간의 관계를 유지하지는 않는다. 그리스의 신성은 무로부터 무언가를 창조할 수 없다. 그리스의 신성은 단지 주어진 사물을 고안/변형하는 행위만을 할 수 있을 뿐이다.
* 호메로스의 세계에서도 초자연적인 일은 어떠한 확고한 질서에 따라 일어나고 신들이 세속적인 일에 개입해야만 하는 경우에도 신들이 따라야 하는 올바른 법칙 존재 - 그리스인들은 신(theos)이란 말을 서술적 기능으로 사용한다. 신이란 말은 ‘죽어야만 하는 것들’이 생각할 수 있는 범주를 벗어난 그 무엇을 표현한다.

⇨ 대신 신은 죽음과 관계없음. 인간과 신의 가장 큰 차이점

* (ex 최홍만의 빼어난 힘은 신적이다. 수지의 아름다움은 신적이다. 금강산의 저 아름다운 경치는 신적이다 같이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경지에 대한 경탄을 의미함) - 그리스인들은 삶이나 자연에 있어서 두드러지게 즐거움, 두려움을 주는 것들에 대해서 감

격, 경외의 마음을 갖게 되면 ‘이것은 신이다’ ‘저것은 신이다’라고 말함 - 그리스인들이 ‘사랑은 신이다, 승리는 신이다’ 라고 말한다. 따라서 그리스인들에게 신이란 인간 이상의 것이요, 불멸의 존재요, 불후의 것을 의미한다. 세계에 작용하고 있는 지배력, 힘, 우리와 더불어 태어나지 않았으며, 우리들이 사라지고 난 뒤에도 존속하게 될 그러한 지배력이나 힘은 그 어떤 것이라도 이처 럼 하나의 신으로 불릴 수 있었고, 실제로 그러한 대부분의 것들은 신이었다.

③ 화합과 조화를 추구하는 종교문화

* 그리스의 종교는 원시종교와 고등종교의 중간 단계에 속한 종교
* 원시 종교 - 집단적 감정이 차원에서 신성한 힘과의 합일을 통해서 인간이 원하는 것들을 얻고자 하였던 미술적 기원과 의식의 기초
* 고등 종교 - 현대적 의미의 고등 종교
* 신 존재 증명과 같은 신학상의 교리나 절대자로서의 유일신에 대한 믿음과 기도, 사랑, 봉 사의 실천과 같은 신앙의 태도와 연관되는 종교적 문제들

< 훨씬 더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어떻게 하면 농산물의 다산성을 확보하고 도시국가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며 신적 질서에 따른 개인의 가치 있는 삶을 영위할 것인가와 같은 사회, 정치, 윤리적 차원의 문제들에 대한 해결

* 그리스의 종교문화는 올림포스 12신의 절대 신념 체계에서 결정된다.

그러나 그리스의 신 문화는 여러 신들 하나하나가 신앙의 주체로서 조화 속에 함께 존재하 는 다신교 공존의 문화이다.

고대 그리스인의 문화 상대론적 인식은 자신의 신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의 역 할과 기능을 인정하고, 타종교를 비방/비판하지 않는다는 것임

⇨ 그들의 집안, 국가의 신이 아닐지라도 다른 도시국가에 있는 유명한 신의 신전에 가서 신탁을 의뢰하는 것은 그리스 사회에서는 당연한 일이었다.

이러한 종교 풍토에서 맺어지는 사상은 당연히 조화의 가르침이라 말할 수 있음 ④ 신전과 식탁은 정적인 종교행위의 구심점이다.

* 고대 그리스의 종교적 분위기는 신전을 중심으로 형성된다.
* 신전 - 종교 제식과 신앙생활의 실천은 신성한 구역인 신전에서 이루어지며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신전들의 입구는 거대한 건축물로 세워져 사람들을 압도 했는데, 그 이유는 그것을 통해 신성 지역임을 표시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 그리스 아테네 파르테논 신전
* 이 신전의 동쪽에 아테나 여신의 탄생을 주제로 신전 장면을 장식한 신전이 있음. - 신화를 믿는 자들은 신전 안에서 사색에 잠기고 신비한 기운의 느낌을

대지, 하늘로부터 받는다. 이것을 통해 시민은 더욱더 자부심을 느끼고, 작가들은 다음 세대를 위해 신화를 새롭게 재조명하고 발전시키는 것임

* 그리스 지역의 신탁 성지
* 여러 곳이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유명했던 것은 코린토스 만 위의 파르나소스(pamassos) 산 경사면에 위치했던 델포이(Delphi)의 아폴론 신탁을 들 수 있다.
*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를 들은 곳
* 아폴로 신탁 - 무엇보다 아폴로의 아버지가 신과 인간이 최고 통치자이기 때문에 아폴론 신탁은 고대 그리스 신탁들 중에서 가장 인기가 높았다.
* 즉, 아폴론의 예언이 제우스에 의해 영감을 받고 제우스의 힘이 메시지로 전달되었다는 점이 크게 작용함 - 델포이 신탁 - 델포이 신탁은 범그리스인의 종교적 기능의 역할도 수행했다.
* 그리스에서 종교적 제례는 본국, 식민시, 더 나아가 인종상 동일계통 국가들의 유대를 강화시켜 주는 기능을 함
* 지역국가 공동체에 관련된 신들이 그리스 전역에 걸쳐 숭배의 대상이 되기도 함
* 델포이는 올림포스 신들에 대한 숭배를 널리 보급하고 또 그 신들을 지방 수호신들과 융화시키는 역할을 했다.
* 델포이는 범그리스적 구심점으로써 종교적 측면에서 그리스 국가들에게 단일한 유대의 기반을 형성해 주었다.

⇨ 이러한 사실은 그리스 민족이 그들의 지방적 관례, 전통을 자치적으로 유지하려고 했던 강한 집착을 갖고 있음을 엿봄 - 도시 국가의 과도기로 인해 그리스 도시국가가 정착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써 신탁의 필요성이 증가해 점차 다양한 신탁이 행해짐 특히 도시국가의 내부에서 정치적 권위가 도전 받기 쉬운 경우 / 외부적 위협으로 인해 위험이 증가할 때 신탁은 자문의 권위를 향상시킬 수 있었음 ⑤ 종교축제 문화는 동적인 종교행위의 구심점이다.

* 종교 축제
* 다신교인 그리스 종교 속에는 한 도시국가의 전 시민이 먹고 마시고 노래와 춤 그리고 가면극을 즐기는 종교축제가 있다.
* 전통 종교축제는 12개월로 나뉜 월력에 의해 거의 매월 열린다.
* 즉 고대 그리스인에 맞는 생활의 리듬인 것이다.
* 1년의 주기에서 각 계절에 맞추어 자연을 즐기고 신들을 위해 제식을 올린다.
* 종교축제 기간에는 그 어느 나라와도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지 않는다.

전쟁 중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휴전을 하는 것이 그리스인들의 관습이다.

* 종교축제는 단순히 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제식 행위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성가대, 경연대회, 스포츠 경기, 희곡 등은 단합과 화학의 상징이다. ⇨ 이 의미는 고대 그리스 종교가 경제문화, 정치문화, 도시문화, 교육문화 전반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음을 말하는 것
* 특히 주신 디오니소스의 봄과 가을 축제 때, 그리스인들은 봄철에는 한 해의 풍년을 기원하 는 기도를, 가을철에는 추수 감사제를 드렸다.

이 기간 중 그들은 새로이 몸치장을 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가족의 번영, 안전을 위해 기도

- 부락 단위나 국가 단위의 기원 행사도 이 시기에 제사장의 주도 하에 이루어짐 이러한 종교축제는 종교문화를 확산하고 발전시키는 주된 역할을 했다.

# 3주. 그리스 신화의 배경과 세계관(2)

(1) 우주와 신들의 탄생

① 다양한 우주 생성 신화

→ 가장 유명한 창세 이야기는 무엇일까?

: 그리스로마신화에는 천지창조에 관한 이야기가 몇 가지 있다. 그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것 은 헤시오도스(Hesiodos)의 창세 신화이다. 그가 그리스 창세 신화의 큰 틀을 잡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일리아스의 호메로스도 창세신화를 언급했고, 오르페우스 신앙도 창세 신화에 대 해 말하고 있다. 그러나 역시 가장 유명한 창세 이야기는 헤시오도스가 ‘신통기’에서 서술한 이야기이다. → 코스모고니아

: · 그리스어로 질서를 뜻하는 코스모스(kosmos) + 그리스어로 출생을 뜻하는 고노스(gonos) = 코스모고니아(kosmogonia)

· 카오스/무로부터 천지가 창조되는 것

· 아득한 태초의 무로부터 만물이 태어나 우주의 질서가 창출되는 것 ⇨ 과학적

→ 천지 창조는 신들 간의 세계 지배권 쟁탈전보다 훨씬 앞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야기할 것이 없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신과 같은 절대자가 세계를 창조한 것이 아니며 만물은 자 연히 생성되어 자리를 잡고 신들도 나중에 생겨난 것으로 생각했다.

→ 카오스(혼돈)와 가이아(땅)와 우라노스(하늘)는 다툴 것 없이 많은 신들을 낳았다. 공간이 펼쳐지고 시간이 흐르기 시작하는 질서가 잡히자, 세계는 지배의 대상이 된다. 신들의 탄 생이란 세계의 지배권을 둘러싼 싸움에서 비롯된다. 신들의 출생 자체는 큰 의미가 없다.

세계를 분할해 지배하는 능력이 생길 때에야 신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탄생하기 때문이다.

: · 승리한 신 - 싸움에서 승리한 신들만이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권력을 이어받고 신으로서 자격을 가짐

· 패배한 신 - 신들은 죽지 않기 때문에 패배한 신들은 깊고 깊은 암흑의 지하 세계에 갇힌다.

② 우주의 생성

→ 카오스, 가이아, 에로스가 최초의 세 주역

→ 카오스 : · 제일 먼저 태어난 것은 크게 벌어진 심연의 혼돈 카오스였다.

· 카오스는 본래 ‘입을 크게 벌리다’ 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것으로, 그리스 신화에서는 거대한 무한 공간, 공허를 의미한다.

· 하늘과 땅의 구별이 없고 물질들과 에너지가 아직 분리되지 않아 모든 것이 뒤엉켜 있는 상태를 말한다.

· 카오스에서 에레보스, 닉스가 나옴

* 어둠의 신 에레보스 - 에레보스는 땅 밑의 칠흑 같은 어둠을 뜻함
* 밤의 여신 닉스 - 닉스는 밤하늘의 어두움을 뜻함
* 에레보스, 닉스에서 맑은 대기의 여신 아이테르와 낮의 신 헤메라가 태어남

· 만물의 근원인 카오스로부터 모든 존재가 생성하고 변화할 터전인 어둠, 밤, 낮이 생겨난 것이다.

⇨ 가이아 : · 신들이 안주하는 거처인 광활한 대지 가이아가 태어났다.

· 카오스에서 스스로 생명을 얻은 최초의 신들이 생겨났다

· 모든 신들의 어머니 격인 ‘가슴이 넓은’ 대지의 여신 가이아가 생겼다.

· 땅 속 깊은 곳, 즉 명계의 가장 깊은 곳에서 소용돌이치는 타르타로스가 태어 났다.

· 별로 뒤덮인 하늘인 우라노스, 산맥의 신 오레, 대지를 두를 수 있는 바다 폰

토스

· 이렇게 해서 하늘과 땅과 바다가 갖추어졌다.

· 가이아는 모든 신과 인간의 시초로서,

· 고대 그리스인들이 제우스를 최고신으로 숭배하기 이전에 받들던 모신이었다.

· 가이아의 아들 우라노스가 감사의 뜻으로 비를 내려 땅 속에 잠자던 씨앗들이 생명을 얻게 되었다고 한다.

⇨ 에로스 : · 카오스, 가이아에 이어 신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에로스가 태어났다.

· 이 천지창조 이야기에는 아직 인격화된 신이 등장하지 않는다. 에로스는 후대 의 이야기에서 사랑과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의 아들로 분명한 인격을 갖고 점 차 아이의 모습을 띠지만, 이 시점에서는 생식이라는 근원적 힘을 나타내고 있 다. 원래 에로스는 아프로디테의 아들로 등장하지는 않는다.

· 혼돈 속에서 모든 것들을 서로 결합시켜 생성을 이루어내는 힘이 에로스이다. 에로스는 태어나자마자 그 힘을 발휘한다.

· 우라노스가 가이아에게 달라붙었다. 그런데 에로스의 힘이 너무 강해 포옹이라 기보다는 억압에 가까웠다. 우라노스의 지칠 줄 모르는 성적 욕구가 가이아의 생성 작용을 막았다.

1. 우주의 계보

→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은 대지와 하늘 등과 같은 자연을 나타내는 신들도 포함해서 모두 명확한 성별을 갖고 있다. 다만 만물의 근원인 카오스는 유일하게 중성적인 존재이 다.

|  |  |  |
| --- | --- | --- |
| 카오스 | 가이아(대지) | 우라노스(천공) |
| 오레(산맥) |
| 포놑스(바다) |
| 타르타로스(명계에 가장 깊은 곳) |  |
| 에로스(사랑) |
| 에레보스(암흑) | 아이테르(창공) |
| 헤메라(낮) |
| 닉스(밤) |  |

1. 티탄 신족의 탄생

→ 가이아는 우라노스와 관계하여 이번에는 단순히 신격화된 자연이 아닌 신들을 낳았다. 먼 저 남신 6명과 여신 6명을 낳았는데, 이들이 바로 티탄 신족 12남매다.

: · 남신족 - 장남 오케아노스, 코이오스, 히페리온, 크레이오스, 이아페토스, 막내 크로노

스

· 여신족 - 테티스, 포이베, 테이아, 레아, 테미스, 므네모시네

→ 티탄 신족의 뒤를 이어 가이아는 키클롭스와 헤카론케이르를 낳았는데 이들은 각각 3형제 로 태어났다. (총 6명)

: · 키클롭스 - 이마 한가운데 눈이 있는 외눈박이 거인족

· 헤카톤케이르 - 50개의 머리와 100개의 팔이 달린 괴물

→ 이들 티탄 신족과 키클롭스, 헤카톤케이르는 올리모스 신족의 선조격으로, 혼돈 상태에 있 던 원시 대자연의 힘을 상징하는 신들이었다.

(2) 제우스의 탄생

① 가이아의 고통

→ 우라노스는 가이아가 낳은 키클롭스와 헤카톤케이르 형제들을 미워하였다. 끔찍하고 무시 무시한 모습뿐 아니라, 싸움과 행패를 일삼았기 떄문이었다.

→ 그래서 우라노스는 키클롭스와 헤카론케이르 형제들을 빛이 닿지 않는 땅 속 깊은 곳, 즉 타르타로스에 가두었다.

→ 타르타로스는 가이아의 몸 속 깊은 곳이었으므로, 덩치 큰 자식들이 요동을 치면 가이아는 견딜 수 없이 괴로웠다. 가이아는 고통에 신음하며 남편의 심한 처사에 분개했다. 우라노 스에게 반격을 가하려고 티탄들에게 복수를 호소했지만, 그들은 아버지를 두려워하여 고개 만 숙이고 있을 뿐이었다. 그런 와중에 가장 나이 어린 막내 크로노스가 어머니의 계략에 가담하고 나섰다.

→ 가이아는 강철로 큰 낫을 만들어 막내아들 크로노스에게 주면서, 우라노스가 자신의 몸 위 로 올라오거든 우라노스의 생식기를 잘라 버리라고 말했다. 크로노스는 가이아에게 받은 낫을 들고 몰래 침실에 잠복하여 우라노스를 기다리고 있었다. 밤이 되자 우라노스는 언제 나처럼 가이아를 찾아왔다. 그때 크로노스는 아버지 우라노스의 생식기를 잘라서 멀리 던 져 버렸다.

→ 이 일로 인해 우라노스는 왕좌에서 내쫓기게 되었으며, 하늘과 땅이 영원히 갈라져서 더 이상 섞이지 않게 되었다. 성기가 잘린 우라노스는 크로노스 역시 자식에 의해 쫓겨날 것 이라는 저주를 남겼다.

→ 우라노스의 상처에서 흘러나온 피는 가이아의 몸인 대지에 떨어졌고, 생식기는 바다에 떨 어졌다.

: · 대지에 떨어진 피 - 복수의 여신 에리니에스 자매와 거인족 기간테스 형제, 그리고 멜리아스라는 물푸레나무의 님프(요정)들이 태어났다.

· 파도치는 바다에 떨어진 생식기 - 흰 거품이 솟아 나왔는데, 이 거품에서 사랑과 미 의 여신 아프로디테가 탄생했다. → 크로노스는 이전까지 우라노스가 쥐고 있던 세상의 지배권을 빼앗아 수중에 넣었지만 키클 롭스와 헤카톤케이르는 그대로 지옥에 가둬 놓았다.

→ 왕좌에 오른 크로노스는 자신의 누이 레아와 결혼했다. 그러나 크로노스느 아버지 우라노 스 못지않게 폭정을 휘둘렀다. 더욱이 우라노스에게 ‘너도 네 자식에게 세상의 지배권을 빼앗길 것이다’ 라는 예언을 받았기 때문에 레아 사이에서 생긴 자식들을 낳는 즉시 삼켜 버렸다.

→ 레아가 낳은 자식들인 헤스티아, 데메테르, 헤라, 하데스, 포세이돈 5남매는 차례로 크로노 스의 입 속으로 들어갔다. 레아는 자신의 아이를 잃을 때마다 깊은 슬픔에 잠겨 절망의 눈 물을 흘렸다. 남편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던 그녀는 어머니 가이아와 아버지 우라노스 에게 아이를 구해 달라고 간청한다.

→ 가이아는 딸의 소원을 들어주어 레아를 크로노스 몰래 크레타 섬으로 인도했다. 크레타 섬 에서 무사히 남자 아이를 출산한 레아는 아이의 양육을 가이아에게 맡기고, 크로노스에게 는 배내옷을 입힌 커다란 돌을 자식이라고 속여 건네주었다. 크로노스는 아무 의심 없이 그 돌을 자식이라 여기고 삼켜 버렸다.

→ 크레타 섬에서는 레아가 낳은 남자 아이가 성장하고 있었다. 아이는/제우스는 크레타 섬의 이데산 동굴에서 님프들의 보호를 받으며 산양의 젖을 먹고 자랐다.

→ 성인이 된 제우스는 가이아의 가르침에 따라 크로노스에게 구토제를 먹였다. 그러자 크로 노스는 삼켰을 때와는 정반대 순서로 제우스의 형과 누이들을 모두 토해 냈다. 마지막으로 삼켰던 돌을 제일 먼저 토해냈다. 뒤이어 제우스의 바로 위의 형 포세이돈과 큰형 하데스, 셋째 딸 헤라, 둘째 딸 데메테르, 첫째 딸 헤스티아가 나왔다.

→ 제우스는 자신을 대신했던 돌을 세계의 중심인 파르나소스 산에 올려놓고 승리의 기념으로 삼았다. 그리고 크로노스를 땅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타르타로스에 가두었다.

→ 크로노스로부터 왕좌를 빼앗은 제우스는 형제들과 테살리아 북부의 올림포스 산에 거처를 정하고 세력을 키워나갔다. 이 산의 이름을 따서 그들은 올림포스 신족이라고 불리게 된 다.

(3) 신들의 전쟁

① 티타노마키아 – 1차 전쟁

→ 크로노스를 물리치고 세력을 키운 제우스 일행은 오르튀스 산에 모여 있던 티탄 신족과 세 상의 지배를 둘러싼 싸움을 하게 된다.

→ 티타노마키아 : 올림포스 신들과 티탄 신족 사이의 전쟁을 티타노마키아라고 하는데, 이는 티탄들과의 싸움이라는 뜻이다.

→ 티탄 신족 가운데 제우스의 편에 선 이들도 있었다.

: · 어머니 레아는 물론, 오케아노스와 그의 딸 스틱스, 그리고 스틱스의 자식들인 크로토 스, 비아, 젤롯, 니케 등

· 이아페토스의 아들 프로메테우스와 에페메테우스도 합세

→ 올림포스의 젊은 신들과 티탄 신족이 서로 물러서지 않고 10년간 계속 싸움

→ 전쟁이 계속되던 어느 날 가이아가 ‘땅 속 깊은 곳에 유폐되어 있는 자들을 아군으로 만들 면 승리할 것이다’ 라는 비책을 제우스에게 내놓는다. 제우스는 가이아의 조언을 받아들여, 당장 지하 깊은 곳 타르타로스에 유폐되어 있던 키클롭스와 헤카론케이르 형제들을 해방시 키고 자기편으로 끌어들였다.

→ 대장장이였던 키클롭스 삼형제는 제우스를 위해 강력한 무기인 번개를 만들어 주었다. 이 것은 불꽃 화살을 다발로 묶어놓은 듯한 무기, 즉 벼락이었다. 그리고 포세이돈에게는 삼 지창 ‘트라이아나’를, 하데스에게는 머리에 쓰면 몸이 보이지 않게 되는 황금투구 ‘퀴에네’ 를 만들어 주었다. 팔이 100개인 헤카톤케이르 삼형제는 전장에서 놀라운 위력을 발휘했 다. : 제우스는 벼락의 신

→ 헤카톤케이르 삼형제는 모두 300개의 손에 각각 거대한 바위를 들고 티탄 신족을 향해 던 졌다. 티탄 신족은 이를 악물고 이들의 공격을 버텼지만, 대지는 심하게 진동하면서 신음 소리를 냈다. 이어 제우스가 벼락을 내리치자 대지는 불길을 내뿜었고, 강과 받는 뜨겁게 끓어올랐다. 티탄 신족은 세찬 번개 불빛 때문에 시력을 잃고 말았다.

→ 결정적 타격을 입힌 것은 헤카톤케이르 삼형제였다. 기세가 더욱 오른 그들은 300개의 팔 을 이용해 잇달아 큰 바위를 던졌다. 티탄 신족들은 많은 양의 큰 바위 밑에 깔려 꼼짝도

할 수 없게 되었다.

→ 제우스는 티탄족을 쇠사슬로 묶어 대지의 깊은 곳 타르타로스에 가두었다. 티탄 신족은 청 동 문이 잇는 감옥에 갇히고, 헤카론케이르 삼형제가 문을 지켰다. 그리고 아틀라스는 두 어깨로 하늘을 영원히 떠받치고 있어야 하는 형벌을 받았다.

→ 제우스 삼형제는 제비를 뽑아 제우스가 하늘을, 포세이돈이 바다를, 하데스가 지하 명계를 통치하기로 결정했다. 올림포스와 대지는 형제들의 공동 소유가 되었다. 이로써 제우스를 주신으로 하는 올림포스 신들의 시대가 열렸다.

② 기간토마키아 – 2차 전쟁

→ 제우스를 비롯한 올림포스의 신들은 우라노스의 피가 떨어진 자리에서 태어난 기간테스와 도 싸워야 했다.

: 기간테스 – 기간테스는 불사의 몸은 아니었지만 산을 번쩍 들어 올릴 수 있을 만큼 힘이 셌고, 키가 커서 깊은 바다도 허리밖에 안 찼다. 기간테스는 커다란 나무와 바위를 무기로 올림포스를 공격해 왔다. 그 위력에 땅이 흔들리고 해일이 일 어나 섬이 가라앉았으며, 강물이 범람하고 화산들은 용암을 분출했다.

→ 이 싸움이 ‘기간토미아’라 불리는 ‘거인들과의 전쟁’이다.

→ 올림포스 신들은 번개를 든 제우스의 지휘 하에 포세이돈, 헤파이스토스, 아폴론, 아테나, 아레스, 디오니소스 등이 방어에 나섰고, 승리의 여신 니케가 이들의 옆에 섰다. 그러나 기 간테스들의 힘도 만만치 않아 치열한 전쟁이 오랫동안 계속되었다.

→ 결국 ‘올림포스의 신들만으로는 쓰러뜨릴 수 없지만, 인간을 같은 편으로 만들면 쓰러뜨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예언을 듣고 영웅 헤라클레스를 전쟁에 끌어들였다.

: 하지만 그는 인간 창조와 대홍수 훨씬 이후에 태어난 영웅이기 때문에, 이때 그가 참전 했다는 것은 신화의 연대기 순서상 맞지 않는다. 이는 ‘기간토마키아’가 비교적 나중에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이야기임을 드러내 주는 것이다.

→ 어쨌든 신들의 전쟁 속에 헤라클레스가 끼어들었다. 헤라클레스는 신들의 편에 서서 히드 라의 독을 바른 화살로 기간테스들을 죽였다. 헤라클레스가 기간테스의 우두머리 알키오 네우스를 죽이자 전세가 신들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 기간테스는 올림포스 신들의 연합 공격을 당해 낼 수 없었다. 싸움은 올림포스 신들의 승 리로 끝이 났고, 남은 기간테스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③ 튀폰과의 전쟁 – 3차 전쟁

→ 튀폰은 기간테스들보다도 더 큰 괴물이었다. 티탄 신족이 타르타로스에 유폐된 것은 가이 아의 뜻이 아니었다. 제우스를 도와 크로노스를 제거하기는 했지만, 자식들이 지하의 깊은 어둠 속에 갇힌 것이 마음에 걸렸다. 가이아는 제우스에게 복수하기 위해 타르타로스와 관 계를 가진 뒤 반인반수의 괴물 튀폰을 낳았다.(제우스의 누이이자 아내인 헤라가 남성의 도움 없이 혼자 낳은 아들이라는 설도 있음)

: 튀폰 – 튀폰은 그리스 신화에서 가장 거대하고 막강한 괴물이다. 이 괴물은 머리가 하늘 에 있는 별에 닿을 만큼 거대하며, 좌우로 팔을 뻗으면서 서쪽과 동쪽 끝에 이르 렀다. 어깨에서는 뱀의 머리가 100개나 있고, 하반신은 큰 뱀처럼 똬리를 틀고 있었다. 게다가 이 거대한 괴물은 움직일 때마다 쉭쉭거리며 크고 무서운 소리를 냈고 눈에서는 불을 내뿜었다.

→ 이 엄청난 괴물이 제우스의 주권을 뺏으려고 올림포스 산으로 공격해 올라왔다. 괴물의 음 모를 눈치 챈 제우스가 커다란 천둥소리를 올려 상대를 위협하자, 이에 튀폰도 화염을 내 뿜으며 대항했다. 처음에는 제우스가 번개로 튀폰에게 상처를 입혔으나, 도망가는 튀폰을 뒤쫓다가 역습을 당했다. 꼬리에 얻어맞아 심각한 부상을 당한 것이다. 튀폰은 제우스의 팔과 다리의 힘줄을 끊어 버리고 동굴 속에 가두었다. 그리고 힘줄을 은밀한 곳에 숨겼다.

→ 이때 바람과 도둑의 신 헤르메스가 나서서 제우스가 갇혀 있는 동굴과 힘줄이 숨겨진 곳을 알아냈다. 제우스는 곧 기력을 회복하고 튀폰을 제거하기 위해 공격을 재개했다.

→ 격렬한 공방 끝에 제우스가 튀폰의 머리 위에 벼락을 치자 괴물은 비틀거리며 쓰러졌다. 그러자 제우스는 재빠르게 튀폰의 큰 몸뚱이를 타르타로스로 던져 넣었다. 이제 제우스를 중심으로 한 올림포스 신들의 권좌가 확실해져 더 이상 위협받는 일이 없게 되었다.

(4) 올림포스의 12주신

① 신들의 서열

→ 올림포스의 신들에게는 분명한 서열이 있다. 최고의 자리를 제우스의 형제자매와 자식들로 구성되었다. 그들은 올림포스의 12신이라 불렸는데 말하자면 올림포스의 상류계급이었다.

: · 올림포스 12신 – 12신에는 제우스, 포세이돈, 헤라, 데메테르, 헤스티아, 아테나, 헤파 이스토스, 아레스, 아폴론, 아르테미스, 아프로디테, 헤르메스인데, 헤 스티아 대신에 디오니소스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 참고로 명계의 왕 하데스는 거의 지하 세계에만 틀어박혀 있기 때문에 올림포스의 12신으로 꼽히지 않는다.

· 제우스 : 천상의 주인이자 신과 인간 사회를 지배하는 신

· 포세이돈 : 바다와 물의 신

· 헤라 : 올림포스 여신 중 최고의 지위에 있음

· 데메테르 : 대지의 생산력을 관장하는 여신

· 헤스티아 : 가정을 수호하는 여신

· 아테나 : 지혜와 전쟁의 여신

· 헤파이스토스 : 대장장이 신

· 아폴론 : 태양의 신이자 궁술, 의술, 예언, 음악 등을 관장

· 아르테미스 : 달의 여신이자 사냥의 신

· 아프로디테 : 사랑과 미, 다산의 여신

· 헤르메스 : 전령의 신이자 상업을 주관 · 디오니소스 : 술과 포도의 신

→ 올림포스에는 또 어떤 신들이 살았을까?

: · 올림포스에는 많은 신들이 살고 있었다. 아프로디테를 항상 따라다니는 사랑의 신 에로 스, 헤라의 딸로 영원한 청춘을 상징하는 헤베와 출산의 여신 에일레이티아, 운명의 여 신 모이라이, 계절의 여신 호라이 등이 있다.

· 또한 티탄 신족 중에서도 제우스에게 반항하지 않은 테미스와 니케 등은 올림포스에서 제우스 일족과 함께 지냈다. 테미스는 율법의 여신으로, 제우스와 관계하여 자식들을 낳 았으며, 올림포스 신들의 회의를 소집하고 연회를 주관하기도 했다.

② 올림포스 산

→ 올림포스 신들의 궁전에서는 매일 화려한 향연이 펼쳐졌다. 그들은 신들의 음식 암브로시 아와 신들의 술 넥타르를 마음껏 즐겼다. 만일 이것을 인간이 먹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 신들은 주로 지상에 사는 인간들을 천상에서 지켜보거나 그들에 대한 의 논을 하면서 지냈다.

: 암브로시아 - 꿀과 물, 올리브우, 보리 등으로 만든 음식으로 신들이 영생할 수 있게 만 드는 것

→ 올림포스 산

: 고대 그리스인이 신들의 거처라고 생각했던 올림포스 산은 마케도니아와 테살리아 지역의 경계선에 있다. 이 산은 해발고도 2917m인 그리스 최고봉으로, 정상은 거의 1년 내내 눈 으로 덮여 있고 구름에 가려져 있을 때가 많아 산의 전모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 이 같은 산의 위용은 신들의 거처로 알맞았을 것이다.

(5) 신화 속 우주생성과 전쟁의 의미

1. 진정한 그리스 신화는 제우스의 등극과 함께 시작한다고 할 수 있다.

→ 우라노스의 생식기를 절단하는 것은, 아시아에 부리를 두고 있는 고대 농경 사회에서 생산 과 풍요를 기원하며 행하던 종교의식 행위이다. 거세 때 땅에 떨어지는 피가 대지의 생명 력과 다산성을 증진시킨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 그러나 제우스가 크로노스를 물리친 것은, 먼저 자리 잡고 있던 신앙 체계를 위력적인 새 로운 신앙이 물리치고 패권을 차지한 사실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1. 제우스와 올림포스 신들의 티탄족 퇴치와 세계 지배권 확립은 그리스 본토에 아리안족이 들어와 자리를 잡기 이전에 있었던 토착 신앙을 제우스와 그의 형제들로 형상화된 신흥 종 교가 제압하고 대체하는 과정을 우의적으로 표현할 이야기일 가능성이 높다.
2. 제우스가 물리친 그 신들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그 신들은 전설 속에 계속 살아 남았거나 어떤 곳에서는 종교 의식의 숭배 대상으로 남아 있었다. 그러나 그 신들은 이미 쇠퇴해서 뒤로 물러난 세력일 뿐이었다.

→ 그리스인이 좋아하지 않았던 신

: 그리스 사람들은 헤카톤케이레스처럼 괴물 같은 신들은 좋아하지 않았다. 해양 국가인 그리스에서 그러한 신들은 대체로 바다와 관계된다. 가령 백수 거인 헤카톤케이레스는 고대 에게 해 연안에서 발전되는 가장 오래된 도기에 빈번하게 그려진 바다 낙지들을 이야기로 바꾼 것이다.

1. 이 외에도 다른 많은 괴물들은 그리스 민족이 그리스 본토에 도래하기 이전부터 전승되었 던 것으로 추정되고, 이 모든 존재들은 자연현상과 그 힘이 형상화한 것으로 보인다.

# 4주차. 신들의 계보와 특징(1)

(1) 올림포스 12주신의 계보

1. 티탄들과의 세계 지배권 쟁탈전에서 승리한 제우스 형제들은 이제 안정적으로 세계를 지배 하기 위해 역할을 분담해야 했다. 여자들의 경우는 문제가 없었다. ‘운명’이 정하는 대로 세 여신의 역할과 분야가 결정되었다.
2. 제우스 삼 형제인 제우스, 포세이돈, 하데스는 제비뽑기를 해서 역할을 결정했다.

→ 제우스는 하늘나라를, 포세이돈은 바다를, 그리고 하데스는 지하세계와 죽은 자들의 왕국 을 차지했다. 올림포스와 지상의 세계는 삼 형제가 같이 다스리기로 했지만, 지하 세계에 기거하는 하데스와 바다 밑에 사는 포세이돈은 거의 올림포스에 올라오지 않았다. 그래서 자연히 올림포스는 제우스의 누이들과 자식들이 거주하는 곳이 되었다.

1. 후일 로마 시대에 올림포스의 신을 티탄 12형제와 상응하게끔 12신으로 정해 명단을 만들 기도 했지만 인위적인 성격이 강했다. 올림포스 신들의 구성은 시대에 따라 조금씩 변했기 때문이다.
2. 제우스의 자식 여덟 명과 크로노스가 낳은 제우스의 형제자매 여섯 명을 합치면 올림포스 신은 모두 열 넷이었다. 신들의 수를 열두 명으로 하기 위해 올림포스에 거의 올라오지 않 는 포세이돈과 하데스를 제외하기도 한다. 그러나 호메로스의 ‘일리아드, 오디세이아’에는 포세이돈이 디오니소스 대신 올림포스의 열두 신 중의 하나로 등장한다. 따라서 신의 계보 를 따질 때에는 유동성이 필요하다.

→ 제우스의 형제들 : 제우스, 포세이돈, 하데스, 헤라, 헤스티아, 데메테르

→ 제우스의 자식들 : 아프로디테, 아폴론, 아르테미스, 헤파이스토스, 아테나, 아레스, 헤르메 르, 디오니소스

(2) 신들의 왕, 아버지 제우스

1. 제우스라는 이름은 ‘번쩍이다’, ‘하늘’을 뜻하는 인도유럽어족의 어근 ‘dei’에서 비롯되었다. 그는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천둥과 번개 외에도 눈, 비, 가뭄 등 모든 기상 상태를 주관했

다. 농경 사회인 고대의 생활에서 자연현상만큼 중요한 것은 없었다. 날씨 때문에 풍년과 흉년이 드는 만큼 그는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1. 제우스가 가진 여러 덕목 가운데에는 사람들의 잘못과 오점을 씻어내는 정화의 능력이 있 다. 타락과 과오로 더러워진 정신을 정화하는 제우스를 찬양하며 제물을 바치는 숭배 의식 이 도시 바깥 넓은 터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장엄하게 거행되었다. 시니스 (Sinis)라는 강도를 죽인 테세우스도 제우스 제단에서 죄를 씻었다.
2. 제우스는 가족과 친척의 의무와 권리를 감시하고 특히 결혼 생활을 수호하는 신이다. 그는 정의를 수호하고, 폭력이나 협잡에 의한 권리 침해를 보호했으며, 모든 좋은 율법의 아버 지였고 청원자의 대부였으며, 이방인과 거지를 보살피는 수호자였고, 맹세와 약속을 주관 하여 당사자들이 서로 존중하는 자세를 갖도록 했다.
3. 제우스는 운명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두 전사 나두 민족이 대결을 벌일 때 전세가 결정적인 순간에 운명의 저울을 들고 그들의 생과 사를 가늠해 보기도 한다.
4. 제우스의 사랑과 2세대 신들의 탄생

→ 메티스(Metis)

: · 제우스의 첫 아내는 지혜와 조심성의 여신 메티스였다. 메티스가 첫 아이를 임신했을 때 제우스는 불길한 예언을 들었다. 메티스가 이번에는 딸을 낳겠지만, 다음에는 인간들과 신들의 아버지가 될 강력한 아들을 낳아 자신의 왕권을 빼앗을 것이라는 예언이었다.

· 제우스 자신도 아버지 크로노스의 통치권을 빼앗은 바 있기 때문에 더욱 걱정될 수밖에 없었다. 제우스는 메티스를 작게 만들어 과일과 함께 삼켜버렸다. 그렇지만 메티스가 임 신한 딸 아테나는 태어나야 했다. 달이 차서 아테나가 제우스의 머리에서 태어나려고 하 자, 제우스는 할 수 없이 도끼로 자기 이마를 갈라야만 했다.

→ 테미스(Themis)

: · 제우스는 다시 법과 질서와 이치를 상징하는 여신 테미스와 결혼했다. 그로부터 계절의 여신 호라이(Horai) 세 자매와 운명의 여신 모이라이(Moirai) 세 자매가 태어났다.

· 호라이 세 자매 - 에우노미아(Eunomia, 규율), 디케(Dike, 정의), 에이레네(Eirene, 평

화)인데, 이들은 기후의 신 제우스를 도와 계절의 변화를 주관한다.

· 모이라이 세 자매 - 생명의 실을 뽑아내는 클로토(klotho), 운명을 나누어 주는 라케시스 (Lachesis), 생명의 실을 끊는 아트로포스(Atropos)인데, 이들은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의 삶을 결정하는 운명의 실을 엮는

다.

· 이 신화는 전지전능한 제우스가 어떻게 세계의 영원한 질서를 유지하는지 보여주며, 아 울러 그가 존중하는 ‘운명’이 실제로는 자신으로부터 비롯한 것이기 때문에 그의 전능함 을 조금도 제약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말해준다.

→ 므네모쉬네

: · 제우스는 ‘기억’의 여신 므네모쉬네(Mnemosyne)와 아흐레 밤을 동침하여 음악과 시를 관장하는 여신 아홉 자매를 낳았다. 이 아홉 자매들이 ‘기억’이라는 정신을 통해 신들의 나라와 인간 세상의 음악과 시를 담당하는 여신들인 무사이(Mousai)다.

|  |  |
| --- | --- |
| 맏딸 클리오(klio) | 영웅시와 서사시를 담당 |
| 둘째 우라니아(Urania) | 하늘에 대한 찬가 |
| 셋째 멜포메네(Melpomene) | 비극 |
| 넷째 탈레이아(Rhaleia) | 희극 |
| 다섯째 테르프시코레(Terpsichore) | 합창 |
| 여섯째 폴륌니아(Polymnia) | 무용과 무언극 |
| 일곱째 에라토(Erato) | 연애시 |
| 여덟째 에우테르페(Euterpe) | 유행가 |
| 막내 칼리오페(Kalliope) | 현악과 서정시 |

·

· 아홉 자매는 신들이 향연을 벌이는 올림포스로 올라가 시와 음악으로 잔치의 흥을 돋운

다. 고대로부터 르네상스 직전까지 시와 음약은 같은 것이었다. 그리고 시를 읊으면서 리라를 켜는 일은 문자가 창출되기 이전의 고대 사회에서는 뛰어난 ‘기억’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다. 무사이 아홉 자매가 기억의 여신의 딸인 것도 그 때문이다.

- 심포지아 - 술을 마시는 것이라는 뜻

→ 헤라

: · 아름답고 위엄 있는 헤라에게 연정을 품은 제우스는 헤라와 관계를 맺으려 했으나, 평소 제우스의 바람기를 잘 알고 있던 헤라는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자유롭게 변신할 수 있 는 제우스는 헤라에게 구혼할 때 뻐꾸기로 변신해서 다가갔다. 어느 추운 날 헤라는 추 위에 떨고 있는 뻐꾸기를 불쌍히 여겨 가까이 다가가 따뜻하게 품어주었다. 그러자 갑자 기 제우스가 원래의 모습으로 나타나 여신에게 구애를 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헤라는 정 식 결혼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기 전까지는 관계를 맺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에 제우 스가 헤라를 정실로 맞아들이겠다는 약속을 하여 마침내 둘의 결혼이 이루어졌다. 올림 포스에서는 제우스와 헤라의 결혼식이 성대하게 열렸다.

· 제우스가 헤라와 결혼한 것은 인간들의 결혼처럼 제우스에게도 결정적이었다. 결혼한 뒤 로 제우스는 자유롭지 못했다. 바람둥이 제우스의 행각을 헤라는 항상 주의 깊게 살폈 다. 제우스가 인간 여자들을 상대할 때마다 헤라의 분노와 질투는 대단했다. 그러나 여 신들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았다. 제우스가 그의 누이 데메테르를 강제로 범해서 페르세 포네가 태어났을 때에도 헤라는 질투심을 보이지 않았다.

· 그 외의 이야기 - 제우스의 난봉기는 계속되었다.

* 티탄 코이오스와 포이베의 딸 레토(Leto)와 결혼해 아폴론과 아르테미스를 낳았

고, 아틀라스의 딸 마이아(Maia)로부터 전령의 신 헤르메스를 얻었다. 아틀라스의 또다른 딸 엘렉트라(Elektra)와 결합해 딸 하르모니아를 얻고, 요정 아익스(Aix)와 결합해 목신 판(Pan)을 낳는다. 판은 상반신은 인간의 몸이고 하반신은 염소의 모 습이며, 머리 양편엔 뿔이 달려 있었다.

* 제우스는 인간에게도 접근했다. 한번은 테바이의 왕 암피트뤼온의 아내 알크메 네에게 접근하기 위해 전쟁터로 나간 암피트뤼온으로 변신해 알크메네와 동침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밤 전장에서 돌아온 암피트뤼온이 아내 알크메네와 부부 관계를 맺는다. 하루 사이에 두 번 맺은 사랑에서 태어난 쌍둥이가 제우스의 아들 헤라클 레스와 암피트뤼온의 아들 이피클레스다.
* 제우스는 미소년도 사랑했다. 트로이의 왕 다르다노스에게는 가뉘메데스라는 아 름다운 아들이 있었따. 이 소년의 아름다움에 반한 제우스는 독수리로 변신해 그를 납치한 후 올림포스로 데려와 신들의 술시중을 들게 했다.
* 제우스는 곧잘 동물로 변신했다. 에우로페를 사랑하기 위해선 황소로 변신했고, 스파르타의 왕비 레다에게 접근하기 위해선 백조로 변신해 사랑을 나눴고, 그로부 터 아가멤논의 아내 클리타임네스트라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신 헬레네, 그 리고 ‘디오스쿠로이(Dioskouroim, 제우스의 아들들)’라고 불리는 카스토르와 폴리 데우케스 형제를 낳는다.

(3) 헤라

1. 그리스 최고신의 아내가 된 헤라는 결혼과 자녀, 여성 생활의 수호신이 되어 올림포스의 여왕으로 군림했다. 제우스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식으로는 대장장이 신 헤파이스토스, 전 쟁의 신 아레스, 그리고 청춘의 여신 헤베, 출산의 여신 에일레이티아 등이 있다.
2. 헤라는 귀부인 또는 보호자를 뜻한다. 헤라는 키가 크고 흰 얼굴에 범접할 수 없는 위엄과 정숙을 지니고 있었다. 자신의 결혼 생활은 힘들었지만, 헤라는 무엇보다도 결혼 생활을 수호하는 여신으로서 정숙한 아내의 귀감으로 일컬어졌다.
3. 정실부인을 얻은 뒤에도 제우스의 바람기는 전혀 수그러들지 않았다. 헤라의 증오와 분노 의 시선은 언제나 제우스가 아닌 그의 애인과 자식들을 향했다. 헤라의 전설은 대부분 제 우스와의 수월치 않은 부부생활을 이끌어가는 이야기로 점철된다.
4. 헤라의 질투와 복수

→ 레토

: · 제우스의 아이를 가진 레토는 헤라에 의해 모든 땅에서 내쫓기게 된다. 질투심 많은 헤라 는 자기 자식보다 레토가 낳은 아이들이 더 위대해질 것임을 알고, 출산 장소를 내주지 말라고 명령했기 때문이다. 레토는 만삭의 몸으로 육지와 바다를 헤매다 마침내 바다를 떠다니는 작은 섬에 간신히 들어갈 숭 있었다.

· 헤라는 출산의 여신 에일레이티아를 붙잡아 레토의 출산을 방해했다. 에일레이티아가 도 착하지 않으면 누구도 출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레토는 며칠 동안 극심한 고통을 건뎌 야 했다. 결국 9일 만에 가까스로 아이를 출산했는데, 그 아이들이 아폴론과 아르테미스 이다.

· 레토에게 출산 장소를 제공한 작은 섬은 그 후 4개의 기둥으로 단단히 바다 밑바닥에 고 정되어 델로스 섬(빛나는 섬)이라 불리게 되었다고 한다. → 이오

: · 제우스는 헤라를 섬기는 시녀 이오를 유혹했다. 헤라에게 바람피운 것을 들킨 제우스는 이오를 하얀 암소로 바꾸고 결백을 주장했다. 하지만 남편의 거짓을 간파한 헤라는 모른 척하고 그 암소를 선물로 요구했고, 의심을 피하기 위해 제우스는 암소를 내주고 만다.

· 헤라는 아르고스라는 눈이 100개 달린 괴물에게 암소를 감시하도록 했다. 이 괴물은 잠 든 동안에도 몇 개의 눈을 뜨고 있어 암소가 된 이오는 꼼짝없이 갇혀 있는 수밖에 없었 다.

· 제우스는 이오를 구출하기 위해 총애하는 아들 헤르메스를 보냈다. 헤르메스는 특기인 갈대피리를 연주하여 아르고스를 잠들게 했다. 그리고 100개의 눈이 모두 감겼을 때 아 르고스의 목을 베고 이오를 구출했다. 헤라는 아르고스의 100개 눈을 빼내 총애하던 공 작의 날개 장식으로 삼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새로 만들었다고 한다.

· 헤라는 다시 아직 암소로 변신된 채로 있던 이오에게 쇠파리를 보냈다. 헤라가 보낸 쇠파 리의 집요한 추적 때문에 반은 미치다시피 한 이오는 여러 나라를 도망 다니다 마침내 바다 건너 이집트에 당도했다. 암소가 건넌 바다는 이오의 이름을 따서 이오니아 해라 부르게 되었다.

· 이오는 이집트 땅에서 겨우 쇠파리로부터 해방되었다. 그리고 제우스를 만나 원래의 모습 을 되찾은 뒤 나일 강 근처에서 에파포스를 낳을 수 있었다. 그 후 이오는 이집트의 왕 테레고노스와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았으며, 죽은 뒤에는 이집트 최고의 여신인 이시스로 널리 추앙되었다. 한편 아들 에파포스는 왕위를 이어 받아 이집트의 왕이 되었다.

→ 그 외의 이야기

: · 님프 칼리스토는 제우스의 사랑을 받아 아들 아르카스를 낳았다. 이에 헤라는 저주를 내 려 그녀를 곰으로 변하게 만들었다.

· 제우스와 관계하여 디오니소스를 낳은 세멜레에게 의심의 마음을 품게 한 것도 헤라였 다. 세멜레는 제우스에게 본모습을 보여 달라고 조르다 활활 빛나는 제우스의 실체를 보 자마자 볼에 타죽고 만다. 디오니소스를 한 때 미치게 만든 것도 헤라였다.

· 헤라의 질투의 화살은 애인의 자식을 향하기도 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집요한 괴롭힘을 당한 것은 제우스와 알크메네 사이에서 태어난 헤라클레스이다.

(4) 공포의 바다의 신 포세이돈

1. 포세이돈은 바다와 물의 신이며 지진을 관장하는 신이다. 올림포스 신들과 함께 티탄들과 대항해서 싸울 때 키클롭스 형제들이 만들어준 삼지창 ‘트리아이나’가 그의 표장이다. 그는 제우스, 하데스와 함께 세계의 통치권을 분할할 때 바다와 물의 영역을 관장하기로 했지만 공동 관할하기로 한 대지에 지진을 보내는 역할도 담당했다.
2. 에티오피아 왕 케페우스의 아내 카시오페이아는 자기가 포세이돈의 아내 암피트리네보다 더 아름답다고 자랑했다가 포세이돈이 바다 괴물을 보내 나라를 황폐하게 만들었다. 왕이 신탁을 물으니 딸 안드로메다를 제물로 바쳐야 한다고 하여 딸을 희생시키려고 바닷가 바 위에 묶어 놓았따. 안드로메다가 희생되려는 순간 영웅 페르세우스가 그녀를 구해 주었다.
3. 트로이 전쟁의 영웅 오디세우스는 포세이돈의 아들인 외눈박이 거인 폴리페모스에게 포도 주를 먹여 취하게 한 다음 부하들과 함께 나무창을 그의 외눈을 찔러 멀게 했다. 덕분에 그의 동굴에 붙잡혀 있던 오디세우스 일행은 무사히 탈출해 배를 타고 도망쳤지만 복수심 에 불탄 포세이돈은 오디세우스를 끈질기게 괴롭혀 무려 10년 동안이나 귀향을 방해했다.
4. 포세이돈의 후손들

→ 포세이돈은 바다의 노인으로 불리는 네레우스의 딸인 암피트리테와 결혼했다.

: · 암피트리테 - 암피트리테는 포세이돈에게 납치되어 그의 아내가 되었다. 상반신은 인간 이고 하반신은 인어인, 반인반어의 모습으로 자주 표현되는 트리톤은 둘 사이의 아들이다.

· 트리톤 - 아버지의 능력을 이어받아 잔잔한 파도를 높이거나 거친 파도를 진정시킬 수 있었지만, 대개는 해마를 타고 소라고등을 불면서 놀았다.

→ 포세이돈은 본처인 암피트리테와 바다 깊숙한 곳에 황금으로 지은 궁전에 살면서도 다른 많은 여성들과 결합했다. 누이인 데메테르가 그를 피해 암말로 변신해 도망가자 자신도 말 로 변신해 결합하여 명마 아리온을 낳았다. 또 말로 변신하여 메두사와 결합해 날개 달린 명마 페가소스를 얻기도 했다.

→ 전설의 대륙 아틀란티스의 주민은 모두 포세이돈의 후손이었다. 포세이돈은 이 대륙에 홀 로 있던 요정 클레이토와 결합해 다섯 차례에 걸쳐 쌍둥이를 낳는다. 그는 클레이토와 열 명의 아들을 위해 이 대륙을 평화롭고 풍요로운 나라로 만들어 주었다. 그리고 첫 아들 아 틀라스의 이름을 따서 이 땅의 이름을 ‘아틀라스의 땅’이라는 뜻의 ‘아틀란티스’로 명했다.

→ 포세이돈도 제우스와 마찬가지로 여신과 님프, 인간에 걸쳐 수많은 애인을 두었지만, 포세 이돈으로부터 태어난 자식들은 이상하게도 모두 괴물이나 난폭한 자들뿐이었다. 그들의 운 명은 순조롭지 못했고, 대부분 영웅들에게 죽임을 당했다. 수렵의 명수 오리온도 포세이돈 의 아들이었는데, 결국 아르테미스 여신의 화살에 맞아 죽었다.

(5) 평원의 어머니 데메테르

1. 데메테르 : 밀을 주관

→ 데메테르는 곡식의 신이다. 곡식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밀의 경작과 수확이 데메테르의 소 관이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밀의 경작을 주관한다. 가이아는 모든 것의 근원으로서의 어 머니인 반면, 데메테르는 밀이 자라는 평원의 어머니이고 땅의 생산력을 주관한다.

1. 플루토스

→ 플로토스 : 밀의 풍요를 다스림

→ 밀의 파종과 수확을 꼼꼼하게 지켜보는 것이 데메테르의 일이라면, 곡물 창고를 가득 채워 놓는 ‘풍요’는 데메테르의 아들 플루토스의 몫이다. 플루토스는 데메테르가 크레타에서 기 름진 땅을 찾았을 때 멋진 인간 이아시온과 세 번 갈아 일군 밭고랑에서 관계를 맺은 후 태어난 아들이라, 땅이 베푸는 풍요로운 밀 수확을 뜻한다.

1. 페르세포네

→ 밀이 파종되어 새싹이 돋아나기 전 땅속에 묻혀 있는 동안은 데메테르의 딸 페르세포네가 주관한다.

→ 코레(페르세포네)

: · 데메테르는 크로노스와 레아의 딸이며 제우스의 누이다. 데메테르는 제우스 사이에서 ‘처 녀’라는 뜻의 코레(kore)를 낳았다. 어느 날 그녀는 밀밭에서 꽃을 따고 있었는데 수선화 한 송이를 따려고 몸을 굽히는 순간 갑자기 땅이 열리고 용이 그는 이륜 전차를 탄 지하 세계의 왕 하데스가 나타나 순식간에 코레를 데리고 사라져 버렸다. 코레를 바라보다 사 랑에 빠진 하데스가 제우스와 공모해 그녀를 납치한 것이다.

· 딸의 외침을 듣고 불안해진 데메테르는 곧 딸을 찾아 나섰다. 데메테르는 아흐레 밤낮을 먹지도 않고 씻지도 않은 채 세상을 헤매며 딸을 찾아다녔다. 열흘째 되던 날 데메테르

는 납치 장면을 목격한 여신 헤카테를 만났다. 그녀는 납치자를 보긴 했지만 누구인지는 알아볼 수 없었다고 말한다. 납치자의 머리가 어두운 그림자로 싸여 있었기 때문이다.

· 데메테르는 모든 것을 바라보는 태양 헬리오스를 찾아가 하소연했다. 헬리오스는 모든 사실을 이야기해주었다. 분노한 데메테르는 올림포스의 거처로 올라가지 않기로 마음먹 고 딸을 돌려받을 때까지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데메테르가 손을 놓 고 밀 경작을 소홀히 하자 대지는 불모의 땅으로 변해 버리고 세계의 질서는 엉망이 되 었다.

· 사태를 방관하던 제우스는 데메테르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었다. 제우스는 코레가 명계 에서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면 데려올 수 있고, 무언가 조금이라도 먹었으면 데려올 수 없다는 원칙을 내세웠다. 그리고 비밀리에 헤르메스를 하데스에게 보내 이 사실을 전했 다.

· 소식을 들은 하데스는 코레에게 석류를 주면서 이것을 먹으면 집으로 돌려보내 주겠다고 했다. 코레는 기쁨에 들떠 석류를 받아먹었다. 제우스는 짐짓 하데스에게 코레를 지상으 로 돌려보내도록 명했지만, 그녀가 명계의 석류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이미 명계의 주민 이 되어 있었다. 하데스의 왕비가 된 코레는 이제 ‘가장 무서운 여인’이라는 뜻인 ‘페르 세포네’라고 불리게 되었다.

· 데메테르의 분노가 진정되지 않아 지상의 기근도 끝이 나질 않았다. 사태의 중대함을 깨 달은 제우스는 할 수 없이 쌍방이 납득할 수 있는 중재안을 내놓았다. 결국 페르세포네 는 밀의 씨를 뿌리는 10월 초에는 지하 세계에서 빛의 세계로 올라와 밀의 주관자인 어 머니 옆에서 지냈다. 데메테르는 딸이 돌아오면 기쁜 마음으로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지상에는 꽃이 만발하고 초목이 무성해졌으며 곡물은 열매를 맺었다.

· 하지만 수확이 끝나는 6월 초엔 다시 어두운 지하 세계로 내려가 남편인 하데스 왕 옆에 서 지내야 했다. 딸이 명계에 가 있는 동안에는 데메테르의 슬픔으로 인해 땅에서는 아 무 것도 자라지 않는 불볕더위가 넉 달 동안 펼쳐지게 되어 꽃과 초목이 시들고 곡식이 자라지 않게 되었다.

· 데메테르의 기쁨과 슬픔에 따라 계절이 변하는 것이다.

(6) 헤스티아

1. 크로노스와 레아의 맏딸인 헤스티아는 제우스의 누이들 중 가장 존경을 받으며 ‘하늘과 땅 의 여주인’으로 불렸다.
2. 헤스티아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처녀성이다. 포세이돈과 아폴론이 헤스티아를 쫓아다니며 사랑을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헤스티아는 단호히 거절했다. 헤스티아는 방패를 들고 있는 제우스의 머리를 만지며 영원히 처녀성을 간직한 신성한 여신이 될 것을 결연히 맹세했다.
3. 헤스티아는 불사의 신들이 사는 올림포스나 땅 위를 걸어 다니는 인간들의 거처에 자리 잡 고 움직이지 않는 것이 그녀의 특기이다. 이 여신은 모든 신들이 제우스를 따라 올림포스 를 비울 때에도 혼자서 의연하게 신들의 집을 지킨다.
4. 처녀 신이며 칩거하는 신 헤스티아는 집 안의 불을 다스린다. 집 안의 불은 화덕과 부뚜막 에 있다. 고대 사회에서 화덕은 집 안의 중심이며, 부뚜막은 온 가족을 위해 따뜻한 음식 을 준비할 수 있는 가정의 핵심이다.
5. 헤스티아의 다양한 모습

→ 로마는 헤스티아를 베스타(vesta) 여신으로 부르는데, 이때는 가정의 불을 주관하는 차원을 넘어 국가의 공식적인 행사를 주관하는 중요한 여신으로 변모한다. 이 때의 불은 헤파이스 토스의 불과 같은 기술적인 불이 아니라 가정의 화목을 상징하는 화덕의 불이다.

→ 헤스티아는 원로원 공회관의 수호관이 되기도 했다. 아테네 공회관에서는 그녀의 초상화가 걸렸고 그녀는 공회관의 수호신으로 공식적으로 숭상 받았다.

1. 한편 헤스티아가 특별히 보살핀 곳이 있다. 델포이의 아폴론 신전이 그곳이다. 여사제 퓌 튀아가 기거하는 아폴론의 성스러운 신전은 헤스티아가 지켜주었다.
2. 그리스 신화에서 헤스티아는 올림포스의 다른 신들에 비해 역할이 미미하고 개성이 약하 다. 헤스티아는 이야기 거리가 별로 없는 추상적인 원칙이다. 헤스티아는 일상생활에서 소 홀히 할 수 없는 가정을 중시하는 인도유럽어족의 오랜 관습을 반영한 여신이다.

(7) 고대 그리스인의 가치관 반영

① 제우스의 바람기와 다양한 애정 행각

→ 제우스의 바람기와 다양한 애정 행각에는 고대 그리스 인의 가치관이 담겨 있다. 고대 사 회에서 중요시되었던 가치들 중 하나는 다산과 자손 번창이었다.

→ 후손의 수가 많은 가문이 힘을 가지고, 많은 인구를 토대로 해야 국가의 번영과 강대함을 추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많은 자식을 낳고 후손을 널리 퍼뜨리는 것은 개인뿐 만 아니라 국가적 과제였으며, 큰 미덕이었다.

→ 그리스인들의 이러한 가치관은 신화에도 녹아 들어 다양하고 복잡한 가계를 형성한다. 제 우스뿐 아니라 그리스 신화의 많은 신과 영웅들이 바람둥이로 나오는 것에는 고대 그리스 사회의 특징이 잘 반영되어 있다

# 5주. 신들의 계보와 특징(2)

(1)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

1. 아프로디테

→ 아프로디테는 사랑과 아름다움의 여신이다. 크로노스가 낫으로 잘라 던진 우라노스의 생식 기가 바다에 떨어져 그 정액이 바닷물에 섞여 거품이 되었고, 그로부터 아프로디테가 태어 났다고 한다. ‘아프로디테(Aphrodite)’라는 이름은 거품에서 태어난 여신이라는 뜻이다. ‘aphros’가 거품을 뜻하기 때문이다.

→ 거품은 그 상태로 펠로폰네소스 반도의 남쪽 앞바다에 있는 키테라섬으로 흘러들어 갔다 가,또다시 재중해 동쪽 끝의 키프로스 섬으로 흘러갔다. 이 두 섬은 아프로디테의 숭배 중 심지로 특히 키프로스 섬의 파포스에는 가장 오래된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세워져 있다.

1. 그림) 아프로디테의 대리석 상 : 밀로스 섬에서 발견된 아프로디테 상, BC 1세기 경



1. 그림) 비너스의 탄생 : 산드로 보티첼리, 1485경



1. 그림) 비너스의 탄생 : 알렉상드르 카바넬, 1863년경



1. 키프로스 섬으로 흘러간 이 아름다운 여신은 이극고 올림포스 신들의 영접을 받게 된다. 그녀가 섬에 오르자 신들이 마중 나와 옷을 입혀주고, ‘거품에서 태어난 신’이라 해서 아프 로디테라고 이름 붙였다.
2. 아프로디테는 어떤 신인가?

→ 아프로디테는 무엇보다도 인간들과 동물들 그리고 신들까지도 예외 없이 빠져드는 사랑이 욕망을 주관하는 여신이다. 아프로디테의 모습은 이성의 성적 욕망을 자극하는 아름다움이 다

1. 아프로디테와 에로스

→ 아프로디테의 곁에는 에로스가 수행자로서 항상 따라다녔다. 이 둘은 모두 사랑을 주관하 는 신으로서 함께 수많은 사랑을 탄생시켰다. 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행복한 사랑만은 아니 었다. 여신의 노여움을 산 자는 사랑으로 인해 고통을 받기도 했다.

1. 아프로디테의 사랑과 정열

→ 헤파이스토스

: · 아프로디테의 결혼 상대는 올림포스의 추남 헤파이스토스였다. 헤파이스토스는 제우스와 헤라의 아들로, 신들 중에서도 태생이 올바른 존재였다. 하지만 태어날 때부터 절름발이에 다 못생긴 외모 때문에 헤라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 더욱이 헤라가 그를 지상으로 떨어뜨 려 불행한 성장 과정을 겪는다.

· 하계에 떨어진 헤파이스토스는 바다의 여신 테티스와 에우리노메 밑에서 성장한다. 어머 니로부터 버림받은 아이를 불쌍하게 여기고 구해준 것인데, 이 때 대장장이 기술을 배우 게 된다. 그들과 함께 9년 동안 지내면서 헤파이스토스의 마음 속에는 자신을 버린 어머 니에 대한 증오가 점점 커져갔다.

· 성장한 헤파이스토스는 근사한 황금의자를 만들어 어머니에게 선물로 보냈다. 헤파이스토 스는 대장장이 신으로 무엇이든 만들 수 있었는데, 그 황금의자는 누가 보아도 탐낼 만한 물건이었다.

· 그런데 헤라가 그 의자에 앉자마자 가는 쇠사슬이 나와 그녀를 옭아맸다. 헤파이스토스가 그 의자에 속임수를 써 놓았던 것이다. 헤라는 이리저리 방법을 찾아보았지만 끝내 쇠사 슬을 풀지 못해 꼼짝도 할 수 없게 되었다. 헤파이스토스만이 헤라를 풀어줄 수 있기 때 문에 신들은 그를 올림포스로 불러들이려고 했다.

· 그러나 어머니를 원망하는 마음이 가시지 않은 그는 쉽사리 오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주 신 디오니소스가 아직 술에 취해본 적이 없는 헤파이스토스에게 술을 먹여 잔뜩 취했을 때 억지로 올림포스로 데리고 왔다. 그러나 헤파이스토스가 완전히 취한 것은 아니었다. 헤라 를 풀어주는 조건으로 아프로디테와의 결혼을 요구한 것이다.

- 성적 사랑으로 충만한 아프로디테는 원치 않는 사랑으로 인해 더욱 다른 애인들을 찾기 시작한다. 특히 아레스와의 애정행각은 유명하다.

→ 아도니스

: · 시리아의 왕 테이아스에게는 스미르나라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왕이 딸을 너무 예뻐한 나 머지 자신의 딸이 아프로디테보다 더 예쁘다고 공언하는 바람에 아프로디테의 노여움을 샀 다. 여신은 그 딸에게 욕망을 일으켜 아버지와 동침하게 했다. 열이틀이나 동침한 후 아버 지 테이아스는 드디어 딸의 행각을 알아채고 딸을 죽이려 했다. 스미르나는 신들에게 살려 달라고 애원했고, 신들은 그녀를 뮈르라나무로 변신시켜 주었다. 열달 뒤 나무껍질이 벗겨 지면서 사내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는 ‘아도니스’라고 불렸다.

· 아프로디테는 아도니스의 아름다움에 푹 빠졌다. 그녀는 다른 신들이 이 귀여운 아이를 못 보게 하려고 상자에 넣어서 명게의 여왕 페르세포네에게 맡겼다. 하지만 페르세포네 또한 아도니스의 매력에 반해 곁에 두고 몹시 귀여워했다.

· 이를 알게 된 아프로디테는 아이를 돌려 달라고 했으나, 페르세포네가 순순히 돌려줄 리 없었다. 마침내 아도니스를 둘러싼 두 여신의 싸움이 일어났는데, 이를 지켜보던 제우스 가 중재에 나섰다. 그 결과 아도니스는 1년 중 3분의 1은 혼자서 자유롭게 지내고 다른 3분의 1은 페르세포네와 지내며, 나머지 3분의 1은 아프로디테와 살게 되었다.

· 아도니스는 허락받은 자유의 시간에도 아프로디테와 함께 지내며 여신의 사랑을 받았다. 명계의 페르세포네보다는 아름다복 관능적인 아프로디테와 지내는 것이 즐거웠기 때문이 다. 그러나 둘이 함께 하는 시간은 길지 않았다.

· 여신이 잠시 올림포스에 올라간 사이 젊은 애인은 사냥을 하던 중 치여 생명을 잃고 말았 다. 아프로디테는 늘 아도니스에게 위험한 동물을 사냥하지 말라고 했으나, 염려했던 일 이 일어난 것이다. 아프로디테가 한달음에 달려왔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 아프로디테는 아도니스의 상처에서 흘러나온 피에 넥타르를 뿌리면서 그를 추모했다. 여 기서 붉은 꽃이 피어났는데 그 꽃이 바로 아네모네이다.

· 그림) 비너스와 아도니스 – 티치아노, 1553년 



· 그림) 아도니스에게 사나운 멧돼지를 보낸 것은 누구?

- 아도니스의 곁으로 사나운 멧돼지를 보낸 것이 아프로디테의 애인 아레스였다고도 하고, 또는 수렵의 여신이면서 순결한 처녀신인 아르테미스였다고도 한다.

➈ 트로이 전쟁

→ 불화의 여신 에리스가 많은 신들과 여신들이 참석한 결혼 피로연석에 ‘가장 아름다운 여신 에게’ 바친다며 황금 사과를 보냈을 때 헤라와 아테나가 서로 아름다움을 뽐냈다.

→ 파리스의 판결은 ? 가장 아름다운 여신으로 뽑은 것은 아프로디테였다.

: · 아프로디테 - 판결관인 트로이의 파리스에게 자신을 지목하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 헬레네를 주겠다고 약속한다.

· 헤라 - 자신을 지목하면 왕권을 주겠다고 약속한다.

· 아테나 - 자신을 지목하면 불패의 영웅으로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한다.

→ 그러나 아프로디테가 주겠다고 약속한 헬레네는 이미 스파르타의 왕 메넬라오스의 아내였 고, 메넬라오스는 파리스에게 빼앗긴 왕비를 되찾기 위해 트로이 원정을 떠난다. 그 후 10년 간 벌어지는 트로이 전쟁의 직접적인 원인은 헬레네였지만, 실제로는 아름다움에서 지지 않으려는 아프로디테의 가공할 질투심에서 비롯한 것이었다.

→ 결국 그녀는 파리스의 나라일 뿐만 아니라 앙키세스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신의 아들 아이 네이아스의 나라이기도 한 트로이를 응원했고, 전투 중에 파리스를 구출하고 디오메데스 에게 공격당하는 아들을 보호하느라고 상처를 입기까지 한다.

→ 아프로디테와 헤라, 제우스

: 헤라가 남편 제우스를 사랑으로 구슬려 아키이아 군을 도울 생각으로 아프로디테에게 남 편을 매료시킬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자, 아프로디테는 가슴에 달고 있던 띠를 빌려주며 품은 뜻을 이루라고 말한다. 헤라는 이 띠를 가슴에 달고 제우스에 다가가 정욕에 불을 지르고 사랑을 나눈 뒤 제우스가 잠든 틈을 타 아카이아 군이 트로이군을 공격하도록 해 서 열세였던 전세를 만회시킨다.

→ 아프로디테와 헤르메스, 포세이돈, 디오니소스

: 아프로디테는 헤르메스와도 정을 통해 양성을 가진 헤르마프로디토스를 낳았다. 헤르마프 로디토스라는 이름은 헤르메스와 아프로디테의 이름이 합쳐진 것이다. 아프로디테는 포세 이돈과도 사랑을 나누었고 디오니소스와도 어울렸다. 디오니소스와의 관계에서는 대단히 큰 남근을 가진 번식력의 신 프리아포스가 태어났다.

(2) 아레스

➀ 난폭한 전쟁의 신 아레스

→ 같은 전쟁의 신이라도 사려 깊고 정의로운 전쟁을 이끄는 아테나에 비해 아레스는 단지 폭 력적 살육과 피를 좋아했다. 그는 전쟁이 있는 곳에 항상 싸움의 신 에뉘오, 불화의 여신 에리스, 공포의 신 포보스, 불안의 신 데이모스 등 싸움과 관련된 신들을 거느리고 다녔다. 그의 난폭한 성질은 신들도 꺼려해 아버지 제우스조차 처치 곤란이었다.

→ 아레스는 문명화되거나 체계적인 전추를 벌이는 것이 아니라 피비린내 나는 살육을 일삼는 잔인한 신이다. 이러한 아레스를 그리스인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리스인들은 아레스가 싸움이나 전쟁에서 부상당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좋아했다.

→ 훗날 아레스는 자신의 딸 알키페를 범한 포세이돈의 아들 할리로티오스를 살해하고 신들로 부터 재판을 받았다. 논의 결과 아레스에게 무죄가 선포되었다. 그리고 이 재판을 기념하기 위해 이 언덕을 아레스의 언덕이라는 뜻의 아레오파고스로 부르게 되었다.

→ 아레스는 테바이에 그의 아들인 용이 지키는 샘을 하나 갖고 있었는데, 카드모스가 시리아 로부터 여동생 에우로페를 찾으러 왔다가 용을 죽이고 만다. 카드모스는 속죄의 뜻으로 7년 동안 아레스의 종으로 일했고, 아레스는 자신과 아프로디테 사이에서 태어난 딸 하르모니아 를 카드모스와 결혼시켰다. 테바이 왕가는 이 결합으로부터 시작한다.

: 그리스의 테바이와 로마의 조상은 아레스이다.

→ 로마 신화에서 아레스는 어떻게 부를까?

: 로마 신화에서는 군신 마르스로 나온다. 로마 신화의 마르스는 유피테르(제우스)에 버금 가는 인기를 자랑한다. 로마 건국자 로물루스와 레무스 형제는 마르스의 아들이라고 한다.

→ 그림) 미네르바와 마르스의 대결, 조제프 브누아 쉬베, 1771년

➁ 아프로디테와의 사랑

→ 아레스는 난폭하고 호전적이었으나 뛰어난 외모 덕분에 아프로디테의 애인이 되었다. 헤파 이스토스의 아내가 된 아프로디테는 결코 정절을 지키는 아내가 아니었다.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혼인한 헤파이스토스와의 결혼생활에 만족하지 못했고, 더욱이 사랑과 정욕의 여 신이라는 본래 성격상 많은 스캔들을 일으켰다.

→ 아레스는 제우스와 헤라의 아들이기 떄무네 헤파이스토스와는 형제뻘이었다. 아프로디테는 틈만 나면 남편의 눈을 피해 아레스와 정을 통했다. 세상만사를 지켜보는 헬리오스는 보다 못해 헤파이스토스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 이 둘의 밀회를 알게 된 헤파이스토스는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 둘이 사용하는 침대에 눈이 보이지 않는 촘촘한 그물을 씌웠다. 둘이 함께 침대에 누워 사랑을 나누기 시작하자마자 갑자기 그물이 덮쳤다. 외도 현장을 포착한 헤파이스토스는 다른 신들에게 이 둘의 추태를 낱낱이 보이며 서슬 퍼런 얼굴로 아내의 부정을 비난했다.

→ 이 사건은 포세이돈의 중재로 일단락되었다. 하지만 이처럼 남편의 반격을 받았다고 해서 기가 꺾일 아프로디테가 아니었다. 이후에도 아레스와 변함없이 밀애를 즐겨 자식까지 낳 았다. 아프로디테와 아레스는 부모들의 성격을 그대로 물려받은 네 자녀를 낳았다.

: 에로스와 테바이의 왕 카드모스와 결혼한 하르모니아, 그리고 포보스, 데이모스를 낳았

다.

(3) 아폴론

➀ 해처럼 빛나는 재능의 신

→ 아프로디테가 가장 아름다운 여신이라면 가장 아름다운 남신은 아폴론이다 아폴론은 음악 과 시의 예술적인 아름다움을 주관하는 신이다. 그는 또한 미래를 예언하고 병을 고치거나 퍼뜨리기도 한다.

→ 특히 아폴론은 햇빛의 신이기도 하다. 하지만 아폴론은 태양신 헤리오스는 아니다. 그는 눈부시도록 아름답게 빛나는 존재라는 뜻에서 광명의 신, 즉 포이보스라고 불렸다. 이는 그리스 문화의 정수인 젊음과 아름다움과 이상을 상징하는 것이다.

→ 그림) 리키아 아폴론, 고대유물 BC 300년 경 : 

→ 그림) 사악한 뱀 파이톤을 죽이고 승리의 여신으로부터 관을 받는 아폴론, 노엘 쿠아펠,

17세기 경 : 

→ 레토가 제우스의 사랑을 받아 임신하자 헤라는 질투심에 불타 레토의 출산을 방해했기 떄 문에 어떤 곳에서도 그녀를 받아주지 않았다. 마침내 불모의 떠돌이 성인 델로스만이 출산 을 허락하여 레토는 그 섬에 하나밖에 없는 나무인 종려나무 아래에서 겨우 몸을 풀 수 있 었다. 아르테미스가 먼저 세상에 나오고 곧이어 아폴론이 태어났다.

→ 아폴론은 신전에다 삼각대를 놓고 그 위에 무녀 퓌티아를 앉혀 사람들에게 신탁을 내리도 록 했다. 사방에서 델포이의 신탁을 얻으러 왔고 외국에까지 소문이 나서 델포이는 국제적 인 종교 중심지가 되었따. 아폴론의 예언은 델포이에서만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곳은 세계의 중심으로서 ‘우주의 배꼽’, 즉 ‘옴팔로스’로 자처했다.

: 그림) 아폴로와 디아나루카스 크라나흐 엘더, 1526년경 

→ 의술의 신 아스클레피오스

: 아스클레피오스는 아폴론의 아들이다.이 아들이 아버지의 역할을 대신하기 전에는 아폴 론이 모든 존재들의 건강을 보살폈다. 그를 ‘의사’라고 부르기도 했다.

→ 음악과 시의 신 오르페우스

: 아폴론은 아홉 명의 뮤즈들을 지휘했고 그 가운데 막내 칼리오페를 사랑하여 오르페우스 를 낳는다. 아스클레피오스가 아버지로부터 의술을 물려받듯이 오르페우스는 아버지로부터 음악과 시의 재능을 물려받아 최고의 시인이 된다.

② 아폴론의 사랑과 징벌

→ 다프니

: · 아폴론은 완벽한 조건을 가졌음에도 의외로 사랑의 결실을 맺지 못하고,비극적 결말을 본 경우가 많았다.

· 다프네는 강의 신 페네이오스의 딸로 눈부시게 아름다운 처녀였다. 그런데 그녀는 남자 에게 관심이 없었고 처녀로 남기를 원했다.

· 이 사랑 이야기는 아폴론이 자신의 화살과 에로스의 작은 화살을 비교하며 조롱한 데서 비롯되었다. 화가 난 에로스는 앙갚음을 하기 위해 아폴론에게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황 금 화살을 쏘고, 다프네에게는 사랑을 거부하는 납으로 된 화살을 쏘았다.

· 에로스의 장난으로 인해 아폴론은 다프네에게 마음을 온통 빼앗기고 말았지만 사랑을 거부하는 화살을 맞은 다프네는 도망치기에 바빴다. 하지만 다프네는 점점 힘이 빠졌고, 체력이 한계에 이르렀다. 이제 막 아폴론의 손에 붙잡히려고 할 때 그녀는 아버지에게 도움을 청했다.

· 그러자 다프네가 뻗은 양 팔은 잎이 달린 가지, 몸통은 나무껍질로 뒤덮여 갔다. 다리는 단단하게 대지에 뿌리를 내렸다. 딸의 비통한 절규를 들은 강의 신인 그녀를 한 그루의 월계수 나무로 바꾼 것이었다. 월계수의 그리스어는 다프네(현대식 발음은 다프니)이다.

· 실의에 빠진 아폴론은 월계수가 된 다프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을 했다. ‘하다못해 나의 성수라도 되어 주었으면 좋겠구나’ 다프네는 이제 막 생겨난 가지를 흔들어 그의 뜻을 받아들였다고 한다. 운동 경기에서 우승자에게 월계관을 씌워주는 관습은 이때부터 생 겼다.

→ 마르페스

: · 아폴론은 인간 남성에게 여성을 빼앗긴 적도 있다.

· 군신 아레스의 자손인 마르페사를 놓고 인간 중에서도 가장 강하다는 이다스라는 자와 경쟁을 했던 것이다. 이다스는 힘이 무척이나 셌으며, 지기 싫어하는 성격을 가졌다고 한다. 아폴론이 자신의 애인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이다스는 마르페사 를 납치했다.

· 이에 뒤쫓아간 아폴론과 이다스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다. 이때 중재에 나선 제우스가 마르페사에게 선택권을 주었다. 마르페사는 생각 끝에 이다스를 남편으로 택했다. 그녀 는 머지않아 나이가 들어 늙었을 때 아폴론에게 버림받는 것이 두려워 신 대신 인간 이 다스를 남편으로 선택했던 것이다.

→ 히아킨토스

: · 아폴론의 사랑의 대상은 여성만이 아니었다. 아폴론은 미소년들에게도 사랑을 느끼고 그 들과 어울렸다.

· 그중에서도 히아킨토스는 아폴론이 누구보다도 애정을 기울인 상대였다. 히아킨토스는 원반던지기와 같은 운동도 썩 잘했다.

· 아폴론은 수금과 활을 손에서 내려놓고 히아킨토스와 어울려 들이며 산을 돌아다녔다. 손녀에 대한 사랑도 나날이 깊어져만 갔다. 서풍의 신 제피로스 또한 이 소년을 사랑하 고 있었지만, 히아킨토스는 아폴론만을 한결같이 우러러보고 제피로스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 어느 날 아폴론과 히아킨토스가 한참 즐겁게 원반던지기를 하며 놀고 있었다. 이것을 멀리서 지켜보던 제피로스는 둘의 다정한 모습에 질투를 느꼈다. 질투의 불꽃이 활활 타올랐을 때 제피로스는 심술궂심술궂은 바람을 불러일으켜 아폴론이 던진 원반을 히아 킨토스의 이마에 맞혔다.

· 소년의 이마에서는 엄청난 피가 흘러나왔다. 아폴론은 히아킨토스를 살리려고 열심히 손을 써 보았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다. 의술의 신인 자신의 힘으로도 소년을 살릴 수가 없었던 것이다. 아폴론은 매우 슬퍼하면서 탄식했따. 그때 대지에 떨어진 소년의 피는 순식간에 색을 바꾸어 아름다운 꽃을 피웠다. 이 꽃은 소년의 이름을 따서 히아신스라

고 부르게 되었다. 그림) 히아신스

→ 키파리소스

: · 이 소년은 금빛 수사슴 한 마리를 키웠는데, 늘 데리고 다니면서 풀을 먹였다. 그런데 어느날 키파리소스가 잘못하여 실수로 던진 창에 수사슴이 맞고 말았다. 수사슴이 죽어 가는 모습을 본 소년은 슬픔을 이기지 못해 자신도 따라 죽으려 했다.

· 아폴론이 키파리소스를 달래 보아도 아무 소용이 없었따. 소년의 몸은 갈수록 점점 말 라갔다. 소년은 아폴론에게 영원히 슬퍼하는 몸이 되도록 해달라고 부탁했고, 아폴론은 그를 삼나무(사이프러스)로 변신시켰다. 이 나무는 죽음을 상징한다.

→ 마르시아스

: · 사티로스인 마르시아스는 자신의 연주솜씨가 아폴론의 연주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했다. 급기야 그는 오만하게도 음악의 신 아폴론에게 연주 실력을 겨루어 보자고 도전한다.

* 사티로스 - 산양의 발굽과 뿔을 가진 숲의 정령
* 키타라 - 대형수금

· 그리하여 언주 시합이 열렸다. 둘은 한 번씩 악기를 연주했지만 승부가 나지 않았다. 그 때 아폴론이 악기를 거꾸로 들고 겨뤄 보자고 제안하였다. 하지만 피리를 거꾸로 든 채 연주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마르시아스도 어찌할 수 없었다. 승부에서 패한 마르시 아스는 나무에 매달려 산채로 가죽이 벗겨지는 끔찍한 보복을 당하고 말았다.

· 프리기아의 미다스 왕은 아폴론과 ‘목동의 신’ 판이 피리 경연을 했을 때 심판을 보게 되었다. 그는 이때 판의 승리를 주장하여 화를 자초하고 말았다. 아포론은 이에 분개하 여 피리 소리도 분간 못하는 미다스의 구가 어리석고 미련스럽다고 하면서 당나귀 귀로 바꾸어 버렸다.

* 이 피리 경연에서 심판을 본 프리기아의 미다스 왕은 판의 승리를 주장하다 아폴론 에 의해 당나귀 귀를 갖게 되었다.
* 유명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는 이 미다스 왕의 이야기에서 유래한 것

(4) 아르테미스

1. 순결한 사냥의 여신

→ 아르테미스는 아폴론의 쌍둥이 누이로 아폴론의 여성형이라 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면이 많다. 활을 들고 다니며 여인들만 쏘는데 특히 아이를 낳는 여인들을 쏘아 갑자기 죽게 한 다.

→ 아폴론의 햇빛의 신이듯이 아르테미스는 달비의 신이다. 그러나 아폴론이 태양신 헬리오스 가 아니듯이 아르테미스 역시 셀레네는 아니다. 아르테미스는 처녀의 수호신으로 순결을 상징했는데, 그녀를 따르는 님프들도 평생 순결을 지켜야 했다.

→ 또한 아르테미스는 인간의 출생과 성장을 돕기도 한다.

: 아르테미스는 처녀의 수호신이면서 인간의 출생과 성장을 돕는 신이다. 이처럼 모순되는 역할을 수행하기 된 이유는

- 이는 그의 출생에서 비롯된다. 그녀의 어머니 레토는 헤라를 피해 델로스 섬에서 아 폴론과 아르테미스를 종려나무 아래에서 혼자 낳았다. 이때 먼저 나온 아르테미스는 태 어나자마자 어머니가 동생 아폴론을 무사히 분만하도록 도왔다고 한다. 그로부터 아르 테미스는 분만을 돕고 어린아이를 돌보는 능력을 얻게 되었고 출산하는 여인들은 아르 테미스에게 순산을 기원했다.

1. 니오베

→ 테바이의 왕비 니오베에는 많은 자식들이 있었데 아들과 딸이 각각 7명씩이나 되었다. 그 녀는 그런 자식들을 무척 아끼고 자랑스러워했다. 그런데 자식 자랑이 지나친 니오베는 해 서는 안 될 말을 하고 말았다. : 나에게는 14명이나 되는 자식이 있으므로 둘밖에 출산하 지 못한 레토 여신보다 내가 행복하다.

→ 화가 난 레토는 앙갚음으로 아르테미스와 아폴론에게 니오베의 자식들을 모두 죽이도록 명 했따. 아르테미스 남매도 어머니의 명예를 더럽힌 니오베를 용서할 수 없었다. 둘은 곧바 로 니오베의 자식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한 명씩 잇달아 화살로 쏘아 죽였따.

→ 그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니오베는 마지막 남은 딸 하나만은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아폴론과 아르테미스는 사정을 봐 주지 않았다. 자식을 모두 잃은 니오베는 밤낮을 울며 슬퍼하다 그대로 돌이 되었다고 한다.

: 아르테미스와 아폴론에 의해 14명의 자식을 모두 잃게 된다. 결국 자식을 모두 잃은 니 오베는 밤낮을 울며 슬퍼하다 그대로 돌이 되었다고 한다.

③ 칼리스토

→ 칼리스토는 아르테미스의 시중을 드는 아름다운 님프로 여신을 따라 영원히 처녀를 지키겠 다고 맹세를 했다. 아르테미스도 그런 그녀를 아껴 함께 사냥을 다니는 등 늘 가까이 두었 다.

→ 그러나 제우스의 바람기가 문제였다. 순결한 칼리스토는 제우스를 완강하게 거부했다. 하 지만 제우스는 끈질기게 수작을 걸어 결국 변신술로 아르테미스의 모습으로 변한 뒤 칼리 스토에게 접근했다. 그리고 순결을 빼앗았다.

→ 칼리스토는 처녀를 잃은 데다 제우스의 아이까지 임신하여 아르테미스에게 버림받게 된다. 그 후 칼리스토는 홀로 남자 아이를 출산했는데, 이름이 아르카스였다. 칼리스토는 이번에 는 제우스의 아내인 헤라의 질투를 받게 되었다. 헤라는 그녀에게 저주를 내려 커다란 곰 으로 변하게 했다.

→ 칼리스토의 아들 아르카스는 어머니의 일을 모른 채 성장하여 사냥을 다니게 되었따. 어느 날 그는 숲 속에서 곰 한마리와 마주쳤는데, 바로 칼리스토였다. 칼리스토는 한눈에 자신 의 아들 아르카스를 알아보고 팔을 벌리고 아들에게 다가갔지만, 곰이 자기를 공격한다고 생각한 아르카스는 곰을 찌르려고 창을 겨누었다.

: 질투로 곰으로 변한 칼리스토는 아르카스에 의해 죽임을 당할 뻔 했다.

→ 순간 아들이 어머니를 죽이는 비극을 두고 볼 수 없었던 제우스가 이를 제지시켰다. 제우 스는 두 모자를 천상으로 올려 보내 별자리로 만들었는데 어머니 칼리스토는 큰곰자리가 아들 아르카스는 작은곰자리가 되었다.

→ 그러나 질투의 화신 헤라는 질투가 생겨 대양의 신 오케아노스에게 ‘이 두 별자에게 휴식 을 주지 마세요’라는 부탁을 했따. 이 때문에 북두칠성을 포함한 큰곰자리와 북극성을 포 함한 작은곰자리를 수평선 밑으로 지지 않고 끊임없이 밤하늘을 돌며 반짝이게 된 것이다.

(5) 고대 그리스인들의 동성애

1. 고대 그리스에서는 연상의 중년과 소년 사이의 동성애가 유행했다.

→ 소년애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적당할지도 모른다. 그런데 이는 쾌락을 탐하는 성적 관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년들의 정신과 육체를 지도하는 일종의 교육 과정이라 여겼다.

1. 고대 그리스에는 동성애가 깊은 사랑과 신뢰로 맺어진 이상적 사제 관계라고 간주되었다.

→ 연륜 있는 성인이 아직 미성숙한 소년에게 지혜와 경험을 전달해 주는 통로로서의 역할을 한 것이다. 스파르타와 테바이 등의 군대에서는 이러한 동성애를 적극 장려할 정도로 제도 화되었다. 물론 이러한 관계는 성적 관계를 포함한다.

- 올림피아 경기는 남성만이 참여할 수 있었고 모두 알몸이었다. 여성은 미혼의 경우 관전할 수 있지만 기혼자는 관전이 허락되지 않았다.

# 6주. 신들의 계보와 특징(3)

(1) 아테나

① 전쟁과 지혜의 신

→ 제우스의 머리에서 태어날 때부터 이미 갑옷과 투구를 입고 창과 방패를 들고 있었다. 무 장한 모습에서 나타나듯이 그녀는 전쟁의 신이지만 아레스처럼 피비린내 나고 난폭한 전투가 아닌 전쟁으로 인한 정의를 상징하고, 또한 전술과 전략을 의미한다.

→ 그림) 에트루리아 유물, BC 480-323경 

→ 에라클레스, 페르세우스, 오디세우스 등과 같은 영웅들이 모험과 전쟁에서 이름을 떨친 것 도 아테나 여신의 도움에 힘입은 결과다. 아테나는 실뽑기와 직ㄴ물, 건축, 조각, 조선 등 과 같은 분야를 주관하는 기예의 여신으로서 다양한 기술들을 인간에게 가르쳤다고 한다.

→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에 있는 파르타논 신전은 아테나에게 바쳐진 것이다.

: · 파르테논 - ‘젊은 처녀’를 뜻하는 파르테노스(Parthenos)에서 비롯된 말로, ‘젊은 처녀 의 것’ 이라는 뜻

· 페르시아 전쟁에서 승리한 아테네인들이 젊은 처녀 신 아테나에게 바쳤다.

→ 아테나의 후손들이 아테네의 왕들이 되면서 아테나는 자연스럽게 아테네의 수호신이 된다. 포세이돈과 아티카 지배권을 두고 쟁탈전을 벌여 포세이돈을 제압하고 아티카를 획득함으 로써 아테네의 수호신이 되었다.

→ 아테나는 문학과 철학 영역에서 이성의 여신으로 대접받았다. 이때의 아테나는 조용하고 기품 있는 여신으로 그려지는데, 특히 청록색으로 반짝이는 눈은 ‘올빼미’를 떠올리게 한 다. 올빼미는 여러 경로를 통해 헬레니즘의 표장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② 아라크네

→ 아라크네의 베 째는 솜씨가 매우 뛰어나 사람들은 아테나가 직접 그녀를 가르쳤을거라고 했다. 하지만 아라크네는 자신이 여신보다 훨씬 솜씨가 나을 거라고 자랑하고 다녔따. 어 느 날 아테나는 노파로 변장하여 아라크네를 찾아가 신에게 도전하지 말라고 충고했다.

→ 결국 둘은 시합을 벌이게 되었다. 아라크네의 베 짜기 솜씨는 실로 놀라웠다. 아테나마저 흠잡을 수 없을 만큼 완벽한 기술이었다.

: 그러나 그 내용은 신들의 실패와 과오를 나타내는 불경스럽고 비웃는 듯한 그림들로 가 득차 있었다.

→ 아테나는 그녀의 기술에 감탄했지만, 그 태도는 용서할 수 없었다. 이에 그녀의 직물을 갈 기갈기 찣자 아라크네는 목을 매려했다. 이 때 여신은 그녀를 자기 몸에서 줄을 뽑아 베를 짜는 거미로 만들어 버렸다.

: 아라크네는 자신의 베 짜는 기술에 오만해져 아테나에게 도전하다 결국 자기 몸에서 줄 을 뽑아 베를 짜는 거미가 되었다.

1. 에리크토니오스

→ 어느 날 아테나는 무기 제작을 위해 헤파이스토스의 대장간을 찾았다. 헤파이스토스는 아 테나의 부탁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그런데 일을 하던 그가 갑자기 아테나를 덮쳤다.

→ 헤파이스토스는 뜻을 이루지 못했지만, 서로 티격태격하는 사이에 아테나의 다리에 정액을 흘리고 말았다. 화가 난 여신은 이것을 양털로 닦아 땅 바닥으로 내던졌다. 그런데 이 정액이 대지에 의해 잉태되어 아이가 태어났다. 이 아이가 바로 훗날 아테나이의 왕이 될 에리크토니오스였다. 정의감이 강한 아테나는 아이의 어머니임을 인정하고 양육을 맡 았다.

1. 포세이돈과의 싸움

→ 아테나는 고대 그리스의 많은 고시나 지역에서 수호신으로 섬겼다. 그녀의 보살핌을 가장 자랑스러워했던 곳은 아티카 지방의 수도 아테나이였다. 아테나이는 고대 그리스의 도시들 중에서도 가장 번영하고 문명화된 도시였다.

→ 아테나가 그리 수월하게 아테나이 땅의 수호신이 된 것은 아니다. 이미 다른 신들이 각각 자신의 담당지역을 정해 놓았을 때 아테나는 해신 포세이돈과 아티카 지방을 둘러싸고 싸 움을 해야했다. 둘의 싸움은 쉽게 결판이 나지 않았다.

: 그림) 노엘 알, 18세기 경

→ 싸움을 계속 두고만 볼 수 없었던 올림포스의 신들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자 고 제안했다. 그것은 두 신 중 시민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하는 쪽에게 땅을 맡기겠다는 제안이었다. 아테나와 포세이돈은 신들의 중재안을 받아들이고 선물을 준비했다.

포세이돈은 자신의 상징인 삼지창으로 아크로폴리스 언덕의 땅을 쳐서 소금물이 나오는 샘 을 솟아나게 했다. 이에 아테나도 지지 않으려고 창으로 땅을 찔러 올리브 나무가 자라 나도록 했다. 신들이 모여 협의한 결과는 이러했다.

: 건조가 심한 아테나이 땅에는 올리브 나무가 주민들을 위해 더 필요한 선물이 될 것이 다.

→ 시민들도 소금물의 샘보다는 올리브 열매가 더 유용하다고 생각하여 그 판정을 받아들였 다. 화가 난 포세이돈은 아티카 지방에 홍수를 일으켰다. 하지만 시민들이 아테나에 버금 가는 신으로 모시겠다고 하자 곧 홍수를 평정하고, 아테나의 기득권을 인정했다.

→ 올리브는 예나 지금이나 그리스 가정에서 빠질 수 없는 식자재이다. 그 열매는 식용으로 사용하고, 기름은 요리에 이용된다. 뿐만 아니라 등유와 향유로도 쓰이고, 비누와 의약품의 재료로도 사용된다. 원래 그리스는 평지가 적고 메마른 토지가 많은데, 건조에 강한 올리 브 나무는 그야말로 신이 내린 은혜의 선물이었던 것이다.

④ 팔라디온

→ 리피아의 트리토니스 호숫가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아테나는 아버지 제우스가 친구로 사귀 게 한 트리톤의 딸 팔라스와 함께 놀던 중 우연한 사고로 그만 팔라스를 죽게 했다. 스스 로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용서를 비는 의식으로, 아테나는 친구와 닮은 입상을 만 들어 제우스 옆에 놓고 신에게 올리듯 경배를 올렸다.

→ 팔라디온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 입상은 처음엔 올림포스에 있었는데 우연히 트로이의 ‘실 수의 언덕’에 떨어지게 되었따. 그 때는 트로이의 시조인 일로스가 도시를 창건하고 있었 는데, 완성되지도 않은 아테나 신전으로 팔라디온이 스스로 슬그머니 들어와 경배 받는 위 치에 자리 잡았다.

→ 그때부터 경이롭고 신비스러운 우상으로 소문이 난 팔라디온은 특별한 숭배의 대상이 되었 으며, 이 우상이 자리 잡고 있는 한 도시는 함락되지 않으리라는 믿음이 확산되었다. 훗날 그리스 군은 트로이를 함락하기 위해 팔라디온을 도시에서 빼내야 했다.

(2) 헤르메스

① 신들의 전령사

→ 아테나의 남동생인 헤르메스는 제우스와 티탄인 아틀라스의 딸 마이아 사이의 아들로 아르 카디아의 키레네 산의 동굴에서 태어났다. 마이아는 ‘어머니’ 혹은 ‘유모’라는 뜻이다. 그 림)



→ 헤르메스가 태어났을 때 이들 모자는 드물게도 헤라의 박해를 받지 않았다. 헤르메스는 헤 라의 박해를 피하기 우해 헤라의 무릎에 앉았는데, 이 때 헤라가 자신의 젖을 먹였다. 그 래서 헤라는 헤르메스를 자기 아들처럼 여겼다고 한다.

헤르메스의 빠른 움직임은 제우스의 명령을 신과 인간에게 하달하는 데 제격이었다. 헤르 메스의 능력은 허공을 나는 ‘날개 달린 신발’ 덕분이었다. 헤르메스는 제우스의 의도를 잘 파악하고 영웅들이 곤경에 처했을 때 나타나 제우스의 도움을 전해 주는 보조자였다.

→ 헤르메스는 빠른 이동 능력을 발휘해 여행자를 돕고 소 떼나 양 떼를 몰고 이동하는 목동 들을 보호한다. 헤르메스는 어깨에 어린 양을 메고 있는 어진 목자의 모습으로 그려지기도 한다. 또한 그는 죽은 자의 넋을 저승 세계로 인도하는 임무도 수행한다. 사람들은 왕래가 많은 사거리에 그의 모습이 새겨진 기둥을 세워놓기도 했다.

→ 헤르메스는 꾀 많은 재주꾼인 데다 술수에 능하고 말을 잘해, 상대방을 설득하여 물건들을 맞바꾸거나 남의 재산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상인의 신이며, 나아가 서는 도둑의 신이기도 하다. 물론 비난받을 점이 많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헤르메스는 나 쁜 점보다는 행운과 뜻밖의 발상을 가져다주는 유익하고 자비로운 신이다.

② 아폴론의 악기

→ 헤르메스는 태어나자마자 혼자 힘으로 요람을 기어 나오더니 그리스 북방 마케도니아에 있 는 피에리아까지 갔다. 그리고 백 마리가 넘는 아폴론의 소를 훔쳤다. 그는 소들의 꼬리에 다 나뭇가지를 매달아 소들의 발자국을 지우면서 메세니아의 필로스까지 몰고 가서 암송아 지 두마리를 잡아 열두 몫으로 나누어 열두 신들을 위해 제사를 올렸다.

→ 헤르메스는 소 떼들을 은밀한 곳에 감춘 다음 동굴로 돌아왔다. 그 때 입구에서 거북 한 마리를 잡아 살과 내장을 빼낸 다음 소 내장으로 만든 줄을 속이 빈 거북 껍데기의 양쪽 끝에 걸어매고 줄을 튕겨보았다. 그러자 멋진 소리가 났다. 리라를 만들어낸 것이었다.

→ 아폴론은 예언의 신으로서 그 사실을 금방 알게 되었따. 곧 키레네 동굴로 찾아가 헤르메 스를 추궁했다. 그러자 헤르메스는 시치미를 잡아뗐다.

: ‘아기인 제가 그런 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발바닥이 아직 이렇게 연약해서 울퉁불퉁한 땅 바닥을 밟을 수도 없는 걸요.’

→ 말문이 막힌 아폴론은 헤르메스를 제우스에게 데려갔다. 결국 훔친 소를 돌려줄 수밖에 없 었던 헤르메스는 이번에는 수금을 능숙하게 연주해 아폴론의 마음을 끌었다. 이 수금은 헤 르메스가 거북이 등껍질과 양의 창자를 이용해 만든 악기였다. 수금의 아름다운 소리에 반 한 아폴론은 그것을 갖고 싶어했다. 헤르메스는 결국 정당한 거래로 소떼를 손에 넣는데 성공했고, 아폴론은 자신의 또 하나의 상징인 리라를 갖게 되었다.

→ 헤르메스는 얼마 후 ‘판(pan)의 피리’라고 불리는 피리를 만들었는데 이것 역시 아폴론이 소 떼를 몰 때 사용하던 황금 지팡이와 맞바꿨다.

③ 황금 지팡이

→ 어느 날 헤르메스는 뱀 두 마리가 서로 싸우는 것을 보고 아폴론에게 피리를 주고 바꾼 황 금 지팡이로 두 뱀을 갈라놓았다. 조용해진 두 뱀은 그 지팡이를 타고 기어올랐다.

: 두 마리의 뱀이 휘감고 있는 ‘헤르메스의 지팡이’는 여기서 비롯된 것이다.

- 헤르메스의 지팡이 - 고대 그리스에서 이 지팡이는 대사와 군사의 표장으로 사용되었다. 두 마리의 뱀이 휘감고 있는 헤르메스의 지팡이는 꼭대기에 보통 이동성을 강조하여 두 개의 조그만 날개가 붙어 있고, 의사들의 표장은 아스클레피오스의 뱀이 휘감고 있는 지팡 이들이 서로 맞대어 걸려 있고 그 위에는 신중함의 상징인 거울이 달려 있다.

(3) 헤파이스토스

1. 대장장이 신

헤파이스토스는 아프로디테의 남편이고, 불을 쓰며 일하는 대장장이자 각종 금속 제품을 만드는 장인이다. 헤파이스토스는 절름발이였기 때문에 다른 신들에 비해 신체적 조건이 나빴다. 게다가 아무런 권력도 없었다. 그림)



→ 헤파이스토스는 자신의 재능밖에 믿을 것이 없었다. 그의 수많은 작품들은 그가 열심히 일 한 결과들이다. 일에 몰두하다보니 그에게는 사랑에 관한 에피소드가 별로 없다. 아프로디 테와 결혼한 것과 아테나에게서 에리크니오스를 낳은 이야기는 유명하다.

→ 전설적인 조각가 아르달로스와 유명한 강도 페리페테스도 헤파이스토스의 아들이다. 사랑 의 에피소드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의 자손은 적은 편이다.

1. 헤파이스토스 이야기

→ 헤파이스토스가 태어나면서부터 절름발이였다는 이야기에 의하면, 헤라가 불구인 아이를 보기 싫어 냅다 내던졌더니 아이가 바다에 떨어졌고, 그때 여신 테티스와 여신의 딸 에우 리노메가 아이를 구해 주었다. 아이는 바다 속 넓은 동굴에서 9년 동안이나 여신들의 보 호를 받으며 각종 장신구들을 만들면서 자랐다.

→ 헤파이스토스는 불을 다루는 기술자요, 신들의 무기는 물론 그은 세공품 및 희한한 발명품 을 만들어냈다. 헤파이스토스는 대장장이로 불리지만 단순한 대장장이라기보다는 장인이자 전문 기술자이고 발명가에 해당한다. 헤라에게 선물한 황금 의자를 비롯해,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가느다란 그물, 올림포스 신들의 방 장식은 모두 헤파이스토스의 작품이다.

→ 헤파이스토스는 자신의 작업장에서 몸이 불편한 자신을 돕도록 황금으로 두 하녀를 만들었

다. 일종의 로봇에 해당하는 이 하녀들은 이성이 있고 말도 할 수 있어 살아 있는 처녀들 같았다.

→ 헤파이스토스는 테티스의 요구로 아킬레우스의 무기를 만들고, 자동 기계를 창작하여 자신 의 기술과 발명의 위력을 곳곳에 과시했다. 제우스의 명령에 따라 물과 진흙으로 인형을 빚어 아테나, 헤르메스, 아프로디테와 함께 판도라를 만든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업적이다.

(4) 디오니소스

① 술과 광란의 신

→ 자연이 주는 충만을 포도와 포도주의 힘을 통해 나타내는 디오니소스는 도취감을 일으키 고, 신비로운 착상과 억제할 수 없는 광란을 불러오기도 한다. 디오니소스의 영역은 정서 이다. 그는 신으로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신이 된다. 그림)



→ 디오니소스 신앙의 핵심은 술과 축제이다. 축제가 벌어지면 초기에는 신자들이 대부분 여

자들이었지만 점차 남자들도 가담했다. 그들은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면서 들 뜬 표정으로 난무를 즐겼다. 때로는 짐승을 갈기갈기 찢어서 피가 흐르는 날고기를 먹었다 고도 한다. 그들을 ‘마이나데스’ 또는 ‘바카이(Baccai)’라고 불렀다.

→ 디오니소스는 표범 위에 올라타고, 손에는 송악으로 장식되고 끝은 솔방울로 마감된 ‘튀로 소스’라는 긴 홀을 들고 다녔다. 숭배자들은 짐승의 가죽을 몸에 걸치고 손에는 포도와 지 팡이를 든 채 광란의 축제를 벌였다. 디오니소스 주위에는 마이나데스와 판 신, 사티로스, 요정 등 추종자들이 항상 따랐다. 그림)



→ 코메디 : 디오니소스 축제에서는 재미있고 외설스러운 코모스(comos)라는 노래를 불렀는 데 이것이 나중에 코메디라는 말로 발전하게 되었다.

→ 트라제디 : 디오니소스에게 희생양을 제물로 바치며 부르는 트라고스라는 노래는 비극을 뜻하는 트라제디(tragedy)로 발전하게 된다.

→ 풍자극 : 디오니소스 무리 중 반인반수인 사티로스 주위에서 부르는 노래에서 발전한 것이

풍자극(a satirical drama)이다.

→ 디오니소스 주위에는 마이나데스와 판 신, 사티로스, 요정 등 추종자들이 항상 따랐다. 코

메디와 트레지디(tragedy), 풍자극(a satirical drama)의 어원은 모두 디오니소스 축제와 연관되어 있다.

② 디오니소스의 탄생

→ ‘디오니소스’라는 이름이 ‘두 번 태어난 자’를 의미하는 것처럼 그의 출생에 얽힌 이야기는 기구하다. 세멜레는 테바이의 왕 카드모스와 하르모니아의 딸이었다. 그녀는 제우스에게 사랑을 받고 아이를 갖게 되지만, 그녀의 자매들은 세멜레를 무척 질투하여 세멜레에게 제 우스에 대한 의심을 품도록 유도한다. 세멜레는 연인이 신이라는 증거를 보고 싶어 했다.

: 세멜레는 언니들의 꾀임에 속아 제우스를 의심하다 결국 죽게 되었다.

→ 세멜레는 제우스에게 어떠한 부탁이라도 들어달라고 간청했다. 제우스는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서 스틱스 강에 걸고 맹세를 했고, 그녀는 제우스에게 모습을 보여 달라고 했다. 스틱 스 강에 맹세해서 어쩔 수 없이 제우스는 번개와 천둥으로 둘러싸인 본래의 모습을 하고 나타났다. 이를 본 세멜레는 제우스의 강렬한 빛과 열을 견디지 못해 타 죽고 말았다.

→ 제우스는 세멜레의 태내에서 6개월밖에 안 된 미숙한 태아를 꺼내 자신의 허벅지 안에 넣 어 꿰맸다. 달이 차자 제우스의 허벅지를 뚫고 디오니소스가 나왔다.

: 달이 차자 제우스의 허벅지를 뚫고 나온 아이가 바로 디오니소스이다.

→ 헤라의 질투가 염려된 제우스는 세멜레의 언니 이노와 그녀의 남편인 오르코메노스의 왕 아타마스에게 디오니소스를 길러달라고 부탁했다. 헤라의 눈을 피하기 위해 여자 옷을 입 히라고 당부도 했지만, 헤라는 속아 넘어가지 않았다. 화가 난 헤라는 이노와 아마타스를 미치게 만들어 서로 죽이게끔 했다.

→ 제우스는 다시 아이를 뉘사라는 곳으로 데려가 아이를 새끼 염소로 변신시켜 이곳에서 요 들의 보살핌을 받으며 자라게 했다. 새끼 염소는 후일 디오니소스를 가리키는 의식적인 표 현들 중 하나로 자리 잡는다.

③ 포도주와 이카리오스

→ 뉘사에서 성장한 디오니소스는 포도나무 재배법과 포도주 양조 기술을 발견하게 된다. 그 리고 이러한 기술과 술에 의한 도취, 해방을 전파하고자 여행에 나선다. 아티카 지방의 이 카리아를 방문한 디오니소스는 자신을 친절하게 환대해 준 마을 농부 이카리오스에게 포도 나무의 재배법과 와인 담그는 기술을 가르쳤다.

→ 이카리오스는 신에게 받은 은혜를 마을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이 를 물에 타지 않고 마셨기 때문에 심하게 취해 버렸다. 술을 처음 먹어본 마을 사람들은 틀림없이 독을 타서 먹인 것이라 생각하고 이카리오스를 죽였다.

→ 그러자 마을에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고, 기근이 든데다 마을 처녀들이 하나둘 미쳐나갔다. 이는 디오니소스가 벌을 내린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신탁을 통해 진상을 알아내고 이때부 터 디오니소스신을 숭배하게 되었다. 디오니소스는 시리아를 거쳐 인디아까지 여행하면서 포도 재배법과 포도주 담그는 법을 가르치고 자신에 대한 신앙을 전파했다.

: 디오니소스의 신적 힘을 알게 된 사람들은 디오니소스를 신으로 숭배하게 되었다.

④ 펜테우스

→ 디오니소스의 고향 테바이에서도 그에 대한 신앙이 퍼져 나갔다.

→ 그러나 테바이의 왕 펜테우스는 여인들이 이성을 잃고 소리 지르면서 들판을 뛰어다니게 하는 디오니소스 일행의 행위를 못마땅하게 여겨 그들의 새로운 신앙의 의식을 금지시켰 다.

→ 디오니소스는 펜테우스에게 광란의 축제를 보러 가자고 부추겼다. 디오니소스의 안내를 받 아 키타이론 산을 찾은 펜테우스는 여자들이 광란하는 현장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했지만, 나무 위에서 훔쳐보고 있던 펜테우스는 여자들에 의해 발각되었다.

→ 이때 디오니소스는 여자들에게 광기를 불어넣었따. 광기에 찬 여자들은 펜테우스가 잇는 나무 밑으로 몰려들어 나무를 흔들어댔다. 그녀들은 큰 나무를 쓰러뜨리고 비명을 지르는 펜테우스를 붙잡고 그를 짐승이라 여겨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그 선두에 서 있던 여자가 바로 펜테우스의 어머니 아가우에(Araue)였다.

⑤ 디오니소스의 신격화

→ 디오니소스 숭배는 극에 달해 신이나 받을 수 있는 숭배를 받았다. 그는 자신의 신격화를 눈앞에 두고 어머니 세멜레를 찾으러 저승으로 내려갔다. 자신의 영광에 어머니를 동참시 키고 싶었기 때문이다. 어머니를 되찾은 디오니소스는 불멸의 영광을 어머니와 함께 누리 기 위해 올림포스로 올라가 위대한 신들의 반열에 자리 잡는다.

(5) 하데스

① 암흑의 신

→ 지하세계와 죽은 사람들의 왕 하데스는 제우스와 포세이돈의 형이다. 하데스는 죽은 자의 혼이 가는 지하의 나라, 즉 명계의 지배자로 그 특성상 신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몹시 꺼려했다. 확실히 그는 한번 명계에 발을 들인 자는 절대 이승으로의 귀환을 허락하지 않 는 엄격함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냉혹하기는 하지만 사악하고 부정한 신은 아니다. 그 림)

→ 

→ 고대 그리스인들은 하데스의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가 불길하다고 여겨 종종 그를 ‘부를 가져다주는 자’라는 뜻의 플루톤이라 불렀다. 이 이름은 지하의 신인 그가 땅에서 싹터 오 르는 식물을 비롯해 지하의 자원을 소유하고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 ‘하데스’란 눈에 보이지 않는 자를 의미한다. 하데스가 암흑의 세계에 있기 때문에 그 같 이 불렀을 것이다. 또한 그가 그것을 쓴 사람을 보이지 않게 만드는 투구 ‘퀴에네’를 지니 고 있었기 때문으로도 볼 수 있다.

→ 어두운 지하 세계의 왕답게, 하데스는 지상 세계에는 두 번밖에 나타나지 않았다. 한 번은 데메테르의 딸 코레를 납치하러 올라갔고 또 한 번은 포세이돈의 쌍둥이 아들을 도우러 퓔로스에 올라갔는데, 이때의 전투에서 헤라클레스의 화살을 어깨에 맞지만 올림포스로 올 라가서 경이로운 연고로 치료받고 곧 회복되었다.

② 지하의 세계

→ 하데스의 지하 세계는 저승의 강이라고 하는 스틱스 강을 경계로 하고 있다. 이 강은 돌이 킬 수 없는 죽음을 의미하는데, 카론이라는 뱃사공이 배를 타고 기다리다가 죽은 자들을 명계로 인도했다. 입구에는 케르베로스라는 개가 지키고 있어 한 번 들어간 이는 다시 나 올 수 없었다. 신들도 명계에서는 하데스의 뜻에 따라야 했다.

→ 명계에서 지상으로의 귀환을 허가받은 경우?

: 예외적으로 명계에서 지상으로의 귀환을 허가받은 경우는 헤라클레스와 오디세우스, 오르 페우스 등 극소수의 영웅들에 불과했다. 이들은 뛰어난 능력과 재능을 인정받았기에 지상 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하데스가 지배하는 명계는 죽은 자들이 거처하는 곳일 뿐 지옥은 아니었다.

→ 명계보다 더욱 깊은 곳에는 타르타로스가 있는데 여기는 영겁의 벌을 받은 자가 가는 곳이 다. 앞서 자주 등장한 것처럼 신들을 모독한 중죄인은 이 무간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 는다. 지상에서 타르타로스까지의 깊이는 지상에서 하늘까지의 거리와 같다고 한다. 타르 타로스에서 벌을 받은 죄인은 티탄 신족과 탄탈로스, 티티오스, 시시포스 등이다.

→ 반면 제우스를 비롯한 신들이 총애하는 극히 일부의 사람들은 사후에 엘리시온 평원으로 가서 행복하게 살았다. 눈과 비, 폭풍도 없는 이곳은 파라다이스이다. 여기에는 테바이 왕 국의 시조 카드모스나 트로이아 전쟁의 영웅 아킬레우스와 같은 영웅들이 살고 있다고 한 다.

(6) 파르테논 신전의 수난과 현재 모습

① 기원전 5세기에 세워진 파르테논 신전은 2500년간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변해왔다. 기원전 5세기에 세워진 파르테논 신전은 백악의 신전으로 알려진 파르테논이지만, 다른 그리스 신 전들이 그렇듯 원래는 극채색으로 칠해져 있었다. 파르테논 신전은 아테나이 번영의 상징 이었다. 하지만 이후 그리스 여러 폴리스의 쇠퇴와 함께 서서히 그 빛을 잃어갔다.

→ BC 447-438 그림) 

→ 4세기 말에 그리스가 비잔틴(동로마) 제국으로 흡수되자 파르테논 신전은 그리스도교의 성 당이 되었다. 신전의 내부에 있던 황금 상아제의 거대한 아테나 상은 5세기 초에 비잔틴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이스탄불)로 옮겨졌다가 언젠가 사라져 버렸다. 이후 15세기 중 반 오스만투르크의 지배하에 들어가자 신전은 이슬람교의 모스크로 개조되었다.

→ 1687년에는 투르크와 전쟁을 하던 베네치아군이 쏘아올린 포탄이 파르테논 신전으로 떨어 져 큰 타격을 입엇다. 이때 신전은 투르크군의 탄약고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단 한발의 포 탄으로 북쪽과 남쪽의 원기둥 20개 이상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 19세기 초에는 고대 유물 수집이 갑자기 성행하여 영국과 프랑스의 탐험가와 수집가들이 파르테논 신전의 조각상을 가져가 버렸다. 이때 가져간 유물들은 현재 대영 박물관과 파리 루브르 미술관에서 보관 중이다.

# 7주. 인류의 탄생과 죽음의 신화

(1) 인간 창조 신화

1. 인간 창조 신화의 문제

→ 그리스 신화의 인간 창조는 천지 창조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전해진다. 그러나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는 정설이 없다.

: 이유 - 신화의 조건 중 하나가 여러 이설의 집합인 까닭이다.

→ 특히, 인류의 기원에 관한 정설이 그리스 신화에 없다는 말은 인간 창조에 관한 이야기 자 체가 애매하고 불분명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 그리스 신화가 신화 중의 신화임에도 불구하고 인간 창조에 관한 설화는 가장 취약한 부분으로 꼽힌다.

1. 인간의 편에 선 프로메테우스

→ 인간을 만든 프로메테우스

: · 그리스 신화에는 인류의 기원에 얽힌 이야기가 여러 가지 있는데, 일설에 의하면 프로메 테우스가 물과 흙으로 최초의 인간을 만들었다고 한다. 제우스의 명령을 받은 프로메테 우스는 신의 형상을 본떠 인간을 만들었다. 특히 다른 동물들과 달리 인간의 얼굴만은 하늘로 향하도록 했다.

· 그러나 이렇게 만들어진 인간에는 여러 결점이 있었다. 그 때문에 제우스는 인간을 없애 고 더 훌륭한 창조물을 만드려고 했다 프로메테우스는 이에 반항하여 인간을 지켜 주었 을 뿐 아니라 제우스를 비롯한 여러 신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불을 가져다 주 었다.(훔쳐다 주었다.)

· 결점이 많았던 인간은 불을 사용하게 됨으로써 다른 동물보다 뛰어난 존재가 되었다. 불 을 사용하여 만든 무기로 동물들을 물리치고, 도구를 사용하여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됐 다. 그 결과 인간의 수가 빠르게 늘어나기 시작했다.

· 이처럼 인간을 계속 보살핀 프로메테우스는 티탄 신족 이아페토스의 아들로, 지혜롭고 선경지명이 뛰어났다.

* 프로메테우스 - ‘프로메테우스’는 미리 알다(먼저 생각하는 사람)라는 뜻으로 티탄 신 족이 올림포스 신족과 싸움을 할 때는 올림포스 쪽의 승리를 미리 내다보고 제우스의 편 이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그는 티탄 신족에게 내려진 형벌을 모면하고, 올림포스에서 제 우스 일족과 함께 살 수 있었다.

· 그러나 프로메테우스는 신들의 세계애서 애매하고 잘 규정되지 않는 지위를 차지하고 있 었다. 그는 티탄으로 불렸지만 크로노스의 형인 이아페토스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티탄도 아니고, 그렇다고 올림포스 신도 아니었다. 그러나 그는 티탄의 성격을 물 려받아 짓궂고 반항적이어서 비판을 잘하곤 했다.

* 루벤스, 17세기 경 그림) 

→ 프로메테우스에게 가해진 형벌

: · 프로메테우스는 제물이 된 짐승의 할당 문제로 신들과 인간 사이에 싸움이 일어났을 때 제우스를 속여서 인간들을 유리하게 만들었다. 신들과 인간은 어떤 음식을 신의 것으로 할 것인지를 정하기 위한 회합을 연다.

* 여기에는 인간의 음식 중 가장 좋은 것을 제물로 정하여 인간을 굶주리게 하려는 제 우스의 의도가 숨겨져 있다. 프로메테우스는 제물로 쓰인 큰 황소를 고기 부분과 내장 뼈 부분으로 나눈 후, 맛있는 고기와 내장을 위장으로 싸서 맛없어 보이도록 만든다.

→ 프로메테우스에게 가해진 형벌

: · 그리고 뼈를 두꺼운 지방으로 감싸 맛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만들어 제우스 앞에 놓는다. 제우스는 이에 속아 겉보기에 맛있어 보이는 쪽을 골랐는데, 속이 뼈라는 것을 알고 크 게 화를 냈다. 나머지 맛있는 부분은 인간들의 몫이었다.

· 제우스는 분노의 화살 끝을 프로메테우스가 옹호하는 인간들을 향해 겨누어, 그들로부터 불을 빼앗아버렸다. 인간들이 자유롭게 사용하던 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감춰버린 것이 다. 그와 동시에 인간들의 생명의 곡식인 밀도 숨겨버렸다.

· 불은 당초에 번갯불로서 제우스의 불이었는데 물푸레나무 꼭대기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인간들은 그 불을 갖다 쓰기만 하면 되었다. 신들도 제우스가 물푸레나무 위에 놓아두는 불을 사용했다. 인간들과 신들이 같은 불을 사용한 것이다. 그런데 제우스가 불을 감추자 사정이 나빠졌다. 신들에게 제물로 바칠 고기를 익힐 방도가 사라졌기 때문이었다.

· 인간들은 끓이거나 굽지 않으면 고기를 먹을 수 없었다. 인간들에게 큰 재난이었다. 그러 자 프로메테우스가 나섰다. 그는 아무렇지도 않은 기색을 하고 푸른 회향나무 가지를 하 나 꺾어 들고 하늘로 올라갔다. 회향나무는 다른 나무들과는 반대로, 겉은 푸르고 축축하 지만 속은 완전히 바짝 마른 나무다.

· 프로메테우스는 불씨를 구해 회향나무 가지 속에 숨겼다. 불씨는 줄기 속에서 타기 시작 했고, 그는 다시 무심한 여행객처럼 땅 위로 내려와서, 하늘에서 얻어온 불씨를 인간들에 게 주었다. 인간들은 그 불로 부엌에 불을 지피고 고기를 요리했다.

· 하늘 위에서 느긋하게 불을 감춘 것에 대해 흐뭇해하던 제우스는 땅위의 모든 집에서 불 빛이 반짝거리는 것을 보고 크게 분노했다. 그런데 제우스가 불시와 함께 밀도 숨겨버렸 기 때문에 인간들은 여전히 난처했다. 메코네 들판에서는 곡식들이 저절로 자랐다. 땅을 경작하지 않아도 되었다. 따라서 힘들여 일할 필요가 없었고, 곡식을 수확할 필요도 없었 다.

· 그런데 제우스가 밀을 감추자 인간들은 힘들어졌다. 프로메테우스는 이번에도 불쌍한 인 간들을 위해 밀알을 훔쳐 땅속에 숨겼다. 밭고랑을 파서 밀알을 넣고 싹이 트게 했따. 인간들은 이제부터 농사를 지어야 했다. 해가 바뀔 때마다 밀알을 잘 보존해야 했고 수 확해서는 단지에 잘 넣어두고 아껴 먹어야 했다. 또 일을 해야만 먹을 수 있게 되었다.

· 한편 프로메테우스가 훔쳐 온 불은 메코네 시절 물푸레나무 위에 있던 불과 달랐다. 물 푸레나무 위에 있던 불은 제우스가 사용하던 번갯불에서 유래한 하늘의 불이라서 결코 꺼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 불로부터 얻어온 불시는 새로 태어난 불이라서 꺼질 수 있었 기 때문에 항상 주의 깊게 다뤄야 했다. 잘 간수하지 않으면 꺼지기 때문이었다.

· 어쨌든 이러한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제우스의 분노는 정점에 이르렀다. 제우스는 프로메 테우스를 잡아 인간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오케아노스 강 끝의 카우카소스 산 암벽에 쇠 사슬로 묶어놓았다. 그리고 매일 거대한 독사 에키드나에서 태어난 독수리가 간을 쪼아 먹게 하는 끔찍한 벌을 내렸다.

· 쪼아 먹힌 간이 밤새 다시 회복되었기 때문에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계속 고통이 되풀이되었다. 프로메테우스는 훗날 영웅 헤라클레스가 구해줄 때까지 이 고통에서 해방 될 수 없었다.

· 아킬레우스를 비롯한 수많은 영웅들에게 무술을 가르치고 교육을 시킨 반인반마 (Kentauros) 케이론이 어느 날 부상을 당했다. 그는 무척 고통스러워했지만 상처는 쉽게 낫지 않았다. 그는 차라리 죽고 싶었지만 불사의 몸이라 죽을 수도 없었다. 그는 결국 프로메테우스의 죽음과 자신의 불사를 맞바꿔 고통에서 해방되어 죽었고, 프로메테우스 역시 고통에서 해방되어 불사의 몸이 되었다.

- 장 자크 프라디에, 1828년경 그림) 

1. 인간 창조의 다른 이야기

→ 오르페우스 파의 천지 창조 계보에서 말하는 인간 창조의 기원은 티탄들과 연관이 있다. 제우스와 페르세포네 사이에서 태어난 어린 디오니소스는 제우스의 뒤를 이어 왕 홀을 잡 게 되어 있었는데, 헤라는 이를 못 마땅하게 생각했다.

→ 헤라의 사주를 받은 티탄들이 장난감과 거울로 디오니소스를 죽인 다음 심장을 제외한 몸 뚱이를 삶거나 구워 먹는다. 이에 분노한 제우스는 번개를 내리쳐 티탄들을 재로 만든다 - 이 재로부터 태어난 것이 인간이다.

→ 디오니소스를 잡아먹은 티탄들의 재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디오니소스이 신성 과 함께 티탄의 악한 요소가 내재되어 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정화를 통해 인간은 티 탄의 악한 면을 떨쳐버리고 최초의 신성ㅇ르 되찾을 수 있다는 것이 오르페우스 신앙에서 말하는 인간론이다 .

1. 판도라의 탄생

→ 신들의 공모

: · 프로메테우스에게 가혹한 형별을 내린 제우스는 공범자인 인간에게도 직접 벌을 주기로 했다. 제우스는 대장간의 신 헤파이스토스에게 명을 내려 여신에 버금가는 아름다운 여 성을 만들게 했다. 이렇게 해서 인간 최초의 여성이 탄생하게 되었다.

· 헤파이스토스가 아름다운 여성의 몸을 만들자 여러 신들이 선물을 주었다. - 아테나 - 아름다운 옷을 차려입은 그 여성은 기예의 여신 아테나에게 베짜 는 기술을 부여받았다.

* + 아프로디테 - 사랑과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는 남자를 홀리는 성적 매력과 거부할 수 없는 욕망을 불어넣어 주었다.
  + 헤르메스 - 교활한 헤르메스 신은 간교함과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는 법을 알려 주었다.

· 이리하여 여성은 온갖 선물을 받았다는 의미를 가진 ‘판도라’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 일설에 의하면 신들이 판도라의 외모만 아름답고 매혹적으로 만들고, 온갖 나쁜 성질을 주었다고도 한다.

* + 로제티, 19세기 경 그림)
  + 존 윌리엄 워터하우스, 1896년 경 그림)



→ 판도라의 호기심과 인간의 고통

: · 헤르메스는 제우스의 명령대로 판도라를 프로메테우스의 동생 에피메테우스의 곁으로 데 려갔다. 에피메테우스는 나중에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에피메테우스는 형으로부 터 제우스의 선물은 절대로 받아서는 안 된다는 충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아 름다운 판도라의 매력에 바해 그녀를 아내로 맞이하고 만다.

· 판도라는 에피메테우스의 아내가 되어 지상에서 살게 되었다. 에피메테우스의 집에는 큰 항아리가 있었다. 이 항아리는 원래부터 에피메테우스의 집에 있었다는 설도 있고, 올림 포스의 신들이 판도라에게 보낸 것이라는 설도 있지만, 어쨌든 그 속을 들여다보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었다.

· 그런데 판도라는 그 속에 무엇이 들었는지 점점 궁금해졌다. 호기심을 못 이긴 판도라는 결국 항아리 뚜껑을 열고 말았다. 그 순간 항아리 속에서 슬픔, 고통, 가난과 질병, 시기 와 의심, 증오 등 온갖 재앙이 넘쳐 나와 지상으로 흩어졌다. 깜짝 놀란 판도라는 재빨 리 뚜껑을 닫았지만 때는 이미 늦었다.

· 그때까지 지상의 인간들은 죽음을 부르는 병과 슬픔, 재난 등을 모르고 살았지만, 이때부 터 지상에 악과 재난이 생겨났고 인류의 증가와 더불어 점점 더 퍼졌다. 하지만 마지막 엘피스(희망)만은 항아리 밑바닥에 남아 있었다. 이로 인해 인간은 갖가지 불행과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갖고 살게 되었다고 한다.

→ 판도라의 다른 이야기

: · 판도라와 관련된 다른 이야기가 있다. 판도라는 제우스가 인간을 벌하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니라, 그와 반대로 인간을 축복하기 위해서 보내졌다는 것이다. 결혼할 때는 여러 신들 이 선물한 물건이 든 상자를 받았는데, 무심코 그 상자를 열었다가 신들의 선물이 모두 날아가고 오로지 희망만이 남았다는 것이다.

· 또 다른 이야기에 따르면 판도라의 상자를 본래 프로메테우스의 것이었다고 한다. 그가 인간을 위해 모은 선물들이 상자 속에 들어 잇었다는 것이다. 판도라가 상자를 발견하고 호기심에 상자를 열자 모든 선물이 날아가 버리고, 다만 희망만은 상자 맨 밑에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남았다고 한다.

· 여성들은 불만일 수도 잇겠지만 구악 성서의 이브와 마찬가지로 그리스 신화에서도 여성 은 인류를 불행하게 만든 존재로 그려져 있다. 호기심을 못 이긴 판도라는 갖은 재난이 들어있는 항아리 뚜껑을 열었고, 이후로 인간들은 항상 ‘재난’을 두려워하며 마지막으로 남은 희망만을 안고 살아가게 되었다.

(2) 제우스의 대홍수 신화

① 데우칼리온과 퓌라

→ 데우칼리온과 퓌라의 이야기는 구약성서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와 비슷하다. 구약성서 속 노아의 방주는 인류의 타락에 절망한 신이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대홍수를 일으켰는데, 신 앙심이 깊은 노아 일가만 구원을 받아 그때부터 인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는 내용이 다.

→ 그리스 신화의 경우도 거의 같은 내용인데, 구약성서의 노아에 해당되는 인물이 프로메테 우스의 아들 데우칼리온이다. 그리고 데우칼리온의 아내 피라는 최초의 여성 판도라와 에 피메테우스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다.

: 그림) 지오반니 마리아 보탈라, 1635

→ 대신 제우스는 안 그래도 못마땅하게 여기던 인간들이 폭력과 전쟁을 일삼자 그들에게 더 욱 정나미가 떨어진다. 특히, 어디에서 났을지 모를 ‘청동족’은 사악하고 돼먹지 못한 놈들 이어서 세상을 멸망시킬 수 있는 대홍수를 일으키기로 결정한다.

→ 이때 프로메테우스는 제우스의 의도를 예견하고, 아들 데우칼리온에게 대홍수에서 살아남 는 방법을 가르친다. 그는 데우칼리온에게 배를 만들도록 권했다. 데우칼리온은 프로메테 우스의 말에 따라 배를 만드어 짐을 싣고 아내 퓌라와 함께 올라탄다.

→ 이윽고 제우스가 큰 비를 내리자 순식간에 모든 땅은 물로 뒤덮여 온통 바다가 되었다. 데 우칼리온과 피라 두사람은 9일 동안 바다 위를 떠다니다 겨우 파르나소스 산에 도착했다.

② 새로운 세대의 탄생

→ 배에서 내린 데우칼리온은 먼저 제우스에게 산 제물을 바쳤다. 제우스는 이에 응답하여 무 슨 소원이든 들어주겠노라고 약속했다. 데우칼리온이 새로운 인간이 태어났으면 좋겠다고 간청하자, 제우스는 어머니의 뼈를 대지에 던지거라 라고 일러주었다.

→ 데우칼리온은 궁리 끝에 어머니의 뼈를 만물의 어머니인 대지의 뼈, 즉 돌이라 생각했다. 그리고는 퓌라와 함께 대지에 돌을 던졌다.

: 데우칼리온이 던진 돌에서는 남자가, 피라가 던진 돌에서는 여자가 생겨났다. 돌에서 태 어난 이들은 새 인류의 시초가 되었다. 이렇게 해서 다시 인간이 늘어난 것이다.

→ 데우칼리온과 퓌라는 이밖에도 자신들의 부부 관계로부터 태어난 자식들을 갖게 되었다. 이 자식들은 그리스인들의 선조가 되었다. 데우칼리온과 피라 사이에서는 맏아들 헬렌이 태어났는데, 헬렌은 그리스 인의 시조가 되었다고 한다. 그리스 인들은 자신을 헬렌의 후 손이라는 뜻에서 스스로 헬레네스라 일컬었다. 헬레니즘도 그 이름에서 유래하였다.

→ 도로스, 크수토스와 아이올로스도 태어났는데, 헬렌은 모든 그리스인들의 선조가 되고, 도 로스와 아이올로스는 도리아인과 아이올리아인으리 시조가 되었다. 크수토스는 아카이오스 와 이온을 낳는데 이들은 각각 아카이아인과 이오니아인의 시조가 되었다. 그리스 민족의 4대 시조들이 이렇게 태어나 그리스 각 지역으로 퍼져나갔따.

(3) 인간의 5대 종족

1. 인류의 기원에 얽힌 그리스 신화 중에서는 프로메테우스를 중심으로 한 이야기와는 별도로 헤시오도스가 말한 인간의 5세대 신화가 있다. 인간 창조에 관해서는 애매하고 불투명한 그리 스 신화가 인간 종족의 변천에 관해서는 분명하게 밝히고 있따. 헤시오도스에 따르면 인간은 신들에 의해 만들어져 이후 5종족으로 교체되었다고 한다.

→ 그림 : 루카스 크라나흐, 황금의 시대, 1530년경 

1. 황금 종족

→ 크로노스가 지배하던 시절에 인간들에겐 황금 종만이 있었다. 인간들은 신들과 함께 어울 려서 살았다. 맨 처음에 만든 사람들로 이 시대의 사람들은 아무런 고민이나 걱정, 재난을 모르게 살았다. 이들은 늙지도 않았으며 수명은 있었지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임종 을 할 때는 잠들 듯 평온하게 죽었다.

→ 죽은 후에도 정령이 되어 인간을 지키고 행운과 부를 안겨다 주었다. 이 시대에는 인간이 땅을 경작하지 않아도 대지 스스로 필요한 것들을 때맞추어 생산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욕 심을 부리지 않았고 서로를 믿으며 평화롭게 살았다. 이 종족들이 모두 죽어 땅속에 묻히

게 되자 그들은 제우스의 뜻을 받들어 좋은 정령이 되어 인간들 속에 끼어 살면서 그들을 지켜보고 행운을 갖다 주곤 했다. 그들은 대단한 명예를 획득했다.

1. 은의 종족

→ 두 번째 종족은 올림포스 신들이 만든 은의 종이었다. 이들은 황금 종족에 비해 한참 뒤떨 어진 종족이다. 키도 작았고 지능도 떨어졌다. 아이는 엄마가 주읙 깊게 백년 동안이나 보 살펴야 했다. 드디어 성장하여 청년이 되어도 무지몽매하고 무절제했기 때문에 오래 살지 못했다.

→ 신을 공경할 줄 몰랐고 제사를 올리지도 않았으며 폭력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었다. 때문에 이들의 모습에 분노한 제우스에 모두 땅속에 묻혀버렸다. 그들은 지하 세계에서 행복을 누 리는 종족으로 분류된다.

1. 청동 종족

→ 세 번째 종족은 제우스가 만든 청동 종이었다. 그들은 물푸레나무에서 생겨났다. 운종보다 도 훨씬 못한 이들은 난폭하고 힘이 셀 뿐만 아니라 잔인하고 호전적이었으며 냉혈한들이 었다. 그들의 무기와 집과 도구는 모두 청동으로 되어 있었다. 검은 쇠는 아직 등장하지 않았던 시절이다.

→ 이 종은 은의 종족보다 더욱 폭력적이고 무도한 짓을 일삼았으며 게다가 부끄러워할 줄도 몰랐다. 힘센 팔만 갖고 버티며 살던 그들은 바로 자신들의 힘에 희생되어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하데스의 지하 세계로 사라져버렸다. 난폭하기 그지없던 그들도 검은 죽음 앞에서 는 꼼짝할 도리가 없었다. : 그들은 바로 자신들의 힘에 희생되어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하데스의 지하 세계로 사라져버렸다.

1. 영웅 종족

→ 청동 종족이 사라지자 제우스는 테바이와 트로이아를 둘러싼 전쟁에 과감하게 도전한 네 번째 종족을 태어나게 했다. 청동 종보다 정의롭고 덕을 갖춘 훌륭한 종족으로 반은 인간 이고 반은 신인 영웅 종족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테바이 전투를 비롯해 트로이 전쟁 등 끊 임없이 전쟁을 치러야 했다.

→ 이들은 전쟁으로 인해 멸망하였지만, 죽음을 면하여 살아남은 영웅들은 제우스가 인간과 신들로부터 멀리 떨어진 땅 끝 섬으로 데려가 크로노스 지배하에 살게 했다. 모든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해방된 그들은 행복의 섬에서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았다.

1. 철의 종

→ 다섯 번째로 만들어진 종족은 헤시오도스 자신이 살고 있는 현재의 인간들로 철의 종이다. 이들은 밤이고 낮이고 피곤하고 불안하다. 이들은 밤낮으로 힘든 노역과 고뇌에 시달리며 산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었다. 신들이 이들에게 항상 걱정거리를 갖다 주기 때문이다.

→ 아이들은 부모를 본받지 않고, 형제들끼리도 별로 우애가 없다. 부모가 늙으면 자식들은 공경하기는커녕 함부로 하기 일쑤이다. 약속도 지키지 않고 정의와 선을 존중하지 않는다. 힘센 자가 법 대신 군림하고 악을 행하는 자가 명예로운 세상에다. 거짓 맹세와 왜곡된 언어로 악한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을 해친다.

→ 신의와 정의가 땅에 떨어지고 거짓된 말과 악행이 판치는 세상은 배반과 탐욕으로 얼룩져 있어서 이 종족들은 끊임없이 걱정과 고통을 견디며 살아야 했다. 이제 인간들에게는 쓰디 쓴 고통만이 남게 되었고, 악을 치유할 아무런 방도도 찾을 길이 없게 되었다. 헤시오도스 는 머지않아 철의 종족도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4) 그리스 신화 인간 창조의 특징

1. 그리스 신화는 어떤 지역의 종족과 인간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는 갖고 있지만, 다른 지역 의 종족과 인간들은 이미 존재한 것으로 생각해서 별 다른 언급이나 설명이 없는 것이 특징이 다. 신화의 차원에서 보면 그리스인들은 지역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 지역마다 서로 다른 인간 창조의 신화가 있고 다양한 지역 창시자가 등장하는 것은 각기 다른 지역적 전통의 다양한 계보를 보여준다.

: 그러나 무로부터 창조된 인간 창조 설화가 없기 때문에 신들과 인간들의 진정한 상호 의 존, 연계 관계가 없는 것이 그리스 신화의 특징이다.

1. 그런 까닭에 그리스인들에게 인간은 ‘추락한 신’으로 비치기도 하는데, 이러한 관점은 ‘신 화라는 것은 정반대의 과정을 제시하는 것이다’라는 주장과 함께 ‘인간은 자신의 고유한 능력 으로 신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주장을 전개하기에 이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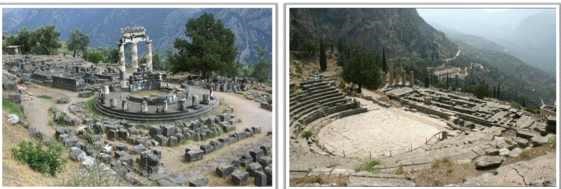
→ 그리스 신화 중에 인간 창조와 가장 근접한 신화는 프로메테우스 신화인데, 인간 탄생은 제우스의 뜻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우스와 인간들은 서로 대립된 관 계가 아니며, 게다가 제우스는 처음부터 ‘인간들의 아버지’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세상 속에서 인간을 우연히 만나 그럭저럭 함께 관계 맺고 지내던 상태였다.

→ 제우스에게는 인간들이 필요했다. 올림포스 신들과 비교해 볼 때 인간들은 총애를 잃어버 린 사촌 방계 친척으로, 타고난 혜택을 향유하는 강력한 신들과 함께 우주라는 무대에서 평등하게 살았다. 신과 인간 모두 운명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이 같은 내용을 볼 때,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인간들은 실제로는 고대 도시의 노예들 이며 신들은 자유로운 일반 시민들로서, 우연한 여건이 그들의 조건과 능력을 갈라놓았지 만 타고난 본성은 동일하다는 것을 그리스 신화가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할 수 도 있다.

(5) 신화를 통해 본 고대 그리스인들의 세계관

1. 고대 그리스인들이 생각하는 세계의 중심은 바로 성지 델포이다. 그들은 세계가 평평한 원 반 같은 모양을 하고 있다고 믿었으며, 그 원반을 한 세계의 중앙에 그리스가 있다고 믿었 다. 그리고 그 그리스의 중앙이 바로 델포이였다.

→ 그림 델포이 신전 

1. 신화에 따르면 제우스는 세계의 중심을 찾아내기 위해 세계의 양끝에서 두 마리의 독수리 를 날려 보냈고, 이 두 마리가 교차한 델포이 땅에 옴팔로스(대지의 배꼽)라는 돌을 놓았다 고 한다. 이때부터 델포이는 세계의 중심이 된 것이다. 델포이는 아폴론의 신탁지로 명성 을 떨쳤지만, 이 땅이 ‘세계의 배꼽’이었다는 사실도 신앙을 불러 모은 이유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2. 그리스인들은 또한 세계 주위에는 오케아노스라고 불리는 큰 강이 에워싸고 있다고 여겼 따. 세상의 모든 강은 오케아노스의 물이 지하를 통해 지상으로 올라오는 것이고, 하데스 가 다스리는 명계는 오케아노스의 저쪽 세상 끝에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스인들은 자신 들의 땅을 중심으로 세계를 조망하고, 세계에 대한 인식을 확장해 나갔다. 더불어 신화 의 세계를 꿈꾸고 만들었으며, 신앙의 경지로 이끌었다.

# 8주

## 1.사랑의 신 에로스

에로스 - 로마 신화에서는 아모르 또는 에로스 영어로는 큐피드

에로스는 원래 힘이 센 무서운 신이었는데 회화 작품 등에서는 아름다운 청년의 모습으로 그려졌다. 이후 아프로디테의 아이라는 설이 정착하면서 소년이나 꼬마 신으로 표현되는 경 우가 많아졌다. 또한 그 캐릭터도 변덕스럽고 장난을 좋아하는 신으로 바뀌어 갔다. 이 꼬 마 신은 대개 어깨에 날개를 달고 활과 화살은 휴대하고 있다. 그의 황금 화살을 망은 자는 마음에 격렬한 애정이 싹트고 반대로 납으로 된 화살을 맞은 자는 혐오심에 얽매이게 된다. 이처럼 에로스는 신들과 인간들의 마음을 지배할 수 있다. 에로스는 가끔 장난끼가 발동해 순간적인 감정으로 화살을 쏘아 비극을 가져오기도 했다. 아폴론과 다프네의 비련도 에로스 가 쏜 화살이 가져온 것이다.

점점 어려진 에로스

BC 8세기경 (헤시오도스 시대) 가이아와 함께 원초의 신이었고, 강대하고 두려운 신으로 여겨졌다.

BC 5세기경 (고전기) 에로스를 아프로디테의 아이로 여겼다. 그림과 문학 등에서는 아름다 운 청년으로 표형될 깨가 많았다.

BC 3세기경 (알렉산드리아 시대) 에로스를 아프로디테의 아이로 여기는 경향이 더욱 강하 게 나타나 장난기 많은 어린아이라는 이미지가 부여된다. 그림 등에서도 어린아이로 표현되 기 시작해 어깨에 날개를 달고 활과 화살은 들고 있는 모습으로 정착했다.

16세기경 (르네상스 시대) 종교적인 그림에서는 에로스를 기본 원형으로 한 어린 모습의 천사가 그려졌다.

프시케의 아름다움과 신탁 옛날에 딸만 셋인 왕이 있었는데, 모든 딸들이 다 사랑스러웠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막내딸 프시케는 언니들보다도 훨씬 아름다워서 언니들 옆에서 있으면 마치 평범한 인간들과 어울 리고 있는 여신처럼 보였다. 프시케의 비할 데 없는 아름다움에 대한 명성은 온 세상에 널 리 퍼져서 방방곡곡에서 사람들이 프시케를 보기 위해 먼 길을 마다 않은 채 찾아왔고, 경 이로움과 동경심에 사로잡혀 그녀가 실제로 여신이기도 하듯이 경의를 표했다. 사람들은 심 지어 제 아무리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조차도 프시케의 아름다움을 능가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프시케의 아름다움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점차 늘어나자 아무도 아프로디테 여신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았다. 아프로디테 여신의 신전은 그대로 방치되었고 제단은 싸늘하게 식었다. 아프로디테가 가장 좋아하던 도시들은 황폐해지고 폐허로 몰락해갔다. 아 프로디테 여신이 이러한 대우를 참을 리 없었다. 항상 곤궁에 빠질 때면 늘 그랬듯이 아프 로디테는 이번에도 아들에게 도움을 청했다. 아들 에로스에게 그녀를 불행한 사랑에 빠트리 라고 명한다. 그런데 프시케의 아름다움은 사랑의 신 에로스의 마음까지도 흔들었다. 에로 스는 그녀의 아름다운 모습을 넋을 잃고 바라보다가 그만 마법의 화살로 자신의 손가락에 상처를 내고 사랑의 포로가 되고 말았다.



한편 프시케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까닭에 결혼과는 인연이 없었다. 남자들은 프시케를 사랑 하지 않고 단지 프시케를 바라보고 경탄하고 숭배할 뿐이었다. 그리고는 그냥 지나친 채 다 른 여자와 결혼하는 것이었다. 미모가 프시케보다 훨씬 못한 두 언니는 각자 왕과 근사한 결혼식을 올렸지만 아름다움 그 자체인 프시케는 슬프고 외롭게 앉아 사랑은 받지 못하고 단지 숭배만 받을 뿐이었다. 이 일에 제일 상심한 사람은 부모님이었다. 결국 프시케의 아 버지는 어떻게 하면 프시케를 시집보낼 수 있을 것인지 물어보기 위해 아폴론의 신탁소를 찾아갔다. 이미 에로스는 아폴론을 찾아가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고 도움을 청했었다. 아폴 론은 프시케의 아버지에게 다음과 같은 신탁을 내렸다. ‘프시케에게 정식으로 상복을 입혀 바위산 정상에 홀로 두고 내려와야 한다.’ ‘그녀의 남편은 신들마저도 두려워하는 자이다.’ 프시케는 산꼭대기에서 어떠한 공포가 다가올지 모른 채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바람 중에 서도 제일 상쾌한 순한 서풍 제피로스의 숨결이 불어왔다. 제피로스는 프시케를 들어올려 아래로 날려가 침대처럼 폭신하고 온갖 꽃들로 향기로운 풀밭에 사뿐히 내려갔다. 매우 아 름다운 곳에서 프시케는 잠이 들었다. 얼마 후 깨보니 밝은 강가였다.

에로스와 프시케의 결혼 강둑에는 신을 위해 지어진 듯한 대저택이 있었다. 기둥은 금으로 만들어졌고 벽은 은으로 되었고 바닥에는 보석이 박혔다. 아무도 살지 않은 것처럼 보였지만 아름다운에 압도된 프 시케는 다가갔다. 프시케가 문간에서 머뭇거리고 있자 어딘가에서 음성이 귓전에 들려왔다. 그녀는 아무도 볼 수 없었지만 말하는 내용이 또렷이 들려왔다. 그 집은 프시케를 위해 준 비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두려워하지 말고 집으로 들어가 몸을 씻고 쉬어야 한다는 것 이었다. 목욕은 최고로 훌륭했고 음식은 가장 맛있는 것이었다. 프시케가 식사를 하는 동안 감미로운 음악이 퍼졌다. 프시케는 밤이 다가올수록 남편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육감으로 느꼈다. 그리고 남편이 옆에 있다고 느낀 순간 프시케의 귓가에 속삭이는 음성이 들여오자 프시케는 근심이 사라졌다. 비록 그의 모습은 볼 수 없었지만 괴물이 아니라 자신이 오랫동 안 기다려온 남편이라는 것을 알았다. 프시케는 음성만 듣고 모습은 볼 수 없는 관계에 만 족할 수 없었다. 어느 날 밤, 남편이 진지한 어조로 프시케에게 언니들이 위험이라고 경고 했다. ‘그들은 당신이 사라진 그 산꼭대기로 당신을 추모하려고 올라오고 있소. 하지만 언니 들에게 당신 모습을 드러내면 안 되오. 그렇게 하면 내게는 커다란 슬픔을 당신에게는 파멸 을 초래할 거요.’

프시케의 의심과 약속파기 프시케는 절대 그러지 않겠다고 남편에게 약속했지만 하루 종일 언니들과 자신을 생각하며 울었다. 하는 수 없이 남편이 프시케의 간절한 소망에 지고 말았다. ‘ 좋소,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시오. 하지만 당신은 지금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는 것이오.’ 그리고 프시케에게 언 니들이 아무리 그를 보라고 설득해도 넘어가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렇게 되면 자신과 영원 히 이별하게 된다고 했다. 프시케는 절대 그럴리 없다고 소리쳤다. ‘하지만 언니들을 만나 볼 수 있는 이 기쁨만은 허락해 주세요.’ 남편은 마지못해 약속했다. 다음 날 제피로스에 의 해 언니들은 산꼭대기에서 실려 왔다. 프시케 자매는 재회하여 궁전으로 들어갔고 언니들은 엄청난 보물들을 보았다. 언니들은 격렬한 질투심에 사로잡혔고 이 화려한 저택의 주인이자 동생의 남편이 누구인지 호기심에 시달렸다. 그러나 프시케는 약속을 지켰다. 그녀는 남편 이 평범한 청년으로 사냥중이라고 했다. 그리고 언니들에게 황금과 보석을 주고 제피로스에 게 다시 산꼭대기로 데려다 주게 했다. 언니들은 돌아갔지만 질투심이 타올랐다. 결국 두 언니들은 프시케를 파멸시킬 음모를 꾸민다. 프시케의 남편은 다시 한 번 경고했다. 그러나 프시케는 듣지 않았다. 또 남편은 프시케에게 지고 말았고 두 언니는 음모를 진행시켰다. 프시케에게 남편이 어떻게 생겼는지 물어봤을 때 프시케는 당황해하며 매번 엇갈린 대답을 했으므로 그들은 사실을 알아차렸다. 그러나 입 밖에 내지 않은 채 언니인 자신들에게조차 그런 끔찍한 상황을 숨겼다고 프시케를 힐난했다. 언니들은 남편이 무서운 뱀일 것이라고 했다. 나중에 분명히 프시케를 잡아먹을 것이라고 겁을 주었다. 프시케는 깜짝 놀라 두려움 에 떨었다. 그 동안 사실 자신도 왜 남편이 자신을 보여주지 않는지 궁금했다. 남편이 보기 에 그렇게 끔찍하지 않다면 자신에게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은 잔인한 짓이었다. ‘그이가 낮의 빛을 그렇게 피하는 데는 뭔가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야’ 언니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언니들은 미리 철저히 준비한 충고를 해주었다. 그날 밤 프시케는 예리한 칼과 램프를 침대 머리맡에 숨겨 두어야 했다. 그래서 남편이 깊이 잠들면 침대에서 일어나 램프에 불을 켜고 칼을 집어 들어야 한다. 그리고 불빛이 남편의 모습을 보여줄 테니 마음을 단단히 먹고 칼 을 그 끔찍한 괴물의 몸 한가운데에 재빨리 찔러 넣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프시케는 혼란스 러워 하다가 날이 저물자 남편의 모습을 봐야겠다고 생각했다. 남편이 깊이 잠이 들자 램프 에 불을 붙이고 누워있는 사람을 응시했다. 안도감과 환희가 밀려왔다. 프시케는 자신의 어 리석음과 불신감을 부끄러워하며 자신의 가슴을 찌를 뻔 했다. 그런데 램프에서 뜨거운 기 름 몇 방울이 남편의 어깨 위로 떨어졌다. 에로스는 화상을 입고 눈을 뜨더니 프시케가 약 속을 저버렸다는 것을 깨닫고 한 마디 말도 없지 달아났다.

시어머니 아프로디테의 며느리 구박 에로스와 함께 궁전도 사라졌다. 프시케는 남편을 찾아 세상을 헤매고 다녔지만 찾을 수 없 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아프로디테를 찾아 갔다. 그러나 아프로디테의 분노는 엄청났다. 여신은 호되게 다그치고 매를 때렸으며 여러 가지 시련을 안겨주었다.

단 하루 만에 보이, 조, 수수 등이 뒤섞인 곡물 더미를 종류별로 골라서 나누어 놓는 일 흉포한 숫양의 황금 털을 밀어 오기 생명의 샘에서 물을 떠오기 - 이처럼 도저히 혼자서 해 낼 수 없을 것 같은 일들뿐이었다. 그러나 매번 개미나 독수리 같은 불가사의한 협력자들이 나타나 그녀를 도와주었다.

이렇게 3가지 시련을 완수한 프시케에게 네 번째의 시련이 주어졌다. 명계의 왕비 페르세포



네에게서 ‘미’의 상자를 받아오라는 명이었다. 그런데 호기심 반, 자신을 치장하고 싶다는 마음 반으로 상자 안을 들여다보았다. 상자 안에 들어 있던 것은 ‘잠’이었다. 프시케가 잠든 곳에 화상이 다 치유된 에로스가 다가와 화살 끝으로 살짝 건드려 잠을 깨우고 그녀를 데 리고 올림포스로 올라갔다. 에로스는 제우스에게 아내와 어머니의 중재를 부탁했다. 결국 아프로디테는 프시케의 한결같은 마음에 지고 말았고 신의 술 넥타르를 마셔 불사신이 되었 다.



## 2. 또 다른 사랑 이야기

-오르페우스와 에우리디케

태초의 음가들은 신들이었지만 그 후로 몇몇 뛰어난 사람들이 나타나 출중한 기량으로 신들 과 거의 맞먹었다. 이들 중 가장 위대한 사람은 오르페우스이다. 뮤즈들 중 하나와 트라키 아의 왕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었다. 트라이키아인들은 그리스 전체를 통틀어 가장 음악적인 소양이 뛰어난 부족이었지만 오르페우스는 신들은 제외하고는 경쟁자가 없었다. 그런데 음 악보다 유명한 것은 불행하게 끝나버린 결혼이었다. 결혼 전의 삶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지 만 황금 양털을 찾는 유명한 모험에 참가했고 그 일행 중에서 매우 유용한 일원이라는 것을 입증했다. 이아손과 함께 아르고 호에 승선하여 영웅들이 지치거나 노 젓기가 특별히 어려 울 때는 자신의 리라를 뜯었다. 그러면 선원들은 다시 기운을 차렸다. 또 싸움이 일어날 것 같으면 연주를 하여 냉정을 되찾고 분노를 잊어버리도록 만들었다. 영웅들은 세이렌들의 매 혹적인 노랫소리를 더 듣고 싶다는 갈망으로 세이렌들의 해안으로 배를 돌렸다. 그때 오르 페우스가 리라로 아름다운 선율을 연주하자 선원들은 정신을 차리고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 었다.



오르페우스가 사랑한 에우리디케가 어디서 처음 만나 어떻게 구혼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 지만, 그가 원한 어떤 여인도 그의 노래의 힘에는 저항할 수 없었다. 두 사람은 결혼했지만 결혼식 직후 신부는 들러리들과 풀밭 위를 걷다가 독사에게 물려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다. 신부를 잃은 슴픔을 견딜 수 없어 오르페우스는 저승으로 내려가 에우리디케를 데리고 돌아 오기로 다짐한다. 저승에 이르자 오르페우스는 리라를 뜯었고 아름다운 선율에 저승의 수 많은 존재들은 숨을 죽였다. 케르베로스도 경계를 늦추고 익시온을 굴리던 바퀴도 멈춰 섰 다.



무서운 분노의 여신들의 얼굴도 처음으로 눈물에 젖었다. 페르세포네도 연주를 듣기 위해 왔다. 오르페우스는 플루톤의 얼굴에서 쇠 눈물을 흘러내리게 만들었고, 결국 자신이 찾던 것을 들어주게 했다.

그들은 에우리디케를 불러 내주었으나 한 가지 단서를 달았다. 에우리디케가 오르페우스의 뒤를 따라 오는 동안 오르페우스는 결코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된다. 두 사람은 하데스의 커다란 문들을 통과하여 암흑 밖으로 올라갔다. 거의 지상에 도착했을 때 암흑은 회색으로 바뀌고 있었다. 오르페우스는 지상의 빛 속으로 막 발을 들여 놓았다. 그리고 에우리디케를



돌아보았다. 그러나 에우리디케는 아직 암흑의 동굴을 벗어나지 못했고 오르페우스가 팔을 뻗었지만 에우리디케는 사라졌다. 오르페우스가 들은 것은 ‘안녕’이라는 한 마디였다. 오르 페우스는 지하로 내려가려 했지만 허용되지 않았다. 살아있는 사람의 몸으로 두 번이나 저 승에 발을 들여놓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 이후로 오르페우스는 트라키아의 황 야를 헤매고 다니며 리라를 연주하며 위안을 삼았다. 그러나 마이나스 무리와 마주쳤고, 그 들은 오르페우스의 사지를 갈가리 찢어 죽이고 잘인 머리는 헤브로스 강의 빠른 물살 위로 던져버렸다. 오르페우스의 머리는 레스보스 섬 연안에 이르는 강의 입구를 따라 실려 내려 갔다. 뮤즈들이 발견할 때까지도 오르페우스의 머리는 온전했고 뮤즈들이 레스보스 섬의 신 전에 잘 묻어주었다. 나머지 사지들도 잘 주워 모아 올림포스 산 아래 있는 무덤에 묻어 주 었다. 오늘날까지도 그곳에서 우는 나이팅게일의 소리가 다른 어느 곳의 새보다도 가장 아 름답다고 한다. -피그말리온과 갈라테이아

피그말리온은 결코 결혼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자신에게는 예술하나만으로 충분하다고 스스 로 다짐했다. 자신의 모든 재능으로 혼신을 다해 만들어낸 것은 여인의 조각상이었다. 피그 말리온은 계속 조각상을 다듬었다. 그리고 조각상은 계속 아름다워 졌다. 이제 그 조각상에 더 이상 어떠한 완벽함도 보탤 수 없을 지경이 되자 피그말리온은 자신의 피조물을 매우 열렬하고 깊이 사랑하게 되었다. 피그말리온이 만든 조각상은 단순한 조각상 으로 보이지 않았다. 누구도 그것이 대리석이나 돌이 아닌 잠시 동작을 멈춘 인간의 육신이



라고 생각했다. 피그말리온은 조각상에 입을 맞추고 포옹했지만 반응이 없었다. 피그말리온 은 조각상에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조각상이 기뻐한다고 생각했다. 빛나는 보석을 선물로 가져다 주고 밤이면 침대에 눕히고 이불로 감싸주었다. 그러나 더 이상 조각상이 살아있는 체할 수가 없었다. 결국 포기하고 피그말리온은 아무런 희망도 없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다. 아프로디테는 이 새로운 종류의 사랑을 앓는 남자에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기로 결정했다. 아프로디테의 축제일은 키프로스에서 거행되었는데, 아프로디테가 거품에서 솟아오른 뒤 제 일 처음으로 받아들인 섬이 키프로스였으니 당연한 일이었다. 뿔을 금빛으로 입힌 눈처럼 하얀 암소들이 아프로디테 여신을 위해 바쳐졌다. 불행한 연인들은 모두 자신의 사랑이 이 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피그말리온이 기도를 하자 아프로디테는 기도를 들어주겠다는 뜻으로 제단 위에 있는 불을 허공으로 세 번이나 불타오르게 만들었다. 피그말리온은 집으 로 돌아가 조각상은 쓰다듬다가 움찔하여 뒤로 물러났다. 다시 입맞춤을 하자 조각상의 입 술이 점차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꼈다. 조각상의 단단함은 이미 사라지고 맥박이 뛰었다. 아 프로디테의 은총에 피그말리온은 자신의 연인을 끌어안았다. 아프로디테가 몸소 결혼식에 참석하여 축복해주었고 피그말리온은 그 여인에게 갈라테이아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아프 로디테가 가장 총애하는 도시는 두 사람의 아들 파포스의 이름을 따서 지었다는 사실이 전 해진다.

## 3.고대 7대 불가사의

최초로 세계 7대 불가사의를 발표한 사람은 BC2세기경 비잔티움의 필론이다. 여기에는 그 리스 신들과 관련된 것도 있다. 올림피아의 제우스 상, 에페소스의 아르테미스 신전, 로도스 섬의 헬리오스 상 등이 그것이다.그중 로도스 섬의 헬리오스 상은 전체 길이가 36m나 된다 고 한다. 하지만 이 거상은 BC277년에 일어안 지진으로 파괴되었다.

### 기자의 피라미드(이집트)

기자 대치에 있는 쿠푸 왕을 비롯한 3왕의 무덤 BC2500년경에 세워졌고, 7대 불가사의 중 에서 유일하게 현존 바빌론의 공중정원(이라크)

7층 계단식의 테라스 정원 고도한 기술의 급수 시스템을 설치해 테라스 위에는 식수가 무 성하게 자랐다.

알렉산드리아의 등대(이집트)

전체 높이는 120m나 되었다고 한다. 포세이돈과 트리톤 상도 놓여 있었다.

### 로도스 섬의 헬리오스 상(그리스)

전체길이 36m 이 거상은 항구의 입구를 건너는 자세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대좌위에 서 있었다고 한다.

### 올림피아의 제우스 상(그리스)

전체 길이 12m의 좌상으로 신전에 안치되어 있었다. 제작은 파르테논 신전의 총지휘를 맡 았4던 거장 페이디아스 에페소스의 아르테미스 신전(터키) 파르테논 신전의 2배에 가까운 규모 현재는 기중 하나만 남아 있다.

할리카르나소스의 영묘(터키)

카리아 왕국의 왕과 여왕의 장대한 무덤 높이 42m

# 9주

1.페르세우스 페르세우스와 폴리덱테스 왕 아르고스의왕 아크리시오는 딸이 낳은 아들에게 죽을 것이다 라는 신탁을 받고 딸 다나에를 청동으로 된 방에 가두었다. 그러나 천상의 신 제우스가 황금비로 둔갑한 후 지붕의 작은 틈새로 스며들어가 다나에의 무릎에 떨어졌고 아이를 갖게 되었다. 달이 차자 다나에는 남 자 아이를 출산했는데, 그가 바로 페르세우스다. 이는 아버지에게 곧 들키게 되고 아크리시 오는 다나에와 페르세우스를 나무상자에 넣어 바다로 떠내려 보냈다. 에게해를 떠다니던 나 무상자는 세리포스 섬으로 흘러들었다. 거기서 딕티스라는 어부에읳래 건져 올려졌다. 이후 페르세우스는 어부로 성장했다. 세리포스 섬의 폴리덱테스라는 왕은 시들지 않는 미모를 가 진 다나에에게 끊임없이 구애를 했다. 그러나 다나에는 결혼 의사가 없었고 항상 페르세우 스가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접근이 어려웠다. 폴리덱테스는 페르세우스를 없앨 궁리만 하였

다. 어느날 폴리덱테스는 다른 나라의 공주와 결혼을 하고 축하연을 열었는데 ‘축하 선물로 말을 바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사람들이 그러겠다고 하였으나, 가난한 페르세우스는 여 유가 없어 ‘말 이외의 것이라면 고르곤의 머리라도 가져오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이것이 빌 미가 되어 폴리덱테스는 페르세우스에게 고르곤의 머리를 잘라오라고 명했다.

고르곤이란? 폰토스와 가이아의 자손에 해당하는 스테노, 에우리알레, 메두사 세 자매를 가 리킨다. 이들은 뱀의 머리카락과 청동으로 된 손을 가졌고, 황금 날개를 가지고 있었다. 특 히 보는 사람을 돌로 만들었다. 이들 가운데 메두사는 원래 아름다운 소녀였으나, 아테나 신전에서 불경스럽게 포세이돈과 관계를 맺은 것에 화가 난 아테나 여신이 괴물로 바꾸었

다. 특히 머리카락이 아름다웠는데, 뱀으로 변하고 말았다. 그래서 그녀를 바라보는 사람은 누구나 돌이 되었다.

페르세우스는 고르곤을 처치할 방법을 몰랐고, 사는 곳조차 몰랐다. 제우스는 자기 자식을 위해 아테나와 헤르메스를 보냈다. 아테나는 고르곤이 사는 곳을 그라이아이만이 알고 있다 고 가르쳐주었다. 페르세우스는 먼저 고르곤의 자매 그라이아이가 있는 곳으로 향했다. ‘백 발노파’를 뜻하는 그라이아이 세 자매는 팜프레도와 에니오, 데이노라는 이름은 갖고 있었

다.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흰 머리에 주름이 가득한 노파의 모습을 한 괴물로, 셋이서 하나 의 눈과 이빨을 번갈아 돌려가며 쓰고 있었다. 페르세우스는 괴물들이 눈과 이빨을 뺴서 서 로에서 건네는 순간에 그것을 훔쳐 협박했다. ‘이것을 돌려받고 싶다면 고르곤이 사는 곳과 고르곤 퇴치에 필요한 도구를 갖고 있는 님프가 어디에 있는지 말해라’ 그라이아이 자매는 마지못해 님프가 있는 곳과 고르곤이 사는 곳을 알려주었다. 페르세우스 는 그들의 눈과 이빨을 바다에 던져 버렸다.

님프 – 하늘을 날 수 있는 날개 달린 샌들과 고르곤의 머리를 넣기 위한 자루(키비시스)를 받았다. 그리고 쓴 사람의 모습이 보이지 않게 하는 모자를 빌렸다. 헤르메스 – 고르곤의 목을 벨 수 있는 금강으로 된 마법의 낫 아테나 – 청동 방패 페르세우스는 고르곤이 있는 서쪽 동굴에 다다랐는데, 그 주위에는 고르곤을 보고 돌로 변 한 사람들의 흔적이 널려 있었다. 그는 님프에게 빌린 모자를 쓰고 3자매 중 메두사를 겨냥 해 날아올랐다. 페르세우스는 청동 방패에 비친 모습을 보며 메수사의 목을 베었다. 메두사 가 머리가 잘릴 때 흘린 피에서 천마 페가수스가 태어났다고 한다. 또한 메두사의 머리를 아테나에게 바치자 그것을 방패에 붙였다고 한다. 고르곤을 퇴치한 페르세우스는 세리포스 섬으로 향했다. 그런데 에티오피아 상공에서 젊고 아름다운 처녀가 바위에 쇠사슬로 묶여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처녀는 이 나라의 공주 안드로메다였다. 그녀의 어머니 카시오페이아가 ‘나는 바다의 요정 네레이스들 보다 아름답다.’라고 말한 것에 화가난 포세이돈은 홍수를 일으키고 거대한 괴 물을 보내 에티오피아를 혼란에 빠트렸다. 포세이돈의 아내 암피트리테도 네레이스 중 하나 였다. 에티오피아의 왕 캐페우스는 신탁에서 신의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서는 공주를 제물 로 바쳐야 한다고 들었다. 페르세우스는 첫눈에 안드로메다에게 반했다. 그래서 캐페우스에 게 괴물을 물리치면 그녀와 결혼을 허락해 달라고 말했다. 페르세우스는 바위 그늘에 숨어 괴물이 나타나자 날아올라 괴물 주위를 돌았다. 괴물은 수면에 비치는 그림자를 적이라 생 각하고 공격했다. 페르세우스는 높은 곳에서 마법의 낫으로 괴물의 목을 베었다. 승리를 거 둔 페르세우스는 안드로메다와 결혼하고 어머니 다나에가 기다리는 세리포스 섬르오 귀환한

다. 그런데 폴리덱테스 왕의 폭정이 심해져 있었다. 다나에는 신들의 재단으로 피난을 가 있었고 폴리덱테스는 음식을 주지 않았다. 이대로라면 다나에는 굶어 죽고 말 지경이었다. 페르세우스는 그간의 사정을 듣고 분노하여 폴리덱테스의 앞을 가로막고 메두사의 머리를 내밀었다. 폴리덱테스는 그대로 돌이 되었다. 페르세우스는 어머니와 아내를 데리고 자신의 고향 아르고스로 향했다. 이 소식을 듣고 아크리시오스는 두려워 아르고스를 떠나 테살리아 의 라리사로 숨어들었다. 라리사에서는 장례를 위한 운동 경기 대회가 열리고 있었다. 그 무렵 페르세우스는 원반던지기에 출전했는데, 잘못 던져서 원반을 관중석으로 날렸다. 그 원반을 아크리시오스가 맞았다. 페르세우스는 자신 때문에 죽은 조부의 영지를 이어받지 못 하고 사촌 형제인 메가펜테스와 영지를 교환하여 아르고스보다 작은 나라인 티린스의 왕이 되었다. 페르세우스와 안드로메다는 죽은 후 아테나에 의해 별자리가 되었다. 포세이돈은 카시오페이아와 케페우스가 죽은 뒤 바다 괴물(고래)와 함께 별자리로 만들었다.

2.헤라클레스 헤라클레스의 탄생

미케나이 왕 엘렉트리온의 딸 알크메네는 사촌 암피트리온과 결혼하여 살고 있었다. 한번은 암피트리온이 원정을 나가고 집을 비워 알크메네는 집에 홀로 남게 되었다. 예전부터 알크 메네를 동경하던 제우스는 생각 끝에 남편 암피트리온으로 변신하여 그녀에게 다가갔다. 알 크메네는 감쪽같이 속아 제우스와 관계를 맺었다. 그 결과 알크메네는 제우스의 아이 헤라 클레스와 암피트리온의 아이 이피클레스 쌍둥이 남자 아이를 출산했다.

그런데 헤라클레스가 태어나기 직전 제우스는 신들 앞에서 선언했다. ‘다음에 태어나는 페르세우스의 후손은 미케나이의 왕이 될 것이다’ 하지만 제우스가 바람을 피운 것에 화가 난 헤라는 출산의 여신 에일레이티아에게 부탁하여 알크메네의 출산을 늦추고, 일족인 스테넬로스의 아이가 먼저 태어나도록 계략을 꾸몄다. 이 때문에 스테넬로스의 자식 에우리스테우스가 헤라클레스 대신 미케나이 왕좌에 오른다.



헤라는 생후 8개월 된 헤라클레스와 이피클레스 쌍둥이에게 두 마리 독사를 보내 죽이려 했다. 그러나 헤라클레스는 맨손으로 독사를 붙잡고는 목 졸라 죽여 버렸다. 이때 암피트리 온은 헤라클레스가 신의 아이라는 것을 확신했다. 헤라클레스는 타고난 힘으로 다양한 싸움 기술과 지혜를 습득하며 성장했다. 그러나 성미가 급해 분별력을 잃을 때가 있었다. 소년 무렵에 헤라클레스는 악기인 수금을 배웠는데, 음악에는 소질이 없어 연주가 형편없었다. 어느날 음악 교사가 헤라클레스의 연주에 화가 나서 무심코 손을 들었다. 그러자 이성을 잃은 헤라클레스는 수금을 교사에게 집어던져 죽이고 말았다. 헤라클레스가 18세 될 무렵 키타이론 산에서는 흉포한 사자가 수시로 출몰하여 소를 잡아먹는 등 여기저기서 거칠게 날 뛰었다. 헤라클레스는 키타이론 산과 가까운 테스피아이 왕궁에 머물면서 수십일 동안 사자 와 싸워 50일째 되던 날 사자를 죽였다. 헤라클레스는 사자의 가죽을 벗겨 모피로 만들어 입고, 사자의 머리를 투구로 썼다. 그리고 사자를 때려죽인 곤봉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청 년이 괸 후 테바이에서 큰 공을 세운다. 해마다 조공을 바쳐야 했던 오르코메노스를 패퇴시 키고 그 나라의 왕을 죽였다. 이로 인해 테바이에 평화가 찾아왔다. 그 활약을높이 산 테바 이의 왕 크레온은 자신의 딸 메가라를 헤라클레스에게 주었다. 3명의 자식을 얻고 살았다. 시기심이 생긴 헤라는 그에게 광기를 불어넣었고, 헤라클레스는 자신의 자식과 이피클레스 의 자식마저 모두 살해해 버렸다. 제정신이 든 헤라클레스는 자책감에 아내와 헤어지고, 스 스로 추방당하여 테바이를 떠났다. 아폴론의 델포이에 도착하여 죄를 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신탁은 헤라클레스에게 미케나이의 왕 에우리스테우스를 섬기고 왕이 부 과하는 12가지 과업을 달성해야 한다고 했다.

(1)사자의 가죽을 가져오라 에우리스테우스는 헤라의 계략으로 미케나이의 왕위 자리를 약속받았다. 그는 겁 많고 교활 한 자로 헤라클레스에게 인간으로는 불가능한 12가지 과업을 주어 죽이려 하였다. 첫 번째 과업은 네메아 계곡에 사는 사자의 가죽을 가져오는 것이었다. 이 사자는 괴물 티폰(가이아 와 타르타로스의 아들. 세상의 지배권을 놓고 제우스와 큰 싸움을 했다.)의 자식으로 화살 이 튕겨나갈 정도로 강한 표피를 가진 맹수였다. 헤라클레스는 이 맹수를 맨손으로 잡아 죽 이고 가죽을 벗겼다.

이후 에우리스테우스는 헤라클레스와 직접 만나는 것을 두려워 하여 이후의 과업은 전령으 로 전달하고 전리품은 문 앞에 보이도록 명했다. 게다가 땅 속에 청동 단지를 묻어 헤라클



레스가 돌아올 때마나 그곳에 숨었다.

(2)괴물 히드라를 퇴치하라 레르네 늪에 사는 머리가 9개 달린 물뱀 히드라를 퇴치하는 일이었다. 히드라는 티폰의 자 식으로 잘라내도 계속 새로운 머리가 자라났다. 헤라클레스가 목을 베면 이올라오스는 그 자리를 불로 지졌고 머리가 더이상 돋아나지 않았다. 헤라클레스는 히드라의 독액으로 독화 살을 만들었다.



(3)아르테미스 여신의 황금 뿔 사슴을 잡아오라 케리네이아 산의 사슴을 산 채로 잡아오는 일이었다. 이 사슴은 아르테미스 여신 소유의 신 성한 동물이었으므로 약간이라도 상처를 내서는 안 되었다. 헤라클레스는 일 년 동안 쫓아 다니다가 사슴이 지쳤을 때 사로잡았다. 에우리스테우스에게 확인받은 후 곧 풀어줬다.

(4)맷돼지를 생포하라 에리만토스 산에서 민가에 내려와 해를 끼치는 거대한 맷돼지를 생포하는 일이었다. 맷돼지 가 너무 빨라서 눈이 쌓인 들판으로 유인하여 지치게 한후 잡았다.

(5)가축우리를 하루에 모두 청소하라 아우게이아스 왕의 거대한 가축우리에 3천 마리의 소가 있었는데, 30년 동안 한 번도 청소 를 하지 않아 가축의 분뇨가 산더미처럼 쌓여있었다. 헤라클레스는 신분을 숨기고 축사를 치워주는 대가로 소떼의 일부를 요구했다. 헤라클레스는 먼저 축사 벽에 구멍을 몇개 뚫었

다. 그리고 인접한 강의 물줄기를 끌어와 순식간에 청소를 마쳤다. 그러나 아우게이아스는 헤라클레스가 과업을 수행중임을 알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훗날 헤라클레스는 그 복수로 아우게이아스를 죽였다.

(6)사나운 새떼를 쫓아라

스팀팔리데스의 숲에서 사람을 괴롭히는 새떼를 쫓는 일이었다. 그 새들은 청동 부리와 발 톱을 가졌다. 아테나 여신이 청동 꽹과리를 주었고 헤라클레스는 요란한 소리를 내어 숲에 서 나올 때 독화살로 죽였다.

(7)크레타 섬의 미친 황소를 잡아오라 여섯 번째 까지는 모두 미케나이 주변에서 이루어진 일이지만, 일곱 번째 이후 펠로폰네소 스 반도를 넘어 크레타 섬과 그리스 북부의 트라키아 지방까지 그 무대가 확장되었다. 이 황소는 크레타 섬의 미노스 왕이 포세이돈에게 바치기로 한 제물이었는데, 약속을 지키 지 않아 포세이돈이 미치게 만든 것이었다. 헤라클레스는 크레타 섬을 난폭하게 돌아다니던 황소를 사로잡아 미케나이로 돌아갔다.

(8)트라키아의 식인 말을 잡아오라 트라키아 비스톤 족의 왕 디오메데스가 기르는 식인 말을 산 채로 잡아오는 것이었다. 디오 메데스는 그 말에게 사람 고기를 먹이고 있었다. 헤라클레스는 파수꾼을 쓰러뜨리고 말을 데려오다가 공격을 받게 되었다. 그들의 공격을 물리치고 디오메데스를 사로잡은 헤라클레 스는 그를 말의 먹이로 던져주었다. 그러자 말이 얌전해졌다고 한다.

(9)아마존족 여왕의 허리띠를 뺏어오라 흑해 주변에 사는 아마존족 여왕의 허리띠를 빼앗아 오는 것이었다. 에우리스테우스의 딸 아드메테가 아마존족 여왕 히폴리테의 황금 허리띠를 탐냈기 때문이다. 아마존족은 군신 아 레스를 시조로 하는 여전사들만으로 이루어진 종족이다. 히폴리테의 허리띠도 아레스로부터 선물로 받은 것이었다. 그녀들은 종족 보존을 위해 타국의 남자와 관계를 갖지만 태어난 아 이가 남자 아이일 경우에는 죽이고 여자 아이만을 키웠다. 그런데 뜻밖에도 여왕은 헤라클 레스에게 호의적이었다. 하지만 헤라가 아마존족의 여자로 변신하여 이방인들이 여왕을 납 치하려고 한다는 헛소문을 퍼뜨렸고 소문을 들은 여자들은 일제히 무장을 하고 헤라클레스 가 있는 곳으로 몰려들었다. 이것을 본 헤라클레스는 여자들을 해치워 버렸고 왕의 허리띠 를 빼앗아 귀환했다.

(10)괴물 게리온의 붉은 소를 잡아오라 머리 셋 달린 괴물 게리온이 가지고 있는 붉은 소를 산 채로 잡아오기 위해 세상의 끝 오케 아노스를 건너 전설의 섬인 에리테이아로 모험을 떠났다. 태양신 헬리오스가 빌려 준 황금 술잔을 타고 무사히 항해할 수 있었다. 가는 도중 지브롤터 해협을 통과할 때 헤라클레스는 그것을 기념하여 유럽과 아프리카의 산 사이에 거대한 기둥을 세웠는데, 이것이 헤라클레스 의 기둥이다. 에리테이아 섬에 도착한 헤라클레스는 소를 지키는 개인 오르트로스를 곤봉으 로 물리치고 붉은 소를 사로잡았다. 이 사실을 안 게리온이 공격해 왔으나 헤라클레스는 독 화살로 그를 죽였다.

(11)헤스페리데스 동산의 황금 사과를 따오라 헤라클레스는 동산을 찾아 각지를 방황하다 카우카소스 산에서 프로메테우스와 만나게 되었 다. 헤라클레스는 큰 독수리를 활로 쏘아 떨어뜨리고 그를 풀어주었다. 이에 프로메테우스 는 감사의 뜻으로 황금사과를 손에 넣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헤라클레스는 제우 스에 의해 하늘을 계속 떠받들고 있는 형벌을 받고 있는 아틀라스에게 갔다. 헤라클레스는 프로메테우스의 조언대로 대신 하늘을 받치고 있을 테니 사과를 가져다 달라고 했고, 아틀 라스는 기꺼이 이 일을 맡았다. 잠시 후 3개의 황금 사과를 가지고 온 아틀라스는 다시 하 늘을 떠받들기를 거부하고 자신이 직접 에우이스테우스에게 황금 사과를 가져다주겠다고 했 다. 헤라클레스는 이를 승낙하는 척하고 받침대를 머리에 얹는 동안 잠깐만 하늘을 들어달 라고 말했다. 아틀라스는 그 말에 속아 사과를 내려놓고 하늘을 받아들었다. 그 순간 헤라 클레스는 사과를 빼앗아 얼른 자리를 떠났다.

(12)명계의 괴물 케르베로스를 생포하라 케르베로스는 머리 셋에 등에는 온갖 종류의 뱀을 달고, 용의 꼬리를 가진 괴물이었다. 혼 자 힘으로는 명계에 들어가기 어려웠기 때문에 헤라클레스는 헤르메스와 아테나의 안내를 받았다. 하데스는 무기를 일절 사용하지 않고 맨손으로 케르베로스를 사로잡는다면 데려가 도 좋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헤라클레스는 두 손으로 목을 단단히 졸라 케르베로스를 사로 잡았다. 그 과정에서 헤라클레스는 ‘망각의 의자’에 갇혀 있던 테세우스를 구하기도 했다. 헤라클레스는 12과업을 모두 완수했다. 비로소 그는 자유의 몸이 되었고 자식을 살해한 죄 를 씻을 수 있었다. 이후 헤라클레스는 칼리돈의 공주 데이아네이라와 재혼했다. 그러나 헤 라클레스는 또다시 실수로 친척 소년을 죽이는 바람에 아내와 함께 나라를 떠나게 되었다. 둘은 망명국 트라키아로 향하던 중 강을 만났다. 헤라클레스는 혼자 힘으로 건넜지만, 비가 많이 와 강물이 불은 상태였기 때문에 데이아네이라는 혼자 건너기 어려웠다. 그래서 강 저 편으로 사람들을 실어주는 켄타우로스 족인 네소스에 업혀 건너게 되었다. 그런데 이때 네 소스가 데이아네이라를 범하려고 했다. 아내의 비명소리를 들은 헤라클레스는 곧바로 화살 을 쏘아 네소스의 심장을 맞췄다. 네소스는 죽기 직전 자신의 피를 ‘사랑의 미약’이라고 거 짓말을 하면서 남편의 사랑이 식었을 때 사용하라고 했다. 그러나 그것은 맹독이 섞인 피였

다. 트라키아에 가서도 헤라클레스는 원정과 모험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언젠가 오이칼리아를 공략한 헤라클레스는 전리품으로 그 나라의 공주 이올레를 데리고 돌아왔다. 이 사싱을 알게 된 데이아네이라는 남편의 애정이 아름다운 이올레에게 기울까 걱정되었다. 그래서 ‘네소스의 피’를 기억해 내고는 헤라클레스의 속옷에 발랐다. 속옷을 입자 헤라클레 스에게는 온몸이 타들어가는 엄청난 고통이 엄습했다. 피에 섞여 있던 맹독이 헤라클레스의 살갗을 파고들어가기 시작한 것이다. 속옷을 벗어버리려고 했으나 떨어지지도 않았다. 강제 로 잡아당기자 살과 함께 살이 튕겨져 나갔다. 데이아네이라는 이 참극을 견디지 못하고 자 살하고 말았다. 격렬한 아픔으로 고통스러워하던 헤라클레스는 자신의 죽음이 가까워 온 것 을 느꼈다. 그는 시종들에게 화장을 위한 장작더미를 준비시키고 그 위에 누웠다. 신들은 불길 속에서 그를 구하고 올림포스로 맞이했다. 그리고 헤라와도 화해를 하게되어 헤라는 그를 자신의 딸 헤베와 결혼시켰다. 헤라클레스는 마침내 신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다.

## 3.그리스 신화의 천체

그리스 신화에는 별자리가 많이 나온다. 총 88개의 별자리가 있다. 그리고 실제로 반 이상 의 별자리가 그리스 신화 속 인물에서 찾을 수 있다. 별자리의 원형은 BC3000연경에 메소 포타미아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한다. 이것이 그리스에 전해지면서 창조력이 풍부한 그리스 인들이 별자리와 신화의 등장인물을 결부시킨 것이다. 2세기의 그리스 대천문학자 프톨레마이오스는 저서에서 신화와 관련된 48개의 별자리를 소개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들 은 북반구에서만 볼 수 있는 것들로 16세기에 대항해 시대가 시작되면서 남반구의 별자리 가 만들어졌고, 1930년에 현재의 88성좌로 정리가 되었다. 물론 새로운 별자리에 얽힌 신 화는 없다. 수성 /헤르메스 /머큐리 /태양계 중에서 가장 움직임이 빠르다.

금성 /아프로디테 /비너스 /밝아서 눈에 띄지만 초저녁과 새벽에만 보인다.

지구 /가이아 /어스 /우리가 살고 있는 행성

화성 /아레스 /마스 /피처럼 붉다. 목성 /제우스 /주피터 /가장 큰 행성으로 매우 밝다.

토성 /크로노스 /새턴 /어두컴컴하고 목성 바깥쪽을 천천히 움직인다.

천왕성 /우라노스 /유러너스 /토성의 바깥쪽에서 움직인다. 해왕성 /포세이돈 /넵튠 /아름다운 푸른색을 띠고 있다. 명왕성 /하데스 /플루토 /태양계 중 지구에서 가장 멀리 있다.

## 10주

### 1.아르고호의 모험

테살리아의 한 도시인 이올코스의 왕 아이손은 아버지가 다른 형제 펠리아스의 꼬드김에 왕위 를 빼앗긴다. 이 때문에 아이손은 아들 이아손의 신상을 걱정하여 아이를 펠리온 산에 사는 케이론에게 맡겼다.

-이아손은 숙부 펠리아스에게 왕위 반환을 요구하기 위해 고국으로 돌아갔다. 펠리아스는 이 아손이 죽기를 바라며 콜키스에 있는 ‘황금 양털’을 가져오면 왕위를 돌려준다고 말했다. :흑해 동쪽 끝에 있는 콜키스에 가려면 위험한 항해를 해야 하고, 잠들지 않는 거대한 용이 지키고 있었다.

이아손은 혼자서 이 어려운 과제를 성공시키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여 우선 이 원정에 참가 할 동지들을 모집했다. 특히 헤라 여신의 도움으로 헤라클레스나 테세우스 같은 유명한 영웅 들이 원정에 참가했다. 게다가 음악가 오르페우스 등도 참가해 총원 50명의 원정대가 결성되 었다. 원정대를 실을 배는 그리스 최고의 목공 아르고스가 맡았다. 아테나의 도운을 받아 완 성된 이 배는 어떤 선박보다 거대하고 튼튼했다.

배의 이름은 아르고스의 이름을 따 아르고호라 지어졌고, 배의 선원들은 아르고호의 원정대원 이라는 뜻의 ‘아르고나우타이’라 불렸다. 아르코나우타이는 오르페우스의 수금 가락을 타고 파가사이 항을 출발했다.

-에게해를 북서쪽으로 전진한 아르고호는 렘노스 섬에 들렸다. 이 섬에는 여자들밖에 없었다. 이들은 아프로디테를 소홀히 대접했기 때문에 그 벌로 몸에서 심한 악취를 풍기게 되었다. 이 악취 때문에 남편들이 다른 여인들을 데리고 살자 모두 죽여 버렸다.

그녀들은 아르고호 일행을 환대하여 원정대를 1년 동안 섬에 머무르게 했는데, 그 결과 자식 들을 선물로 남기고 떠났다. 이아손도 섬의 여왕 힙시필레와 관계를 맺어 아들 둘을 낳았다.



-키지코스 왕의 섬에 들었을 때는 불행한 사건이 일어났다. 왕의 환대를 받은 일행은 그날 밤 항해할 때 유의할 점을 전수받고 다시 출항했다. 그러나 강한 역풍을 만나 다시 섬으로 돌아 오고 말았다. 하지만 일행은 한밤중이라 배가 다시 키지코스 섬으로 돌아온 것을 모르고 있었 다.

한편 섬 주민들은 해적이 습격한 것으로 착각하여 격렬한 전투를 벌였다. 다음날 아침 바닷가 에 쓰러져 있는 사람들은 키지코스 왕과 그 부하들이었다. 왕비 클리테는 남편의 죽음을 견딜 수 없어 목을 매 자살하고 말았다. -헤라클레스의 중도하차 아르고호는 다시 항해를 시작했는데, 얼마 안 가 헤라클레스의 노가 부러져 어느 섬에서 잠시 멈추었다. 헤라클레스가 노를 만들 나무를 찾으러 간 사이 원정길에 함께 오른 애인인 힐라스 가 샘물을 뜨러갔다. 잠시 후 힐라스가 물을 뜨는 순간 그의 외모에 반한 샘의 요정들이 그를 물속으로 끌고 들어갔다.

헤라클레스는 숲 속을 헤맸으나 찾을 수 없었다. 헤라클레스는 힐라스를 반드시 찾아야 한다 고 고집을 부렸고, 결국 그를 남겨 둔 채 출항할 수 밖에 없었다.

-피네우스와 괴물 새 아르고호 일행이 트라키아의 한 항구에 닿았을 때 그곳에서 피네우르라는 앞을 못보는 한 노 인을 만났다. 피네우스는 하르피아이라는 괴물 새의 습격에 시달려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 는 형편이었다. 하르피아이는 식사 시간이 되면 꼭 나타나 음식을 빼앗거나 똥을 떨어뜨려 음 식을 더럽히고 있었다.

일행은 그 못된 새를 퇴치하기로 했다. 이윽고 식사 시간이 되자 어김없이 괴물새가 나타났 다. 일행 중 날개를 가진 제테스와 칼라이스가 괴물 새를 맹렬히 추격해 멀리 쫓아내 버렸다. 피네우스는 이에 대한 답례로 콜키스까지 가는 길과 위험한 항로를 뚫고 나가는 방법을 가르 쳐주었다. @위험한 항로

심플레가데스라고 하는 두 개의 거대한 바위로, 가까이 다가가는 것은 무엇이든 그 사이에 끼 워서 부숴 버리는 곳이었다. 심플레가데스 ‘부딪치는 바위’라 심플레가데스 근처에 도착한 일행은 먼저 비둘기 한 마리를 날려 보냈다. 비둘기가 그 사이로 날아가자 그에 반응하여 거대한 두 바위가 굉음을 내면서 서로 맞부딪쳤다. 그러나 비둘기는 꼬리를 살짝 다쳤을 뿐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다. 바위는 반동으로 다시 열리기 시작했고, 아 르고호는 그 사이를 전속력으로 통과했다.

-이아손을 대장으로 한 아르코나우타이는 렘노스 섬과 키지코스 섬을 지나 심플레가데스까지 통과하여 콜티스에 도착했다. 아르고호 일행은 항해 끝에 드디어 콜키스에 상륙했다. 그러나 아이에테스가 자신의 보물 황금 양털을 호락호락하게 내어줄리 없었다. 더구나 그는 이방인이 콜키스의 황금 양털을 가져가면 왕위를 잃을 것이라는 신탁을 받아놓고 있었다. 아이에테스는 그래서 용에게 감시하도록 하고 근처에 가는 자들은 이유를 불문하고 처형시켰다.

-아이에테스 왕은 황금 양털을 내주는 조건을 하나 내걸었다.

@조건 청동 발굽을 한 채 코에서 불을 내뿜는 무시무시한 황소에 멍에를 씌워 땅을 갈고, 거기에 카 드모스 왕이 퇴치한 용의 이빨(테바이의 건국자 카드모스가 퇴치한 아레스의 용의 이빨, 나붕 에 이빨의 반 정도가 아이에테스 왕에게 건네졌다.)을 뿌릴 것. 게다가 이빨을 뿌린 자리에 솟 아난 무장 전사들을 모두 해치울 것.

-> 이아손을 처치하려는 계략이었으나, 이아손은 알면서도 조건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아손에게 한눈에 반한 아이에테스 왕의 딸 메데이아가 이아손의 협력자가 되었다. 사실 메데이아가 이아손을 사랑하게 된 것은 이아손을 응원하는 헤라와 아테나의 작전 때문이 었다. 여신들은 마법을 부릴 줄 아는 메데이아가 이아손에게 큰 역할을 하길 바라고 에로스에 게 부탁하여 그녀의 가슴에 황금 화살을 쏜 것이다.

-메데이아는 먼저 어떠한 불과 검에도 다치지 않는 마법의 약을 건네주었다. 이아손은 소가 내뿜는 불길에 아랑곳 하지 않고 재빨리 멍에를 씌웠다. 그런 후 땅을 갈아서 용의 이빨을 뿌 렸다. 그러자 대지에서 무장한 전사들이 솟아났다. 이아손은 메데이아가 알려준 대로 큰 돌 하나를 들어 그들 한가운데 던졌고, 전사들은 자기들끼리 싸우며 전멸했다.



-아이에테스 왕은 이아손에게 황금 양털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아르고호 일행들을 죽이려고 했 다. 이것을 눈치챈 메데이아는 이아손에게 당장 황금 양털을 가지러 가자고 재촉하면서 이렇 게 말했다.

‘용을 제가 잠들게 하겠으니, 성공하면 나를 아내로 맞이해 주세요’ 이아손은 그녀와 결혼하기로 맹세했다. 메데이아는 마법을 써서 용을 잠들게 하고 양털을 훔 쳤다. 일행은 한밤중에 서둘러 아올코스로 출항했다.

-아이에테스는 아들 압시르토스에게 추격하라고 명령했다. 아르고호는 포위되고 말았고, 메데 이아는 화해를 할 것처럼 제 동생 압시르토스를 유인한 후 죽이고 콜키스 함대가 혼란스러워 지는 틈에 도망가자는 계획을 이아손에게 내놓는다. 메데이아는 이아손을 위해 압시르토스를



죽인 후 시체를 토막 내 바다에 뿌렸다. 이올코스로 돌아온 이아손은 펠리아스에게 황금 양털 을 건네주었다. 하지만 펠리아스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 왕위를 물려받지 못했다. 이에 이아손 은 복수를 결심하고 메데이아가 마법의 힘으로 돕는다.

-메데이아는 펠리아스의 딸들이 보는 앞에서 늙은 양을 잘게 잘가 약초가 든 가마솥에 넣고 삶았다. 그러나 다시 꺼낼 때 그 양이 어린양으로 회춘해서 나오는 마법을 보여주었다. 메데 이아는 사람도 다시 젊게 만들 수 있다고 딸들을 꼬드겼다.

딸들은 아버지 펠리아스를 젊어지게 하려고 아버지의 몸을 잘게 토막 내서 가마솥에 넣었다. 하지만 메데이아가 준 것은 가짜 약초였고 펠리아스는 죽게 되었다. 이렇게 복수를 달성하지 만 펠리아스를 살해한 죄로 이올코스에서 쫓겨났다.

-코린토스로 도망간 두 사람은 크레온 왕의 환대를 받았다. 둘은 아들 둘을 얻고 행복한 나날 을 보내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아손에게 크레온 왕의 딸 글라우케와의 결혼 이야기가 들어왔다. 이로써 코린토스에서 큰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한 이아손은 승낙했다. 그리 고 크레온 왕은 메데이아를 나라 밖으로 쫓아내라고 명령했다.

-메데이아는 증오심에 결혼 축하선물이라면서 독을 바른 옷을 글라우케에게 보냈다. 옷을 입 자 옷에서 불길이 타올라 딸을 구하려고 감싸 안은 크레온 왕도 함께 죽었다. 메데이아는 두 아들도 죽이더니 그 유해를 껴안고 날개 달린 용이 이끄는 마차(조부 헬리오스로부터 물려받 았다고 한다.)를 타고 도망쳤다. 절망한 이아손은 각지를 방황하다가 자살했다고도 하고, 아르 고호의 썩은 나무 기둥에 머리를 맞아 죽었다고도 한다.

#### 2.테세우스의 모험

-아테나이의 왕 아이게우스에게는 후계자가 없어 델포이를 방문하여 자식을 얻을 수 있는 방 법을 신탁으로 청했다. 신탁은 ‘아테나이에 도착할 때까지 술 주머니를 열지 말지어다.’라고 일렀다. 아이게우스는 돌아가는 길에 현자로 명성이 높은 트로이젠의 피테우스 왕에게 조언을 구했다.

->피테우스 왕은 ‘아테나이로 돌아가면 자식이 생긴다.’라는 의미로 파악했다. 아테나이 왕이 될 영웅의 탄생을 알리는 신탁이었던 것이다. 피테우스는 아이게우스를 술에 취하게 만든 후 자신의 딸 아이트라를 보냈다. 이 사실은 알게 된 아이게우스는 아이트라에게 만약 남자 아이 가 태어나면 아버지의 이름과 신분을 밝히지 말고 키워 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큰 바위 밑 에 칼과 샌들을 숨겨 놓은 그는 이런 말을 남기고 아테나이로 돌아갔다. 이윽고 아이트라는 남자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테세우스였다.

-16세가 되어 아버지에 대해 알게 된 테세우스는 칼과 샌들을 찾게 되고 아버지의 나라 아테 나이를 향해 길을 떠났다. 그 당시는 가는 곳마다 산적과 도적이 출몰하였다. 테세우스는 길



을 가는 도중 잇달아 악당들을 퇴치하여 아테나이에 들어갈 때까지 6가지의 큰 모험을 겪었 다.

1. 페리페테스

테세우스는 먼저 ‘곤봉의 사나이’라 불리던 페리페테스를 만났다. 그는 팔 힘이 무척 강해 거 대한 곤봉으로 지나가는 행인들을 잔인하게 때려죽이고 물건을 빼앗곤 했다. 테세우스는 격투 끝에 곤봉을 빼앗아 악당을 때려 눕혔다. 이 곤봉은 테세우스의 상징이 되었다.

1. 시니스

그는 소나무 두 그루를 굽혀 그 사이에 사람을 묶었다가 다시 나무를 튕겨 사람의 몸을 찢어 죽였다. 테세우스는 시니스를 그가 행하던 수법 그대로 찢어 죽였다.

1. 파이아

테세우스는 파이아라는 사나운 암퇘지를 잡아 죽였다. 이 암퇘지는 티폰의 자식으로 그 지방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었다.

1. 스키론

테세우스는 가파른 절벽에 닿았다. 이곳에는 스키론이라는 악당이 있었는데, 그는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아 자기 발을 씻게 한 뒤 걷어차 절벽 아래 바다로 떨어뜨리곤 했다. 사람들은 큰 거북이에게 잡아먹혔다. 테세우스는 스키론의 다리를 잡아 아래 바다로 떨어뜨렸다.

1. 케르키온

그는 행인들에게 레슬링을 강요하여 상대가 지쳐 죽을 때까지 시합을 계속했다, 테세우스는 그를 어깨 위로 들었다가 땅바닥으로 내던져 버렸다.

1. 프로크루스테스 그는 행인들을 자기 집에 묵게 하고는 침대의 크기에 맞춰 자르거나 잡아당겨 죽였다. 테세우 스는 같은 수법으로 프로크루스테스를 죽였다.

>미노스 왕

-테세우스는 무사히 아테나이에 도착해 아이게우스의 왕궁으로 왔다. 그런데 아이게우스의 옆 에는 메데이아가 있었다. 그녀는 자기가 낳은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려 하고 있었다. 메데이 아의 꼬드김에 넘어간 아이게우스는 테세우스를 죽이려고 마라톤의 미친 황소(헤라클레스의 12가지 과업)를 퇴치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테세우스는 어려움 없이 황소를 잡아서 돌 아왔다.

-메데이아는 연회석상에서 테세우스의 술에 독을 섞어 죽이려 했다. 위기의 순간에 아이게우 스는 아들이 차고 있는 칼을 보고 술잔을 낚아채 던져 버렸다. 메데이아는 아테나이에서 쫓겨 났다.

-테세우스가 왕위를 잇게 되자 반란이 일어났다. 테세우스가 오기 전까지 아이게우스에게는 후계자가 없어 형제인 팔라스의 아들들이 왕좌를 노리고 있었다. 이들은 50명이나 되었는데, 갑작스레 출현한 테세우스의 왕위 승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팔라스의 아들들은 두 패로 나누 어 한 패는 왕궁을 공격하고, 한 패는 매복해 있다가 테세우스를 죽이기로 작전을 짰다. 그러 나 계략을 알게 된 테세우스는 먼저 기습을 하고 팔라스의 아들들은 죽거나 도망쳤다. -아테나이에는 매년 크레타의 미노스 왕에게 젊은 남녀 7명씩을 공물로 바치도록 되어 있었

다. 그들은 괴물 미노타우로스의 산 제물이 될 운명이었다. 사건의 발단은 미노스 왕의 아들 안드로게오스가 아테나이로 초대되어 왔을 때 이곳 사람들에게 살해된 데 있다. -격노한 미노스 왕은 함대를 거느리고 아테나이로 쳐들어갔다. 당시 아테나이에는 전염병이 돌고 있었기 때문에 싸울 형편이 아니었다. 미노스는 강화 조건으로 산 제물을 공물로 강요했 고, 아테나이는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사정을 알게 된 테세우스는 미노타우로스를 퇴치하기로 결심하고 스스로 산 제물의 일원이 될 것을 자청했다. 산 제물들을 데려가는 배에는 슬픔을 표시하는 검은 돛을 달았는데, 만일 테세우스가 일을 성공하고 살아 돌아오면 흰 돛으로 바꿔달기로 했다.

>미노타우로스

-미노스는 형제들과 크레타의 왕위자리를 놓고 다툴 때 이렇게 주장했다.

‘내가 바로 신들에 의해 이 나라를 부여받은 자다. 그 증거로 신들은 나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이다.’

이 말을 입증하기 위해 그는 해신 포세이돈에게 바다 속에 있는 황소를 보내달라는 소원을 빌 고, 그 황소를 신들에게 제물로 바치겠노라고 약속했다. 포세이돈이 이 소원을 받아들려 아름 답고 근사한 황고를 보내주었는데, 이로 인해 미노스는 크레타의 왕이 될 수 있었다. -미노스는 이 근사한 황소가 탐이 나 감추러 두고는 신들에게 바치지 않았다. 포세이돈은 크 게 화가 나 황소를 난폭하게 만들었다. 거기에다가 미노스의 아내 파시파에로 하여금 황소에 대한 욕정을 품도록 했다. 파시파에는 그리스 최고의 명장 다이달로스에게 마음속의 고민을 털어놓았다.

-다이달로스는 진짜 소의 가죽을 덮어씌운 나무 암소를 만들어주었다. 그것은 실로 진짜 암소 를 방불케 하는 모습이었다. 파시파에는 그 나무 암소 안에 숨어들어 황소와 관계를 맺고 정 욕을 풀었다. 이렇게 해서 태어난 것이 머리는 소이고 목 아래는 인간인 미노타우로스였다. 미노타우로스는 미노스의 소라는 뜻이다.

-미노타우로스를 본 미노스 왕은 놀랍고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다이달로스에게 명하 여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 없는 미궁 라비린토스를 짓게 하고, 그 안에 괴물을 넣어 가두 었다. 아테나이에거 제물로 보내져 온 젊은이들은 바로 이 미궁에 들어가 괴물의 먹이가 되었 다.

-라비린토스는 매우 복잡하고 정교하게 설계되어 그 안에 갇히면 그 누구도 통로나 출구를 찾 기 어려웠다. 가령 용감한 테세우스가 미노타우로스를 쓰러뜨린다 해도 이 미궁에서 빠져나오 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 라비린토스는 미궁 또는 미로를 의미하게 되었으며, 훗날 미 궁의 기원이 되었다. 유럽에서는 왕궁 등의 궁전이나 성의 통로에 라비린토스와 같은 미로를 많이 사용하게 되었다. >테세우스와 아리아드네 테세우스를 비롯한 아테나이의 젊은이들을 태운 배가 마침내 크레타 섬에 도착했다. 미노스의 딸인 아리아드네는 그중에서 가장 늠름하고 아름다운 청년 테세우스에게 첫눈에 반했다. 그날 밤 아리아드네는 감옥에 갇힌 테세우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한다.

‘나를 데려가 아내로 맏이 한다고 약속해 주신다면 미궁에서 탈출할 방법을 알려 드리겠어요.’ -테세우스가 그녀의 뜻을 받아들이자 아리드네는 실타래를 건네주었다. 그 실의 한 쪽 끝을 입구에 묶어 두고, 실을 풀면서 미궁 속으로 걸어 들어가라는 것이었다. 일행의 선두에 건 테 세우스는 실을 풀면서 미궁 안으로 들어갔다. 이윽고 미궁 깊숙한 곳에서 미노타우로스와 마 주치게 되었다. 그 무시무시한 모습에 모두 겁을 먹고 뒷걸음질 치는 가운데 테세우스는 혼자 서 용감하게 괴물을 주먹으로 쳐서 쓰러뜨렸다.

-테세우스는 다시 실을 따라 왔던 길로 되돌아갔다. 미궁에서 탈충한 일행은 서둘러 배에 올 라타고 귀국길에 올랐다. 항해 도중에 배는 낙소스 섬에 기항했는데, 이때 아리아드네가 혼자 남겨지게 되었다. 디오니소스 신의 이야기에 따르면, 낙소스 섬을 지나던 디오니소스가 아리 아드네에게 사랑을 느껴 테세우스에게 그녀를 남겨두고 떠나라고 명령했다고 한다. 그래서 어 쩔 수 없이 테세우스는 그녀가 잠든 사이에 배를 출항시켰다는 것이다.

-테세우스는 아테나이로 향하고 있었는데, 검은 돛을 흰 돛으로 바꿔 달겠다고 한 아버지와의 약속을 잊었다. 아크로폴리스의 언덕에서 검은 돛을 단 배를 본 아이게우스는 아들이 죽은 줄 로만 알고 절벽 아래 바다에 몸을 던져 버렸다.

-> 이후에 그 바다는 아이게우스의 바다, 즉 에게해라고 불리게 되었다.

>부인과 아들의 죽음

-테세우스는 여전사 아마존족의 나라로 원정을 떠났는데, 그 전과로 여왕 히폴리테를 사로잡 아 귀국하여 부인으로 삼았다. 그런데 히폴리테는 테세우스와의 사이에 아들 히폴리토스를 낳 고는 그만 죽고 만다.

-시간이 흘러 히폴리토스는 처녀 신 아르테미스를 숭배한 반면 사랑과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를 경시했다. 분노한 아프로디테는 엄중한 벌을 내린다. 그 무렵 테세우스는 아리아드네의 동 생 파이드라와 재혼을 한 상태였다. 아프로디테는 파이드라에게 의붓아들 히폴리토스를 향한 미칠 듯한 사랑의 감정을 심어 주었다.

-파이드라의 유모가 히폴리토스네게 그녀의 마음을 전하자 그는 거절을 할 뿐만 아니라 파이 드라를 비난했다. 파이드라는 수치심에 ‘히폴리토스에게 여자로서의 수치를 당했다.’라는 거짓 유서를 남기고 자살을 해 버린다.

-테세우스는 화가 나서 아들을 멀리 추방시켰을 뿐만 아니라 포세이돈에게 자식을 죽여 달라 고 빌기까지 했다. 불행히도 히폴리토스가 궁전에서 쫓겨나 해변으로 마차를 달릴 때 포세이 존이 보낸 괴물이 바다에서 나타나 마차를 전복시켜 히폴리토스는 말고삐에 휘감겨 죽고 말았 다. 나중에 아르테미스로부터 사건의 진상을 알게 된 테세우스의 낙담은 매우 컸다.

>명계에 내려간 테세우스

-테세우스는 슬픔에 잠겨 있었지만 머지않아 친구 페이리토오스와 함께 새로운 아내를 맞이하 기로 했다. 테세우스는 스파르타의 공주 헬레네를, 페이리토오스는 명계의 왕비 페르세포네를 빼앗으려는 어처구니없는 야망을 갖고 있었다.

-둘은 힘을 합쳐 헬레네를 납치하는데 성공했다. 이어 페르세포네를 데려오기 위해 무모하게



도 명계로 내려갔다. 명계의 왕 하데스는 이들의 속셈을 알아채고 우선 의자에 앉으라고 했는 데, 그것은 ‘망각의 의자’였다. 둘은 의자에 앉자마자 기억을 모두 잊어버려 지상에 돌아오는 일조차 잊어버렸다. 이들은 후에 헤라클레스가 마지막 과업으로 명계의 파수견 케르베로스를 잡으러 왔을 때까지 명계에 앉아 있다가, 간신히 테세우스만 구출되었다.

-아테나이로 돌아온 테세우스는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유괴된 헬레네를 탈환하려고 스파르타 군 이 쳐들어온 데다, 새로 왕위를 노리는 자도 등장하여 수습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결국 아 테나이에는 새로운 왕이 즉위하고 테세우스는 먼 곳으로 추방되었다. 테세우스는 아무런 희망 도 없이 혼자서 쓸쓸한 말년은 보내다 최후에는 벼랑에 떨어져 죽고 말았다. -그러나 훗날 테세우스는 아테나이의 기반을 다진 영웅이자 통치자로 널리 숭배된다. 그 이유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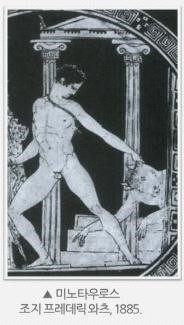
BC5세기 마라톤 전투 때 그리스인들은 신탁에 따라서 테세우스의 유골을 스키로스 섬에거 아 테나이로 옮겼다. 이때 신전에 안치되었는데, 그 후 아테나이에서는 신과 비슷한 존재로 테세 우스를 여기게 되었다. 참고로 고대 아고라의 유적에 남겨진 헤파이스토스 신전이 예전에는 테세이온(테세우스의 신전)으로 여겨졌다. 사후에 다시 영웅으로서 대접받게 된 것이다.

#### 3.미노스와 에우로페(유럽)

-미노타우로스가 갇혀 있다고 믿었던, 다이달로스가 설계했다고 전해지는 라비린토스는 1900 년 3월부터 6년간 크레타의 크노소스 궁을 발굴해 낸 영국인 에번스(1851-1942)에 의해 발견 되었다. 크노소스 궁전 지하에서 발견된 라비린토스는 테세우스 신화의 라비린토스가 공허한 상상의 산물을 아니었다는 것을 충분히 입증했다.

-사실 라비린토스가 실재했다는 것보다도 지식인들의 관심을 사로잡은 것은 소로 변신한 제우 스의 등에 업혀 크레타로 간 에우로페가 제우스와 관계하여 낳은 아들 미노스가 기원전 255 년경에 그곳에서 미노아 문명을 일구어냈다는 사실이었다.

-문명의 창건에서 항상 동양에 우선권을 주었던 유럽의 지식인들로서는, 40세기 이상 크레타 섬에서 숨 쉬고 있는 문명을 발견함으로써 동양의 거대한 문명들과 겨룰 수 있는 유럽의 기원 을 찾아낸 셈이었다. 지식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유럽인들은 이제 미노스의 어머니 에우로페 (유럽)에게서 자신들의 자랑스러운 기원을 찾아낼 수 있게 되었다.



## 11주

### 1.테바이 건국 신화

>카드모스의 출생과 모험

천상에서 인간들의 모습을 지켜보던 제우스는 어느 날 지중해 동쪽 바닷가에서 페니키아 왕 아게노르의 딸인 에우로페를 발견했다. 연정을 느낀 제우스는 헤라에게 들키지 않도록 하얀 황소로 둔갑하여 에우로페에게 다가갔다.

-해변에서 놀던 에우로페는 아름다운 황소를 발견하고 호기심에 이끌렸다. 그녀는 황소가 너 무나 아름다워 자기도 모르게 황소를 쓰다듬으며 꽃을 꺾어서 하얀 코끝에 꽂아주었다. 황소 는 기뻐서 그녀의 손에 키스를 하는 듯한 행동을 보여주었다.

-에우로페는 소의 하얀 등에 올라탔고, 황소는 점점 속도를 내서 그대로 바다를 헤엄쳐 건너 크레타 섬에 상륙했다. 본래 모습으로 돌아온 제우스는 에우로페와 사랑을 나누었다.



-한편 페니키아의 왕 아게노르는 아들들(카드모스, 포이닉스, 킬릭스)에게 온 세상을 뒤져서라 도 에우로페를 찾아오라고 명했지만 세 아들은 누이를 도무지 찾을 수 없었다. 결국 세 아들 은 에우로페를 찾을 때까지 귀국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새로운 땅에 정착 하게 된다. 이로 인해 아게노르는 생전에 두 번 다시 아들들을 만나지 못했다. -한편 카드모스는 먼저 황소를 제우스에게 제물로 바치기로 했다. 그래서 제물을 씻기 위해 시종들에게 물을 길어오라고 보냈다. 가까운 숲으로 들어간 시종들은 동굴 벽에서 맑은 샘물 이 솟아나오는 것을 발견했다. 하지만 그 샘은 아레스 신의 소유로 인간들이 다가가서는 안 되는 곳이었다.

-시종들은 동굴에 숨어 있던 용(아레스의 아들이라고도 한다.)에게 살해당하고 말았다. 카드모 스는 늦게까지 돌아오지 않는 시종들을 찾아 숲으로 들어갔는데, 그곳에는 시종들의 시체가 널려있었다. 분노한 카드모스는 용을 죽이게 된다. 아테나 여신이 나타나 ‘용의 이빨을 뽑아서 대지에 뿌리서라’라고 말한다. 용의 이빨을 땅에 뿌리자 무장한 사나이들이 솟아나왔다. 카드 모스가 얼른 이 무리에 돌을 던지자 사나이들은 서로를 의심하고 서로를 죽이기 시작했다. 싸 움이 끝나가 5명이 남았다. 스파르토이(씨 뿌려 나온 사람들)인 강자 5명과 함께 도시를 건설 했는데 그곳이 바로 테바이이다. 카드메이아->테바이의 시초

-테바이의 왕이 된 카드모스는 제우스의 명으로 아레스와 아프로디테의 딸 하르모니아를 아내 로 맞이했다. 이 결혼은 많은 신들이 축복을 받았다. 카드모스는 페니키아의 알파벳을 처음으 로 그리스에 도입했다고 전해진다.

2.오이디푸스 >신탁과 운명 -테바이의 왕 라이오스(카드모스의 증손)는 먼 친척 이오카스테와 결혼하지만 ‘아들에게 살해 당한다.’라는 신탁을 받았다. 이 때문에 아내와의 잠자리를 멀리했지만, 술에 취해 아내를 임 신시켰다. 신탁의 실현을 두려워한 라이오스는 갓난아기의 발꿈치에 굵은 못을 찔러 걸을 수 없게 만들었다. 그리고 한 양치기에게 갓난아기를 키타이론 산(테바이와 아티카 지역의 경계) 에 버리라고 명했지만 아기는 코린토스에 사는 양치기를 거쳐 코린토스의 왕에게 전달된다. -자식이 없던 왕과 왕비는 매우 기뻐하며 이 아이를 오이디푸스(부은 발이라는 뜻)라 이름 짓 고 소중하게 키웠다.

어느 날 오이디푸스는 자신이 코린토스 왕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이상한 소문을 듣고 진상을 확인하기 위해 코린토스 왕과 왕비에게 물었지만 강력하게 부인했다. 그래서 델포이로 가서 신탁을 청했다.

-신탁은 오이디푸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아내로 맞이할지어 다.’라는 말만 했는데, 오이디푸스는 코린토스 왕과 왕비의 말을 믿고 천륜을 어기는 죄를 피 하기 위해 코린토스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떠났다.

>신탁의 성취

-오이디푸스는 코린토스 방향과 정반대로 걸었는데 그 길은 테바이로 이어지는 길이었다. 어 느 세 갈래 길에서 말 두 마리가 끄는 마차와 마주친다. 마차 위에는 어떤 노인이 타고 있었 고, 주위에는 시종일행이 따르고 있었다. 길이 좁아서 서로 비껴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때 시종 중 하나가 오이디푸스에게 명령조고 비키라고 했고, 오이디푸스는 비키지 않았다. 화가 난 노인이 오이디푸스에게 채찍을 마구 휘둘렀다. 오이디푸스는 지팡이로 힘껏 쳤고, 노 인을 죽였는데 이 노인이 바로 오이디푸스의 아버지였다.

-이윽고 오이디푸스는 테바이에 당도한다. 테바이는 스핑크스가 나타나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 었다.

@스핑크스는? 사자의 몸, 여자의 얼굴과 가슴, 큰 날개를 가진 괴물/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 에게 수수께끼를 내서 풀지 못하면 잡아먹었다.

-라이오스 왕이 죽은 후 섭정으로 테바이를 대신 지배하고 있던 크레온은 스핑크스의 수수께 끼를 푸는 자에게 왕위와 왕비 이오카스테를 주겠다는 약속을 했다. 오이디푸스는 스핑크스에 게 도전하여 그 수수께끼를 풀었다.

-아침에는 네 발, 낮에는 두 발, 저녁에는 세 발로 걷는 것 - 인간 스핑크스는 굴욕감을 느껴 골짜기에 몸을 던졌다고 한다.

-오이디푸스는 테바이의 왕위에 오르고, 친어머니라는 사실도 모른 채 이오카스테를 아내로 맞이하였다. 그는 에테오클레스와 폴리네이케스라는 두 아들과 안티고네와 이스메네라는 두 딸까지 낳게 되었다.

>오이디푸스의 비극

-오이디푸스가 왕이 된 후 얼마 동안 평화로웠지만, 시간이 흐르자 흉년이 들어 기근이 생기 고, 무서운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다. 이에 오이디푸스는 델포이에서 ‘선왕 라이오스를 살해한 범인을 찾아내 테바이에서 추방하면 평온해질 것이다.’라는 신탁을 받았다.

-오이디푸스는 선왕 라이오스를 살해한 범인을 찾아 나섰다. 그는 먼저 테바이의 최고 예언자 테이레시아스를 불러 범인을 찾는 데 도움을 구했다. 그는 장님이었지만, 탁월한 능력이 있었

다. 오이디푸스가 범인인 것을 간파하고 있었던 테이레시아스는 왕의 입장을 생각하여 범인을



찾는 일을 거부했다.

-테이레시아스의 태도에 화가 난 오이디푸스는 엉뚱한 사람을 몰아세웠다.

‘네가 범인이기 때문에 진상을 말하지 못하는 것이냐?’ 이에 테이레시아스는 흥분하여 범인이 왕, 당신이라고 말한다.

-자신이 범인이라는 정황만 확인하고 혼란에 빠지게 된다. 왕비 이오카스테는 남편을 달래주 려고 다음과 같은 말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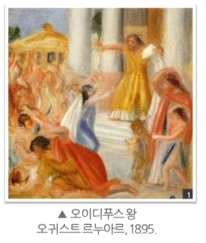
‘예언자의 말 같은 건 신경 쓸 게 못 됩니다. 예전에 라이오스는 아들에게 살해된다는 예언을 받았는데,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발뒤꿈치를 못으로 찔러 산 속에 버리게 했답니다. 그래서 라이오스는 아무 걱정 없이 지냈지만 세 갈래 길에서 도적들에게 살해당했다. 그러니 예언의 말을 믿을 수 있겠어요?’

-오이디푸스는 이오카스테의 말에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그때 마침 코린토스의 왕이 죽었다. 코린토스에서는 사자를 보내어 그에게 왕위에 오를 것을 부탁했다. 그러나 코린토스의 왕비가 자신의 어머니라고 믿고 있던 오이디푸스는 불길한 신탁을 떠올리면서 부탁을 거절했다. 그러 자 사자는 오이디푸스가 코린토스 왕의 친자식이 아니라고 밝혔다.

-라이오스가 살해될 당시 함께 있었던 시종을 찾아냈을 때 라이오스를 살해한 진범이 다름 아 닌 오이디푸스라는 사실과 오이디푸스가 라이오스와 이오카스테의 아들이었음이 명백하게 밝 혀졌다.

-백성의 존경을 받고 있던 오이디푸스는 한순간에 가장 추악한 인간이 되었다. 그의 아내이자 어머니였던 이오카스테는 목을 매 자살하고, 오이디푸스는 진실을 알아보지 못한 자신의 두 눈을 못으로 찔러 장님이 되었다. 테바이에서 추방되어 딸 안티고네와 함께 방랑길에 나선다.

-장님이 된 오이디푸스는 테바이에서 추방되어 딸 안티고네와 함께 방랑길에 나선다. 모든 사 람들이 그를 손가락질 하고 피할 때 딸만은 끝까지 아버지를 보살폈다. 여러 나라를 정처 없 이 헤매던 이들은 이윽고 아테나이 근처의 콜로노스 마을에 당도했다.



>테바이의 혼란

-한편 오이디푸스가 쫓겨나 왕위가 비게 되자 그의 아들들은 왕위를 두고 싸웠다. 아버지를 자기편으로 만드는 쪽이 승리를 얻을 것이라는 신탁을 받은 그들은 번갈아가며 콜로노스에 왔 지만 오이디푸스는 강하게 거절했다. 그 후 천둥과 번개가 치던 어느 날 오이디푸스는 홀연 지상에서 모습을 감췄다.

-그의 아들들은 1년마다 번갈아가며 테바이를 다스리기로 협정을 맺고, 먼저 형인 에테오클레 스가 왕좌에 올랐다. 그러나 형인 에테오클레스가 왕위를 독점하기 위해 동생 폴리테이케스를 추방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아르고스로 도망간 폴리네이케스는 아드라스포스 왕의 딸과 결혼했다. 그리고 왕권을 찾기 위해 장인의 지원을 받아 일곱 명의 장군(테바이 공략 7장군)과 함께 테바이로 공격해 들어갔 다.

-폴리네이케스와 함께 7장군은 테바이의 일곱 성문을 하나씩 맡아 전투를 벌였지만, 결말이 나지 않았다. 그래서 에테오클레스와 폴리네이케스 형제릐 일대일 승부로 판가름 재기로 했느 데, 이 둘 모두 죽고 말았다. 그 후 다시 전투가 벌어진 끝에 테바이 군이 승리하였고, 이 과 정에서 크레온의 아들 메노이케우스가 희생되었다.

>안티고네의 죽음

-테바이의 왕위에 오른 크레온은 에테오클레스의 시신을 수습하여 장례를 치러주었다. 그러나 조국을 공격한 폴리네이케스를 역적으로 몰아 그 시체를 들판에 내버려 두었다. 또한 그의 장 례를 치르는 자에게는 엄벌을 내리겠다고 선포했다. 하지만 안티고네는 폴리네이케스의 유해 를 수습해 매장했다. 크레온 앞에 끌려나온 그녀는 ‘죽은 자는 반드시 묻어 주어야 하는 법은 신들이 정한 일입니다’ 라고 하다가 크레온에 의해 동굴 속에 갇혔는데 그곳에서 스스로 목을 매 죽었다.



-크레온은 테이레시아스의 말을 듣고 안티고네를 풀어주려고 했으나 이미 늦었다. 크레온의 아들 하이몬은 약혼자였던 안티고네의 죽음을 슬퍼하다 자살하고, 하이몬의 어머니인 에우리 디케도 죽었다.

-10년 후 알크마이온을 비롯한 아르고스 7장군의 후예들이 다시 원정을 와서 결국 테바이는 함락되었다. 이들은 폴리네이케스의 아들을 왕으로 세웠지만, 테바이는 이미 황폐해진 뒤였다.

### 3.아트레우스 가의 전설

>펠롭스와 히포타메이아의 결혼

-피사의 왕 오이노마오스는 사위의 손에 죽으리라는 신탁을 받고 자신의 딸과 히포다메이아와 결혼하고자 하는 사람과 목숨을 내놓는 조건으로 전차경주를 했다. 그럴 때마다 경주에 진 자 들은 목이 잘렸다. 히포다메이아는 아름다웠기 때문에 도전자들이 줄을 이었다. 하지만 이 전 차 경주는 도전자에게 승산이 없었다. 오이노마오스 왕은 아레스에게 받은 무기와 갑옷, 명마 가 있었기 때문이다.

-프리지아의 왕 탄탈로스의 아들 펠롭스는 포세이돈에게 받은 날개 달린 전차를 갖고 있었다. 잘생긴 펠롭스에게 반한 히포다메이아는 그가 승리하기를 바랐다. 그래서 왕의 마부 미르틸로 스를 매수하여 전차에 미리 손을 써 놓음으로써 왕은 전차의 바퀴가 빠져 경주 도중 왕의 전 차에서 바퀴가 빠졌고 오이노마오스는 말고삐에 휘감겨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고 말았다. -펠롭스는 히포다메이아를 아내로 맞았다. 그런데 마부 미르틸로스도 그녀를 사랑하고 있었 다. 미르틸로스는 기회를 노려 히포다메이아를 덮치려고 했지만, 펠롭스에게 발견되어 살해되 었다. 낭떠러지에서 밀려 떨러진 미르틸로스는 펠롭스와 그 자손에게 저주를 남겼다. 이 저주 에 의해 펠롭스의 자손들은 혈족 간에 끊임없는 다툼이 일어나고 근친상간이 벌어지며, 잔인 한 복수와 비극적 죽을이 잇따른다.

-한편 피사의 왕이 된 펠롭스는 주변 여러 나라를 차례차례 제압하고 반도 전체를 손에 넣게 되었다. 펠로폰네소스 반도 -> ‘펠롭스의 섬’이라는 뜻

-또한 그는 죽은 오이노마오스 왕을 기리기 위해 제우스의 성지 올림피아에서 성대한 장례 경 기를 열었다.

>아트레우스와 티에스테스의 싸움

-펠롭스는 히포다메이아 사이에 많은 자식을 두었다. 그런데 크리시포스는 펠롭스가 님프 악 시오케와 관계를 맺어 태어난 아들이었다. 그는 외모가 뛰어나고 총명하여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었다.

-히포다메이아는 이런 크리시포스를 먼 곳으로 보내려다 실패하자, 기어코 친아들 아트레우스 와 티에스테스를 시켜 살해한다. 이 일로 인해 히포다메이아와 두 아들은 나라에서 추방되었

다. 그들은 미케나이의 스테넬로스 왕에게 몸을 맡기게 되었다. 얼마 후 스테넬로스와 그의 아들 에우리스테우스가 잇달아 죽자, 미케나이의 주민들에게 펠롭스의 두 아들 중에서 왕을 뽑으라는 신탁이 내려졌다.

-아트레우스와 티에스테스는 형제이면서도 서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강리지 않고 왕권을 다투 었다. 결국 아트레우스가 왕의 자리를 차지하고 티에스테스는 추방당했다.

-왕위 다툼이 한창이었을 때 아트레우스의 아내 아에로페는 티에스테스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

다. 왕위에 오른 후 아트레우스는 이 사실을 앍소 복수하기 위해 화해를 하자며 티에스테스를 불러들였다. 그리고 몰래 동생의 자식들을 죽인 다음 갈기갈기 찢어 솥에 넣고 삶았다. 그리 고는 그 살로 음식을 만들어 티에스티스에게 내놓았다. 티에스티스가 음식을 다 먹어치웠을 때 아트레우스는 자식을의 머리를 보여 주었다. 티에스티스는 그 자리에 쓰러졌다. 자식을 잃 고 추방당한 티에스테스는 형에게 복수할 것을 다짐했다. 그리고 신탁에 따라 자신의 딸 펠로 피아와 신분을 감추고 관계를 맺는다.

-아트레우스는 동생의 딸인 줄도 모르고 아이를 갖게 된 펠로피아를 아내로 맞이하여 아이기 스토스를 낳는다. 성장한 아이기스토스는 아트레우스로부터 티에스테스를 죽이라는 명을 받는 다. 그러나 티에스테스가 자신의 친부임을 알게 된 그는 도리어 아트레우스를 죽여 복수를 이 룬다. 그리고 티에스테스를 미케나이의 왕으로 추대했다.

### 4.아가멤논

>아가멤논과 트로이아 전쟁

-아트레우스의 아들 아가멤논은 숙부 티에스테스를 왕좌에서 끌어내고 미케나이의 왕이 되었 다. 아가멤논은 그리스 대부분의 지역을 장악했다고 한다.

-아가멤논의 동생 메넬라오스는 스파르타의 공주 헬레네와 결혼하였는데 트로이아의 왕자 파 리스와 함께 도망가는 사건이 일어나 아가멤논은 트로이아를 정복할 기회로 삼는다. -아가멤논은 그리스의 여러 폴리스에서 군대를 소집하여 그리스 군의 총사령관으로 트로이아 전쟁에 출정했다. 그리스 군의 함대가 출발하던 날, 바람이 멈춰 버려 배가 꼼짝도 할 수 없 게 되었다. 이때 예언자 칼카스의 말대로 아가멤논은 딸 이피게네이아를 아르테미스 여신에게 희생 제물로 바쳐 무사히 출항할 수 있었다. 아가멤논은 아르테미스 여신의 숲에 들어가 사슴 을 사냥한 일이 있었다. 노여움을 산 그는 대가로 그 해에 태어난 가장 아름다운 아이를 바치 겠다고 했다. 그러나 그 아이가 바로 자신의 딸이었던 것이다.

-아가멤논이 원정을 나간 사이, 트로이아 전쟁이 수년 동안 계속되자 딸을 제물로 바친 남편 을 원망하는 클리타임네스트라와 아트레우스가에 원한이 있는 아이기스토스는 애인관계가 되 어 아가멤논의 암살을 꾀한다. 시간이 흘러 아가멤논이 개선하자, 클리타임네스트라는 환대하



는 척 하다가 아가멤논이 탕에 들어가 있을 때, 남편을 향해 도끼를 내리쳐 죽이고 말았다.



>엘렉트라와 오레스테스

-아가멤논이 죽은 후 아이기스토스가 미케나이의 왕이 되었다. 아가멤논은 아들 오레스테스와 딸 엘렉트라가 있었는데 아들은 다른 나라의 친척에 맡겨지고, 딸은 왕궁에 유폐되었다. 세월 이 흘러 오레스테스는 복수를 위해 친어머니를 살해하는 행위가 용서받을 수 있는지 델포이에 가서 물어보기로 했다.

-신탁으로부터 ‘복수하라’라는 대답을 들었다. 고국에 돌아온 오레스테스는 아버지의 무덤 앞 에서 엘렉트라와 재회하고, 자기가 죽었다는 헛소문을 퍼뜨렸다. 그리고는 나그네 행색을 하 고 왕궁에 잠입하여 아이기스토스와 클리타임네스트라를 죽였다.

-아버지의 복수를 성취한 오레스테스는 친어머니를 살해한 자신의 죄를 견디지 못하고 미쳐 버린다. 복수의 여신 에리니에스가 그에게 벌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후 아폴론의 도움으로 오레스테스는 아테나이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다. 피고는 오 레스테스, 원고는 에리니에스, 변호인은 아폴론, 재판장은 아테나, 배심원은 아테나이에서 뽑 은 12명의 시민이었다. 이 장면은 아테나이의 민중 법정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 배심원의 투표결과 유죄 6표, 무죄 6표였다. 그래서 재판장이 판결을 내리게 되었는데, 아테나 여신에 의해 무죄가 선고됐다.



### 5.오이디푸스 콤플렉스와 엘렉트라 콤플렉스

-소포클레스의 비극 “오이디푸스 왕”의 주인공 오이디푸스는 신탁이 두려워 운명을 피하려고 하지만 그대로 이루어진다. 오이디푸스의 아내이자 어머니이기도 했던 이오카스테는 ’지금까 지 많은 사람들이 꿈속에서 어머니와 동침을 해왔어요‘라는 말을 무심결에 내뱉는다. -정신분석학의 시조 프로이트는 이오카스테의 이 대사에서 영감을 얻어 연구의 핵심이 되는 이론을 완성시켰다고 한다.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남자 아이는 어머니에게 애정을 갖기 때문에 아버지를 미워하며 적대시한다. 모든 콤플렉스의 밑바닥에는 이것이 깔려 있다고 주장한다.

프로이트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올바로 극복해야 정상적으로 성장한다고 보고, 신경증환자 는 이 콤플렉스의 극복에 실패한 사람이라고 했다.

~엘렉트라 콤플렉스~

여자 아이가 아버지에 대해 깊은 애정을 갖고 어머니에게 반감을 품는 경향은 엘렉트라 이야 기에서 이름을 따와 ‘엘렉트라 콤플렉스’라 한다. 이것은 프로이트의 제자였던 융이 붙인 이름 이다. 3-5세의 여자 아이는 남성을 부러워하고 어머니를 원망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한다. 이 러한 욕구는 점점 성장을 하면서 어머니의 여성적 가치를 인정하여 자기와 동일시하고, 초자 아가 형성되면서 사라지게 된다.

## 12주

### 1.세 여신들의 미모 대결

>테티스의 결혼식

-어느 날 펠리온 산(테살리아 지방에 있는 산, 반인반마 켄타우로스 족이 살고 있다.)의 성대 한 결혼식이 열리고 있었다. 바다의 여신 테티스와 펠레우스(아이기나 섬 아아코스의 아들, 섬 에서 추방당한 후 테살리아 지방으로 이주하여 살고 있었다.)결혼식에는 인간은 물론, 올림포 스 신들까지도 참석하고 있었다.

-이전에 제우스와 포세이돈은 남몰래 테티스를 마음에 두고 있었다. 테티스는 매우 매력적이 었고, 특이 발이 아름다워 ‘은빛 발’이라 불리고 있었다. 그러나 프로메테우스의 다음과 같은 예언이 제우스의 마음을 돌렸다.

‘만일 테티스가 신의 아이를 낳는다면 아버지를 능가하는 존재가 될 것이다.’ -예언을 들은 제우스와 포세이돈은 권좌가 흔들릴 것을 염려하여 테살리아 지방 프리티아의 왕 펠레우스를 테티스의 남편감으로 골랐다.

-펠레우스는 테티스의 승낙을 얻어내기 위해 바닷가에 가 앉았다. 드디어 테티스가 솟아올랐 다. 펠레우스는 테티스에게 말을 걸며 다가가서 팔로 여신을 꼭 껴안았다. 놀란 여신은 갖가 지 형태로 변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펠레우스는 신들이 귀띔해 준 대로 꼭 껴안고 풀어주지 않았다. 그래야만 테티스가 유혹에 넘어온다는 것이었다.

-여신은 갖가지 형태로 변하더니 커다란 오징어로 변해 먹물을 쏘아대면서 도망가려 했다. 하 지만 펠레우스는 깍지를 풀지 않았고 마침내 테티스는 청혼을 받아들였다.



-결혼 장소인 펠리온 산은 신들과 인간들이 만날 수 있는 장소이자 반인반마 켄타우로스 족이 사는 애매한 곳이기도 했다. @케이론 켄타우로스들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유명한 케이론은, 잔인하고 야만적이며 초인적이기도 한 동료들보다 훨씬 현명하고 용기 있고 모든 미덕을 갖춘 인물로 거의 모든 영웅들을 길러낸 훌륭한 스승이다. 그는 사냥, 무술, 노래, 춤, 자신을 다스리는 법, 추리 등을 가르쳤다. 나중 에 펠레우스와 테티스에게서 태어나는 아킬레우스도 그에게 배운다. 테티스는 인간과 결혼하 는 최초의 여신이 되었다.

-결혼식에는 모든 신들이 초대되었다. 그러나 유일하게 불화의 여신 에리스만은 초대받지 못 했다. 매우 화가 난 에리스는 결혼식을 방해하려고 축하연 자리에 황금사과를 하나 던져 놓았 다. 그 사과에는 ‘가장 아름다운 여신에게’라는 글귀가 씌어져 있었다.

-올림포스 여신들은 누구 하나 뒤떨어지지 않는 미모를 가지고 있었다. 특히 헤라, 아테나, 아 프로디테 세 여신은 한 치의 양보도 없이 각기 자신이 사과의 주인이라고 주장했다.

-신들은 한 여신의 편을 들면 다른 두 여신으로부터 미움을 살 것이 뻔했기 때문에 판정할 수 없었다. 제우스는 공정한 심판을 부탁받았지만 분쟁에 말려들고 싶지 않았다. 생각 끝에 그는 자신이 직접 판정하는 것을 피하고, 대신 프로이아의 왕자인 파리스에게 심판을 맡긴다 고 선언했다. @파리스

트로이아의 이데 산에서 양치기 노릇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파리스는 트로리아 왕 프리아모 스와 왕비 헤카베의 막내아들로서 어렸을 때는 알렉산드로스라고 불렸다. 파리스를 낳기 직전 헤카베는 트로이 시에 불을 지르는 횃불을 낳는 꿈을 꾸었다. 왕비는 곧 예언가 또는 해몽 전 문가인 친척에게 이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었다. 그는 이 아이가 트로이의 멸망을 몰고 올 것이며 도시는 불바다가 되어 멸망할 거라고 했다.

왕과 왕비는 나라를 위해 아이를 없애기로 했다. 하지만 아이를 차마 직접 죽일 수는 없어 내 다 버리기로 했다. 프리아모스는 아이를 목동에게 주고 아무것도 먹이지 말고 인간들 세계에 서 멀리 떨어진 야생의 장소이자 젊은 예비 영웅들이 용기와 인내를 단련하는 고독한 장소인 산에다 버리라고 일렀다. 아이를 버리는 것은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저세상으로 보내는 방법 이기는 하지만, 우연히 시련을 이겨내고 훌륭한 자진을 갖추고 살아날 때가 간혹 있다. 버려진 파리스는 얼마 동안 곰의 젖을 먹고 자랐다. 그러다가 목동들이 아이를 발견하고 데려 다 키웠는데 아이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었다. 그래서 목동들은 아이를 ‘보호받는 자’라는 뜻 의 알렉산드로스라고 불렀다. 아이의 부모가 지어준 파리스라는 이름을 그들이 알 리가 없었 다.

여러 해가 지나 어느 날 왕궁의 밀사가 왕의 가축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황소를 데려가려고 왔다. 왕 내외가 버린 아이의 제사에 제물로 쓰기 위해서였다. 밀사는 가장 아름다운 소를 하 나 골랐는데 마침 그 황소는 알렉산드로스가 가장 아꼈던 소로, 그는 황소를 따라가 구출해야 겠다고 마음먹었다.

왕궁에선 고인의 명복을 비는 제사가 치러지는 한편 고인을 추모하는 놀이와 운동 경기도 함 께 거행되었다. 알렉산드로스는 달리기, 권투, 레슬린, 원반던지기 등에 참가하여 프리아모스 왕의 아들들과 트로이의 젊은 청년들을 모두 제압했다. 사람들은 이 강하고 멋진 젊은 목동이 누구인지 궁금해 했다.

프리아모스의 아들 중 하나인 데이포보스는 경기에서 진 게 분해서 이 침입자를 죽이기로 마 음먹고 제우스 신전에 피신한 파리스를 쫓아간다. 신전에는 아폴론에게서 예언술을 배운 카산 드라가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예언을 믿지 않아 그녀는 불행했다. 그녀는 추격해 달 려온 데이포보스에게 이 미지의 청년은 자신들의 동생 파리스라고 일러주었다. 알렉산드로스 버려질 때 입고 있던 배내옷을 보여주었다. 왕비 헤카베는 미친 듯이 기뻐했고, 이제는 늙어 어진 왕이 된 프리아모스는 아이를 되찾아 대단히 흡족해 했다.

>세 여신과 파리스

-세 여신은 헤르메스의 안내를 받아 이데 산에 있는 파리스 앞에 내려섰다. 파리스는 이미 왕 가에서 제자리를 찾은 다음이었다. 그러나 목동으로 어린 시절을 보낸 경험 때문에 그는 가축 떼를 돌보는 습관이 있었다.

-여신들은 트로이아의 왕자인 파리스에게 가서 최고의 미인의 선정을 요구한다. 헤라/아시아 전역의 통치권을 주겠다.

아테나/누구보다 뛰어난 승리와 지혜를 선사하겠다. 아프로디테/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를 차지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결국 파리스는 아름다운 여인과의 행복한 기쁨을 누리고 싶어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 을 주겠다고 약속한 아프로디테를 선택했다. 아프로디테가 황금 사과의 주인이 되었다. 이후 파리스는 제일의 미녀 헬레네를 손에 넣게 된다. 하지만 이것은 트로이아 전쟁의 원인이 된 다.



### 2.트로이아 전쟁의 발단

>헬레네, 스파르타의 왕비

-헬레네의 어머니는 스파르타의 왕비 레다이고, 아버지는 제우스이다. 레다는 원래 스파르타 왕 틴다레오스의 아내였는데, 어느 날 제우스의 사랑을 받게 되었다. 레다가 목욕을 하고 있 을 때 백조로 둔갑한 제우스가 다가와 그녀와 관계를 맺은 것이다.

-그때 레다는 이미 인신을 한 상태였다. 이윽고 달이 차자 레다는 2개의 알을 낳았다. 하나는 제우스가 아버지였고, 다른 하나는 스파르타의 왕 틴다레오스가 아버지였다. 알에서는 각각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헬레네는 제우스의 자식 중 한 명이였다. 이때 함께 태어난 클리타임네 스트라는 틴다레오스의 자식이었다. 이처럼 헬레네는 그 출생부터 예사롭지 않았다. -헬레네의 아름다움은 어릴 때부터 유명했다. 가장 아름다운 여인으로 일컬어졌던 헬레네가 결혼할 나이가 되자 그리스 내의 많은 왕족뿐 아니라 영웅, 귀족들이 구혼을 하러 몰려들었 다.

-스파르타의 왕궁은 최고의 미인과 결혼하기 위한 구혼자들로 문정성시를 이루었다. 급기야는 서로를 죽이는 일까지도 마다하지 않는 사태까지 이르렀다. 이 때문에 틴다레오스는 심각한 고민에 빠지고 말았다. 더구나 구혼자 중 한 사람을 택하면 남은 자들에게 위협을 당할까 두 려웠다. -> 이 사태를 수습한 인물이 구혼자 중 하나였던 오디세우스이다.

@오디세우스 이타케 섬의 왕으로 호메로스의 서사시 ‘오디세이아’의 주인공이다. 지략이 뛰어나고 트로이아 전쟁에서도 큰 활약을 한다.

오디세우스의 제안 : 헬레네가 누구를 선택하든 원망하지 말 것. 헬레네의 남편으로 선택된 자가 해를 입을 경우에는 구혼자들 모두 나서서 도와줄 것

-결국 헬레네는 강국 미케나이의 왕자이자 아가멤논의 동생 메넬라오스를 남편으로 선택했다. 구혼자들 간에 이미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아무도 다른 마음을 품을 수 없었다. 이후 메넬라 오스는 틴다레오스의 뒤를 이어 스파르타의 왕이 되었다. 이들은 스파르타 왕궁에서 별다른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다.

>헬레네와 파리스의 야반도주

-어느 날 트로이아의 왕자 파리스가 아프로디테의 인도를 받아 스파르타 왕궁을 방문했다. 헬 레네가 메넬라오스와 결혼해 잘 살고 있을 때 메넬라오스와 이미 알고 지내던 파리스가 찾아 온 것은 모두 아프로디테의 각본에 의한 것이다. 아프로디테가 헬레네로 하여금 젊은 파리스 를 사랑하게 하여 트로이로 떠나게 만드는 일은 어렵지 않았다.

-당시 파리스는 트로이아의 사절단 일행으로 스파르타와 평화 협정을 맺기 위해 간 것이었다. 메넬라오스는 파리스 일행을 환대했지만, 파리스의 목적은 헬레네를 트로이로 데려가려 하는 것이었다.

-기회를 엿보던 그는 때마침 메넬라오스가 조부의 장례식으로 왕굴을 비운 사이를 틈타, 헬레 네를 설득시켜 트로이아로 도주한다. 헬레네가 파리스와 눈이 맞아 딸 헤르미오네도 남겨둔 채 트로이로 떠난다. 파리스는 헬레네뿐만 아니라 스파르타의 귀중한 재산과 보물도 훔쳐 돌 아갔다.



3.그리스군의 출정 >그리스 연합군 결성 -아내 헬레네를 빼앗긴 메넬라오스는 분노하여 이전의 구혼자들과 형 아가멤논에게 헬레네가 있는 트로이아로 보낼 원정군을 조직해 달라고 부탁했다. 우선 적절한 대응을 취하자는 것이 중론이었다. 문제를 평화롭게 해결하기 위해서, 무력을 사용하기 전에 먼저 메넬라오스와 오 디세우스가 트로이로 가서 사태를 원만하게 해결하여 상호 평화 관계가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다.

-오디세우스는 협상 사절의 임무를 띠고 트로이에 도착했다. 프리아모스의 아들 데이포보스가 평화롭게 해결하기 원하여 그리스 사절이 참석한 가운데 트로이의 원로회가 열렸다. -원로회에 참석한 프리아모스 왕의 친척들은 어떤 타협도 할 수 없으며 그리스 사절을 살려 보내선 안 된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데이포보스가 그들을 보호하고 나서서 무사하긴 했지 만, 그들은 아무 성과 없이 그리스로 돌아왔고 그리스는 무력을 동원할 수밖에 없었다. -아가멤논이 동생의 부탁을 받아들여 그리스 전역에 지원군을 요청하자 많은 군대가 몰려왔 다. 아가멤논은 만장일치로 그리스 원정군의 총사령관이 되었다.

-그리스 원정군은 헬레네를 빼앗아 간 것을 응징하기 위해서 결성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트 로이아를 정복하기 위한 야심도 있었다. 당시 강력한 해상 세력으로 부상한 트로이아가 그리 스에게 눈엣가시였던 것이다.

>오디세우스의 참전

-오디세우스는 처음에는 출정을 회피하려 했다. 아름다운 아내 페넬로페이아와의 사이에서 아 들을 낳은 지 얼마 안 되어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기 때문이다.

-오디세우스는 자신을 데리러 온 사자인 네스토르를 쫓아내려고 미친 사람처럼 행동했다. 그 는 나귀에다 쟁기를 매고 어처구니없게도 해변의 소금밭을 갈았다. 그러나 네스토르는 오디세 우스의 의중을 꿰뚫어 보고 그의 아들을 데려다 놓았다. 이에 오디세우스는 쟁기를 거둘 수밖 에 없었고 연기가 들통 나서 원정군에 합류하게 되었다.

>아킬레우스의 참전

-아킬레우스의 늙은 아버지 펠레우스는 하나밖에 남자 않은 아들 아킬레우스가 전쟁에 나갈까 봐 전전긍긍이었다. 펠레우스는 테티스와 사이에서 몇 명의 아이들을 낳았지만, 테티스가 아 이들을 불사의 몸으로 만들려고 불에다가 아이들을 담가 부패의 원인인 몸속 습기를 제거하려 다 아이들이 그만 모두 죽고 말았다. 아킬레우스가 태어나자 펠레우스는 테티스가 아이를 불길에 집어넣을 때 달려들어 낚아챘다. 하지만 아이의 발목뼈는 이미 불에 닿아 못쓰게 되었다. 펠레우스는 켄타우로스족의 케이론을 찾아가 죽은 켄타우로스의 시체에서 발목을 떼어내어 어린 아킬레우스의 발에 이식했다. 그래 서 아킬레우스는 어려서부터 빨리 달릴 수 있었다.

테티스는 아킬레우스를 불에 담근 것뿐만 아니라 지옥의 스틱스 강에 넣었다고 한다. 이승과 저승을 가르는 이 강물에 몸을 담그고 나온 사람은 뛰어난 용기와 미덕을 갖추게 되기 때문이 다. 이때 테티스가 잡고 있던 발목을 제외한 아킬레우스의 온 몸이 스틱스 강물에 단련되었

다. 아킬레우스는 발이 매우 빠르고, 발목을 제외하면 부상당할 염려가 없었다. -아킬레우스는 케이론에게 양육되어 그리스 최강의 전사가 되어 있었다. 그는 싸움에 관한 최 고의 기술을 연마하게 되었다. 그때 같이 수련하던 사람 중에 파트로클로스도 있었는데, 아킬 레우스보다 나이는 많았지만 아주 가까운 친구가 되었다. ^아킬레우스가 출정하면 전장에서 죽는다는 예언이 있었다.

-아들의 운명을 알게 된 펠레우스와 테티스는 원정군의 권유를 위한 방법을 궁리했다. 그래서 아들을 여장시켜서 스키로스 섬의 리코메데스 왕(아테나이의 영웅으로 테세우스를 바다에 밀 어서 떨어뜨려 죽인 인물)에게 보내 왕의 딸들과 함께 지내게 했다. 아직 사춘기가 오지 않은 그는 수염이 나지 않아 여자 옷을 입으면 젊은 여자 같아서 왕의 딸들과 어울려 놀아도 표가 나지 않았다.

-그리스군은 아킬레우스가 꼭 필요했다. 아킬레우스 없이는 트로이아를 함락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때 오디세우스는 아킬레우스가 숨어있다는 소문을 듣고 상인으 로 변장하고서 리코메데스 왕의 궁전으로 찾아 갔다.



-50명이나 되는 처녀들이 있었지만 아킬레우스는 눈에 띄지 않았다. 오디세우스는 등에 멘 바 구니를 내려놓고 여성용 장신구를 쭉 늘어놓았다. 모든 처녀들이 달려들어 물건들을 살펴보는 데, 한 처녀만이 무관심한 표정으로 구석에 앉아 있었다.

-그것을 본 오디세우스는 바구니에서 단검을 하나 꺼냈다. 그러자 구석에 있던 처녀가 단검으 로 달려왔다. 바로 아킬레우스였다.



-그때 벽 뒤에서 전쟁 시작을 알리는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여자들만 사는 동네에서 49명 의 처녀들은 옷가지를 정신없이 챙겨 도망가는데, 단 한 명만이 단검을 손에 들고 나팔 소리 가 나는 쪽으로 걸어 나갔다. 이를 눈치 빠르게 찾아낸 오디세우스는 출정하자고 아킬레우스 를 끈질기게 설득했다.

-원래부터 아킬레우스는 영웅으로 이름을 남기고 싶어 했다. 그는 자신의 용기와 힘을 시험해 보고 싶었고, 테티스의 반대를 무릅쓰고 원정에 참가했다.

>그리스 함대의 항해

-그리스 연합군의 첫 원정은 상륙 지점을 잘못 찾아 되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8년 후 병력을 다시 모아 아울리스 항에 집결한 그리스 연합군을 이번에는 바람이 불지 않아 꼼짝 못하게 되 었고, 예언자 칼카스가 시키는 대로 아가멤논의 딸 이피게네이아를 제물로 바쳐 겨우 트로이 로 향할 수 있었다. 이때 한 척당 50-120명이 탈 수 있는 배가 모두 1186척이나 동원되었다. 대략 10만 명이나 되는 대군이었다.

-크레타 섬에서도 80척의 배들이 참전했으며, 아가멤논은 100척의 배를 동원하여 가장 많은 병력을 참전시켰다. 많은 지휘관들의 이름과 배의 숫자는 그 지방의 명예를 높여주는 전거 -그리스 함대의 항해는 순조로웠다. 그러나 렘노스 섬에 기착했을 때 명궁 필록테테스가 뱀에 물렸는데, 그 상처는 점점 악화되어 지독한 악취를 풍기며 병사들을 괴롭혔다. 그는 그리스군 의 짐이 되었고 오디세우스의 제안에 따라 그를 버리고 떠난다.

사람도 별로 살지 않는 섬에 혼자 버려진 필록테테스는 그리스 군이 몇 년 후 트로이를 마지 막으로 공략할 때 없어서는 안 되는 인물로 부각되고, 그리스 군의 운명이 그들이 매정하게 버렸던 필록테테스의 손에 달려있게 되는 아이러니가 펼쳐진다.

### 4.트로이아 이야기

-트로이아는 비옥하고 풍요로운 도시였다. 트로이아는 그 비옥함과 풍요 덕분에 생산의 기능 을 충분히 수행한 도시라 할 수 있다. 트로이아는 스카만드로스 강과 시모이스 강이 만나는 기름진 들판에 트로스 왕의 아들 일로스가 세운 도시로, 처음에는 ‘일리온’이라고 불렀다. -도시가 세워진 지 얼마 후 제우스는 일로스의 풍성한 제사와 정성에 응답하고, 자신의 총애 와 보호를 입증하기 위해 아테나-팔라스 여신상, ‘팔라디온’이라고 불리는 이 여신상을 그에게 보냈다. 일로스는 그것을 숭배하기위해 아테나 신전을 세웠다. 이 여신상이 트로이아에 있는 한, 트로이는 적의 침략에 함락되지 않는 신비로운 힘을 갖게 된다.

-일로스는 아들 라오메돈과 딸 테미스테를 낳는데 아들은 프리아모스의 아버지가 되고, 딸은 앙키세스를 낳아 아이네이아스의 할머니가 된다. 일로스는 프리아모스와 아이네이아스로 대표 되는 트로이아의 두 왕가의 시조가 된다.

-일로스의 뒤를 이어 왕권을 잡은 라오메돈은 아폴론과 포세이돈의 도움을 받아 성벽을 세웠

다. 그러나 그들에게 약속한 임금을 주지 않았다. -> 트로이의 재난을 자초한 첫 번째 약속 위반

-분노한 포세이돈은 트로이아 사람들은 잡아먹게끔 괴물을 보냈고, 라오메돈은 포세이돈의 분 노를 가라앉히기 위해 그 괴물에게 자신의 딸 헤시오네를 제물로 바쳐야 했다. 때마침 헤라클 레스가 트로아스를 지나던 참이라 라오메돈은 딸을 구해 달라고 청했다.

-헤라클레스는 딸을 구해 주는 대가로, 제우스가 트로스의 아름다운 아들 가니메데스를 납치 한 대가로 준 불사의 말 한 쌍을 달라고 했다. 라오메돈은 좋다고 응답했지만 막상 헤라클레 스가 딸을 구해 오자 약속한 말을 주지 않았다. -> 두 번째 약속 위반

-그러자 격노한 헤라클레스가 아이아스의 아버지 텔라몬과 함께 트로이아를 공격해 점령하고 라오메돈과 그의 아들들을 죽였다. 이때 처음으로 트로이가 파괴되었다. 이때 왕의 딸 헤시오 네가 헤라클레스에게 간청해 어린 포다르케스는 죽음을 면했다.

-그는 자라서 프리아모스라는 이름으로 불렸고 헤라클레스는 그에게 트로이아 왕국을 넘겨주 었다. 프리아모스 덕분에 트로이는 영토를 넓히고 번영했다. 프리아모스는 헤카베와 결혼하여 헥토르, 파리스, 카산드라, 데이포보스 등 열아홉 명을 낳았다.

-프리아모스는 그리그 군에게 침략당해 결국 멸망하는 운명의 길을 걷고, 아이네이아스는 로 마를 건국하는 시조로 융성하는 운명의 길을 간다. 그리스 군이 트로이를 공격할 때 그는 이 미 너무 늙어 참전할 수 없어서, 아들 헥토르를 대장으로 삼고 자신은 회의만 주재했다.



### 5.필론이 선정한 세계 7대 불가사의

-최초로 ‘세계 7대 불가사의’를 발표한 사람은 BC2세기경 비잔티움의 필론이다. 그가 선정한 7대의 불가사의 중에는 그리스 신들과 관련된 것도 몇 가지 있다.

1)올림피아의 제우스 상(그리스) : 전체 길이 12m의 좌상으로 신전에 안치되어 있었다. 파르 테논 신전의 총 지휘를 맡았던 거장 페이디아스가 제작했다.

2)로도스 섬의 헬리오스 상(그리스) : 전체 길이 36m의 거상으로 서 있는 자세였다. 3)에페소스의 아르테미스 신전(터키) : 파르테논 신전의 2배에 가까운 규모였지만 현재는 기중 하나만 남아 있다.

4)기자의 피라미드(이집트) : 쿠푸 왕을 비롯한 3왕의 무덤으로서 BC2500년경에 세워졌다. 7

대 불가사즤 중에서 유일하게 현존

5)알렉산드리아 등대(이집트) : 전체 높이 120m

6)할리카르나소스의 영묘(터키) : 카리아 왕국의 왕과 여왕의 장대한 무덤으로서 높이가 42m 나 되었다고 한다.

7)바빌론의 공중정원(이라크) : 7층 계단식의 테라스 정원으로서 급수 시스템을 설치해 테라스 위에는 식수가 무성하게 자랐다고 한다.

## 13주

### 1. 트로이아 정복전쟁

>10년 전쟁

-트로이아에 도착한 그리스 군은 해변에 상륙했다. 그리스 군은 장기전을 예상하고 바닷가에 막사를 지어 진영을 만들었다.

‘전쟁을 10년간 계속될 것이다.’ -예언자 칼카스

-그 말대로 도착한 뒤 9년 동안 지지부진이었다. 트로이는 그리스의 10만 대군에 대항하여 1 만 명으로 추정되는 병력으로 싸웠지만, 아마도 동맹군을 포함하면 전체 병력을 최대 5만 명 에 이를 것이다.

-트로이아 군의 총대장을 헥토르로서 트로이아는 그를 중심으로 전투 준비를 마쳤다. 이윽고 첫 전투가 벌어졌는데, 아킬레우스의 활약으로 그리스 군은 승리를 거두었다. 트로이아 군은 성 안으로 쫓겨 들어갔다.

-그 후 트로이아의 성 밑에 펼쳐진 스카만드로스 평원에서 날마다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다. 하지만 양군의 세력은 팽팽하여 일진일퇴를 거듭했고, 트로이아의 성문은 매우 견고하여 함락 시키기 어려웠다. 그렇게 전쟁을 10년째를 맞이했다.

-그러난 사이 그리스 군은 트로리아를 공략하지 못한 대신 인근의 다른 국가들을 공격하여 식 량과 가축, 여자들을 약탈하고 있었다. 이때도 아킬레우스가 앞에 나서서 전투를 승리로 이끌 고, 획득한 전리품과 포로들을 나누어 가졌다.

-그리스 군은 트로이의 서북쪽 해안과 스카만드로스 강 사이의 들판에 진을 쳤다. 그들은 자 신들이 타고 온 배들을 해안으로 끌어올려 질서 정연하게 정렬시켜 2차 방어벽 역할을 하게 하는 한편, 진지 최전방에 커다란 벽을 쌓고 그 앞에 도랑을 파놓아 몇 겹의 방어선을 구축했 다.

>아가멤논에 대한 아킬레우스의 분노

-어느 날 포로로 잡혀온 여성을 둘러싸고 아킬레우스와 아가멤논 사이에 언쟁이 일어났다.

\*호메로스의 ‘일리아스’는 이 장면부터 시작된다.

-아가멤논은 아폴론 신궁의 딸 크리세이스를 포로로 얻었다. 그는 아름다운 크리세이스에 무 척 흡족해하며 아내인 클리타임네스트라보다 좋다고 말하곤 했다. 며칠 후 크리세이스의 아버 지가 그리스군 진영으로 찾아와 딸을 돌려달라고 부탁하면서 막대한 몸값을 지불하겠다고 제 안했다. 그러나 아가멤논은 거절했다.

-거친 대접을 받으며 내쫓긴 크리세이스의 아버지는 아폴론 신께 그리스 군에게 보복해 줄 것 을 기원했다. 아폴론 신은 이를 받아들여 전염병이 돌게 했고 많은 병사들이 희생되기 시작했 다.

-이때 예언자 칼카스가 그 원인을 밝혀내고, 크리세이스를 아버지에게 돌려보내지 않는 한 전 염병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일렀다. 아킬레우스도 칼카스의 말을 지지하였다. 아가멤논은 크리세이스의 반환을 마지못해 승낙하지만, 심술을 부려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내세운다. ‘대신 아킬레우스가 손에 넣은 브리세이스라는 처자를 데려오너라! 무엇이든 빼앗아 주마!’ -이 말이 아가멤논과 아킬레우스가 다투게 된 사건의 발단이었다.

@브리세이스 아킬레우스가 트로이아 인근 도시를 공격했을 때 잡아온 여성으로 매우 아름답고 마음도 고왔 다고 한다. 그런 그녀를 아킬레우스는 무척 아꼈다.

-아킬레우스는 아가멤논이 제멋대로 구는 처사에 화가나 말다툼을 벌인다. 그러나 어쩔 수 없 이 총사령관 아가멤논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결국 아가멤논은 브리세이스를 빼앗았고, 명예가 훼손된 아킬레우스는 전투에서 몸을 빼고 말았다. 그는 더 이산 전투에 나가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리스 순이 큰 피해를 입어도 꿈쩍도 하지 않았다.



-트로이아 전쟁에서는 올림포스의 신들도 두 편으로 갈려 대립하였다. 전쟁 상황을 둘러싸고 언쟁을 벌이고, 각자가 응원하는 편을 도와주기도 했다.

그리스군 -선택을 받지 못한 헤라, 아테나, 포세이돈, 헤파이스토스 트로이아군 - 아프로디테, 그녀의 애인 아레스, 아폴론, 아르테미스 -이렇게 신들의 의도까지 뒤섞여 양군의 전세가 동요되었다.

-제우스는 기본적으로 중립을 지키는 입장이었지만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방침을 바꿨다. 그 는 될 수 있으면 전쟁을 길게 끌려고 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너무 많이 늘어난 인간의 수 를 줄이기 위한 좋은 기회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느 날 아킬레우스의 어머니 테티스가 와서 다음과 같은 부탁을 했다.

‘트로이아군을 우세하게 만들어서 저 그리스 군에게 아킬레우스의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 게 해 주세요. 아가멤논이 아킬레우스에게 한 짓을 뉘우치게 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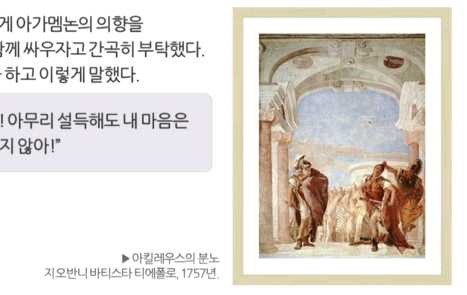
-제우스는 잠시 망설였지만 인간계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그리고 사랑했던 테티스를 위해 이 소원을 들어주기로 했다. 실제로 아킬레우스의 빈자리는 매우 컸는데, 여기에 제우스가 트 로이군에게 힘을 실어 주기까지 하자 그리스 군은 점차 패전을 거듭하게 되었다.

>아킬레우스의 복귀

-트로이아 군은 아킬레우스가 이탈한 것을 알고 프리아모스 왕의 장남 헥토르를 중심으로 이 전보다 더욱 격렬하게 공격을 했다. 그리스 군은 후퇴만 거듭하고 병사들도 지쳐갔다. 그리스 군의 장군들은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아킬레우스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아가멤논도 마침내 아킬레우스에 대한 자신의 무례를 인정하고 화해의 뜻으로 최고의 선물을 준비하라고 일렀다. 여기에는 브리세이스를 되돌려주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다. 아가멤논은 즉 시 오디세우스를 비롯한 세 명의 사자를 아킬레우스에게 보냈다.

-오디세우스는 아킬레우스에게 아가멤논의 의향을 전달하면서 다시 전장에서 함께 싸우가고 간곡히 부탁했다. 그러나 아킬레우스는 정색을 하고 “선물 같은 건 필요 없네! 아무리 설득해 도 내 마음은 변하지 않아!”

-아킬레우스에 대한 설득은 실패로 끝나고 그리스군은 패색이 짙어져 갔다. 파트로클로스는 친구 아킬레우스와 함께 전선을 이탈해 있었지만, 이 어려운 상황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그래서 아킬레우스를 대신해서 싸울 것을 결심했다. 아킬레우스의 갑옷과 투구를 입고 전장에



나가면 적은 자신을 아킬레우스라 생각하여 두려움에 떨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다시 그리스 군이 우위에 설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 것이다.

-예상대로 트로이아 군은 아킬레우스의 갑옷과 투구를 몸에 걸친 파트로클로스를 보자마자 겁 을 먹고 도망쳤다. 그는 이 혼란을 틈타 트로이아의 병사들을 잇달라 쓰러뜨렸고, 마침내 트 로이아 성까지 몰고 들어갔다. 파트로클로스는 맹활약을 해 사르페돈을 죽였다. -그런데 너무 적진 깊숙이 쫓아 들어간 것이 문제였다. 그때 트로이아의 총사령관 헥토르가 파트로클로스를 향해 공격을 해왔다. 아폴론 신의 비호를 받은 헥토르는 창으로 파트로클로스 의 아랫배를 찔러 숨통을 끊어 놓았다. 그리고 그의 갑옷과 투구를 빼앗아 자신이 입는다. 파 트로클로스의 죽음을 알게 된 아킬레우스는 매우 슬퍼하며 분개했다. 그리고 친구의 복수를 위해 드디어 출전을 결심한다.

-어머니 테티스는 아들을 염려해 다시 전장에 나가는 것을 말렸지만 아킬레우스의 결심은 확 고했다. 테티스는 설득을 포기하고 아들을 위해 새 갑옷과 투구를 만들어 주었다. 이는 대장 장이 신 헤파이스토스에게 특별히 부탁하여 만든 것으로 어떤 무기도 뚫은 수 없을 만큼 강력 한 것이었다. 테티스는 아들에게 그가 적을 죽이면 얼마 안 있어 그도 죽게 된다는 것을 알려 주었다.

-아가멤논은 오디세우스의 중재로 브리세이스를 아킬레우스에게 돌려주고 두 사람은 화해한 다. 아킬레우스는 새 갑옷과 투구를 몸에 걸치고 곧바로 전쟁터로 나갔다. 전장에 복귀한 아 킬레우스는 이전보다 더욱 맹렬한 기세로 잇달아 적들을 쓰러뜨렸다.

### 2.영웅들의 죽음

>트로이아의 영웅, 헥토르의 최후

-제우스가 신들은 전쟁에 개입하지 못하게 해도 별로 성과가 없었다. 아킬레우스의 참전으로 전투가 격렬해지자 전장에서 아레스와 아테나, 아르테미스와 헤라, 아폴론과 포세이돈, 레토와 헤르메스가 서로 충돌하기도 했다.

-아킬레우스에게 트로이아 군은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었다. 머지않아 트로이아의 병사들은 모두 성안으로 도망쳐 들어갔고 아킬레우스는 마침내 성문 앞까지 당도했다. -성문 앞에는 단 한사람 헥토르만이 도망치지 않고 아킬레우스를 기다리고 있었다. 노왕 프리 아모스는 아들에게 성 안으로 들어오라고 소리쳤지만, 헥토르는 그 말을 듣지 않고 과감히 전 투에 도전하려고 했다. 그는 아킬레우스에 당당히 맞서 싸워 자존심을 지키고 싶었다.

-막상 아킬레우스 앞에 선 헥토르는 공포에 짓눌려 맞대결을 피하고 도망치기 시작한다. 두 사람은 성벽 주위를 쫓고 쫓기면서 돌아다녔다. 두 사람의 이런 양상이 4주째로 접어 들었을 때 제우스가 ‘운명의 저울’을 꺼내 운명을 미리 점쳐보았다.

한쪽에는 헥토르의 죽음의 운명을 다른 한쪽에는 아킬레우스의 죽음의 운명을 올려놓았다. 헥 토르의 운명의 추가 훨씬 무거워 하데스의 왕국 쪽으로 기울어졌다.

-운명이 결정되었을 때 헥토르의 발도 멈추어 섰다. 그리고 헥토르는 칼을 뽑아 들고 마지막 있는 힘을 다해 아킬레우스에게 덤벼들었다. 그러나 아킬레우스에게는 역부족이었고, 그의 갑 옷을 뚫을 수는 없었다.

-큰 창을 들고 있던 아킬레우스는 헥토르의 머리 쪽을 겨냥했다. 그리고는 갑옷이 벌어진 작 은 틈으로 창을 찔러 넣었는데, 그 창은 헥토르의 목을 그대로 관통하고 말았다. 이렇게 트로 이아의 최고 명장 헥토르는 최후를 맞이했다. 숨을 거두기 직전 헥토르는 아킬레우스 역시 곧 뒤따라 죽게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숨을 거두었다.



-아킬레우스는 헥토르의 갑옷을 벗겼다. 그리고는 양발 뒤꿈치에 구멍을 낸 다음 가죽 끈으로 전차 뒤에 매달아 트로이아 성 주위를 세 바퀴 돌았다. 성 누각에서 지켜보던 헥토르의 부모 는 머리를 쥐어뜯고 가슴을 치며 한탄했다. 헥토르의 시체를 끌고 그리스군 진영으로 돌아온 아킬레우스는 파트로클로스의 무덤으로 가서 친구의 혼을 위로했다.

-아킬레우스는 매일 날이 밝으면 전차에 헥토르의 시신을 매달로 파트로클로스의 무덤 주위를 세 번 돌고 막사로 돌아오곤 했다. 헥토르를 가엽게 여긴 아폴론은 시신이 상하지 않도록 보 호했으며, 헥토르가 죽은 지 12일째 되는 날 신들을 모아놓고 아킬레우스의 잔인함을 비난하 여 신들 사이에 언쟁을 불러일으켰다.

-제우스는 테티스를 불러 아킬레우스를 설득해 프리아모스가 주는 몸값을 받고 헥토르의 시신 을 넘겨주게 하라고 부탁했다. 어느 날 밤, 트로이아의 연로한 왕 프리아모스가 막대한 몸값 을 갖고 아킬레우스의 막사를 찾아왔다.

-이때 제우스가 프리아모스 왕에게는 아킬레우스를 찾아갈 수 있는 용기를 불어넣어 주고 헤 르메스를 시켜 그리스 진영의 길 안내를 맡겼다. 프리아모스는 아킬레우스로부터 따뜻한 대접



을 받고, 아킬레우스에게 헥토르의 장례를 치르는 11일 동안은 휴전하고 12일째 되는 날부터 전투를 재개하자고 부탁했다.



-아킬레우스는 결국 헥토르의 유해를 돌려주었다. 그리고 헥토르의 장례 기간에는 휴전을 하 기로 약속했다. 막사에서 하룻밤 자고 다음 날 아침에 떠나라고 권하는 아킬레우스의 청에 프 리아모스는 잠자리에 들었는데, 헤르메스가 나타나 아들의 시신을 갖고 어서 빨리 적진을 벗 어나 트로이 성으로 돌아가라고 질책하는 바람에 늦은 밤에 서둘러 막사를 떠났다. -헥토르의 유해가 돌아오자 트로이아 시민들은 깊은 애도에 잠겼다. 특히 헥토르의 아내 안트 로마케와 노모 헤캅, 딸들, 헬레네 등 헥토르를 에워싼 여자들의 슬픔은 언제까지나 계속 되 었다. 호메로스의 ‘일리아스’는 이 장면에서 끝난다.

>그리스의 영웅, 아킬레우스의 최후

-그리스군은 트로이아 퇴고의 무장 헥토르를 쓰러뜨렸기 때문에 단숨에 트로이아를 함락시킬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하지만 트로이아는 무너지지 않고 단결하여 저항을 계속했다. 더구나 동맹국들이 잇달아 트로이아에 원군을 보내 좀처럼 결말이 나지 않았다.

\*아마존족의 여왕 펜테실레아이

먼저 아마존족의 여왕 펜테실레이아가 여전사들을 이끌고 트로이아를 돕기 위해 왔다. 이들은 그리스 군을 쓰러뜨리며 해안가까지 바짝 밀어붙였다. 그러나 아킬레우스가 나서 펜테실레이 아를 창으로 찔러 죽이고 아마존족의 공격을 물리친다.

\*에티오피아의 젊은 왕 멤논

연이어 에티오피아의 멤논이 그리스 군을 공격해 왔다. 그는 트로이아 군과 연합해서 강력한 힘을 발휘했다. 멤논은 그리스 군 장수를 죽여 사기를 올렸으나, 곧 아킬레우스에게 패하여 죽임을 당했다. 그리스 군은 다시 정열을 정비했다.

-이처럼 아킬레우스의 눈부신 활약으로 동맹군까지 모조리 물리쳤기 때문에 그리스 군은 이제 확실한 우위에 서게 되었다. 트로이아의 함락도 머지않아 보렸다. 그러나 그리스 최고의 무장 아킬레우스의 죽음도 가까워 오고 있었다. 그날 아킬레우스는 트로이아의 성문까지 적들을 밀 고 들어갔는데, 이것을 본 아폴론은 파리스에게 화살을 쏘도록 명했다.

-이 전쟁의 원인을 제공한 파리스는 형 헥토르와 달리 뛰어난 무장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가 쏜 화살이 공교롭게도 아킬레우스의 유일한 약점인 발뒤꿈치에 명중한 것이다.



-그리스 군은 아킬레우스의 시신을 찾아오기 위해 힘든 전투를 해야만 했다. 결국 텔라몬의 아들 아이아스와 오디세우스가 이 어려운 일을 해냈다. 그리스 군은 아킬레우스를 기리기 위 해 17일간에 이르는 성대한 장례식을 치렀다. 그런데 두 장수는 자신들의 용맹의 대가로 아킬 레우스의 무기를 갖겠다고 우겼다.

-결론이 나지 않자 포로로 잡힌 트로이 병사들에게 투표를 시켰다. 그들에게 가장 무서운 대 상은 누구였는지를 물어 그에게 무기를 주기 위해서였다. 아킬레우스 다음으로 용맹과 무술이 출중한 아이아스를 제치고 지략가 오디세우스가 뽑혔다.

-오디세우스가 아킬레우스의 무기를 차지하자 아이아스는 밤새 미쳐 날뛰었다. 그는 오디세우 스와 그 부하들을 공격한다고 생각하고는 그리스 군의 식량인 가축들을 학살했다. 아침에 정 신이 든 아이아스는 창피함을 참지 못해 자신의 검에 몸을 던져 죽고 만다.

### 3.트로이아의 함락과 귀향/호메로스의 ‘일리아스’

>트로이아의 위기

-그리스 군은 아킬레우스라는 최고의 전사를 잃기는 했어도 전투에서는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



다. 예언자들은 갖가지 예언을 내놓으면서 트로이를 함락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 \*칼카스의 예언 렘노스 섬에 버리고 온 필록테테스가 헤라클레스의 활과 화살을 갖고 있는데, 이 활과 화살이 트로이 성 함락에 꼭 필요하다고 말해, 오디세우스가 렘노스 섬으로 가서 필록테테스를 데리 고 와 치료해 주었다. 그는 헤라클레스의 무기로 파리스를 쏘아 죽였다.

-트로이아는 중요한 장수를 거의 잃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트로이아를 공략할 결정타가 없었 다. 그런데 아폴론으로부터 예언술을 배운 프리아모스의 아들 헬레노스는 파리스가 죽자 파리 스의 아내 헬레네와 결혼하고 싶어 했는데, 아버지 프리아모스가 헬레네를 자신에게 주지 않 고 다른 아들인 데이포보스에게 주자 가족에 대해 원한을 품었다.

-그는 일부러 산속에 들어가 있다가 그리스 군에 별 저항없이 잡혀 트로이 함락에 필요한 비 밀들을 순순히 털어놓았다.

‘트로이 성 안에 아테나 여신상인 팔라디온이 있는 이상 트로이는 함락되지 않는다. 아울러 아킬레우스의 아들 네오프톨레모스도 꼭 참전해야 한다.’

-헬레노스의 제보에 따라 오디세우스와 디오메데스는 야음을 틈타 트로이 성안으로 잠입해서 트로이의 수호 신상인 팔라디온을 훔쳐 빠져나왔다. 그리고 스퀴로스 섬에 있는 네오프톨레모 스를 데려오기 위해 오디세우스를 단장으로 한 사절단도 떠났다. 멀리서 아킬레우스의 아들이 도착하고 필요한 요건들이 충족되었는데도 트로이 성은 함락되지 않았다.

>오디세우스의 목마 계략

-이럴 때 오디세우스가 궁리해 낸 것이 바로 목마 계략이다. 이에 따라 그리스 군은 마치 퇴 각하는 것처럼 진영을 불태워 없애고, 성문 앞에 거대한 목마만을 남겨둔 채 트로이아를 떠났

다. 그러나 함대는 트로이아에서 보이지 ㅇ낳는 근처의 테네도스 섬에 가서 대기하고 있었고, 목마 속에는 오디세우스를 비롯한 50명의 정예 병사가 숨어 있었던 것이다.

\*목마 계략

철군을 가장하여 상대를 방심하게 하고, 공격의 기회를 기다린다는 작전이었다. 성 밖에서 공 격해서는 트로이아를 함락시킬 수 없다고 판단한 오디세우스는 목마를 겅 안에 들여보내 그 속에 숨긴 병사들도 트로이아 성을 교란시키고 성문을 활짝 열러 그리스 군이 들어올 수 있게 하려는 계략을 짠 것이다.

-이윽고 트로이아 사람들이 성문 앞에 놓인 거대한 목마와 텅 빈 그리스 군의 진영을 발견했

다. 그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더구나 목마에는 ‘고국으로의 귀환을 감사하는 뜻에서 이 선물을 아테나 여신께 바친다.’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는 것이 아닌가. 트로이아의 사람들은 결 국 그리스 군이 물러갔다고 여기고 매우 기뻐했다.

-그런데 목마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했다. 섣불리 성안으로 들여 놓기에 는 뭔가 의심스러웠다. 그때 그리스 순의 한 병사가 붙잡혀 왔다. 그를 추궁하자 사진은 오디 세우스로부터 도망쳤다고 하면서 목마는 그리스 순이 아테나 여신에게 바친 것이라 했다. 그 리고 목마를 성 안에 들여가면 트로이아가 더욱 강성해질 것이기 때문에 일부러 성문보다 크 게 만들었다고 했다. 이 병사는 그리스 군의 첨자 시논이었다. 트로이아 사람들은 시논의 말 이 그럴 듯하다고 생각해 목마를 성 안으로 들여놓자는 의견이 우세해졌다. 그리스 군의 계략을 간파하고 있는 자도 없지 않았다.

\*아폴론 신궁의 사제 라오콘 라오콘은 이것을 그리스 군의 간계에 지나지 않는다고 사람들을 제지했다. 그러나 라오콘이 바닷가에서 포세이돈에게 제물을 바칠 때 바다에서 두 마리의 거대한 뱀이 나와 그와 그의 두 아들을 후감아 목 졸라 죽였다. 이광경을 지켜본 트로이아 군사들은 라오콘이 반대 의사를 표 명했기 때문에 벌 받은 것으로 생각하여 목마를 성 안으로 들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카산드라 트로이아의 공주이면서 예언술이 뛰어난 카산드라도 목마의 뱃속에는 병사들이 숨어 있다고 하면서 그것을 들여놓으면 트로이아가 멸망할 것이라고 일렀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 아폴론의 사랑을 받고 예언술을 익혔지만, 예언술을 익히자마나 아폴론 을 거부하여 아폴론이 내린 벌로 그녀의 말은 설득력을 잃었기 때문이었다.

-마침내 모두 힘을 합쳐 목마를 성 안으로 끌어들였다. 성벽의 일부를 허물고 바퀴 위에 목마 를 올려 트로이 성안으로 끌어들였다. 목가를 들여놓고 승리를 확신한 트로이아 사람들은 술 에 취해 춤과 노래를 부르며 축제 분위기에 빠졌다. 십 년만의 화려한 향연은 한밤중까지 이 어졌고 흥분에 지친사람들은 이윽고 잠이 들었다.



-모두가 잠이 들어 조용해졌을 때쯤, 목마 안에서 무장한 그리스 병사들이 서서히 모습을 드 러냈다. 그리고 근처 섬에서 대기하던 그리스 함대가 봉화 신호를 받고 서둘러 트로이아로 돌 아왔다. 그들은 이미 열어놓은 성문으로 순식간에 들이닥쳐 트로이아 성을 점령했다. -트로이아의 성 안으로 집결한 병사들은 밤새 남자들을 모조리 죽여 없애고, 여자와 아이들은 노예로 잡는 등 약탈과 살육을 저질렀다. 성안 곳곳이 불타올라 마치 대낮 같이 밝았다. 헬레 네는 남편 데이포보스의 무기를 숨겨놓고, 첫 남편이었던 메넬라오스에게 문을 열어주었다. 메넬라오스는 데이포보스의 사지를 잘라 지독한 고통 속에 죽게 했다.

-프리아모스는 적이 궁전에 침입한 것을 알자 무기를 들고 싸우려 하다가 헤카베가 만류해 제 단 뒤로 숨는다. 하지만 결국 네오프톨레모스가 그를 끌어내어 죽인다. 그렇게 트로이아는 함 락되고 10년에 걸친 트로이아 전쟁은 그리스 군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그리스 군의 귀향과 신의 징벌

-드디어 트로이아를 함락시킨 그리스 군은 막대한 전리품을 챙겨 고국 그리스로 향했다. 하지 만 승리의 영광 뒤에 숨어 있는 수많은 불행과 고난이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었다. 항해 도중 에 익사를 한 자도 있었고, 항로를 잘못 들어서서 결국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한 자들도 많았 다. -> 포세이돈이 그리스 군의 잔혹한 약탈과 살육을 벌하기 위해 폭동을 일으키는 등 바닷 길을 거칠게 했던 것이다.

-총사령관 아가멤논은 미케나이에 무사히 도착하지만 귀국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에게 살 해를 당한다. 트로이아 함락의 골로자 오디세우스는 항해 도중에 해신 포세이돈의 분노를 사

10년 동안이나 포류를 계속하기도 했다. ->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

-결국 오디세우스는 고난의 여정 끝에 가장 늦게 귀환한 사람이 되었다. 반면 전쟁의 원인이 되었던 헬레네는 메넬라오스릐 곁으로 무사히 귀환하여 다시 왕비로 군림하면서 만년을 행복 하게 보냈다고 한다.

### 4.호메로스의 ‘일리아스’

-트로이아 전쟁을 소재로 한 고대 서사시들 중에서 현재까지 전승된 작품은 음유 시인 호메로 스가 기원전 8세기에 오랫동안 구전된 설화들을 취사선택하여 엮어낸 ‘일리아스’이다. 이 작품 이 처음에는 장이 구분되어 있지 않았으나 나중에 알렉산드리아 학자들이 24장으로 나누었다. -고대 문학의 기념비라 할 수 있는 이 작품은 호메로스에 의해 고대 그리스어로 쓰이기는 했 지만 당대의 관습에 따라 청중들에게 들려줄 수 있도록 창작된 구전 서사시이다. 그러나 ‘일 리아스’는 트로이 전쟁 전방을 이야기하는 서사시는 아니다.

-전쟁이 10년때로 접어든 상황에서 아킬레우스가 아가멤논에게 브리세이스를 빼앗기면서 폭 발한 분노 때문에 더 이상 전장에 나가지 않기로 작정한 이야기로부터 시작하는 이 작품은, 아킬레우스가 죽인 헥토르의 장례식이 끝나고 그의 무덤이 만들어지기까지 채 50일이 안 되 는 기간 동안의 그리스 군과 트로이 군의 대치 상황과 4일간의 전투를 아킬레우스의 분노를 중심으로 그리고 있을 뿐이다.

-트로이아 1차 원정과 헥토르 사망 이후 그리스 군과 트로이아 군의 전투, 그리고 트로이아 성 함락에 관한 이야기는 일리아스에는 나와 있지 않고 오늘날까지 전승되지 못하고 소실된 여러 작품들에 나오는 내용이다.

-물론 이러한 작품들도 ‘일리아스’와 마찬가지로 구전되어 내려온 설화들은 취사선택하여 꾸 민 것들이다. 트로이아 전쟁에 관한 다양한 전승 자료들은 오늘날 모두 소실되었지만 고대의 고전 연구가들의 인용과 요약 등에 의해서 그 대햑적인 내용은 전해질 수 있었다.

## 14주

### 1.포세이돈의 귀국 방해

>귀국 준비

-트로이 전쟁의 지략가 오디세우스 ‘원한에 희생당한자’

-오디세우스는 펠로폰네소스 반도 서쪽에 있는 이타케 섬의 왕 라에르테스의 아들로 아버지가 늙고 왕 노릇에 지쳐 시골로 내려가자 아버지의 왕권을 이어받는다.

-그도 한때는 다른 수많은 남자들처럼 헬레네에게 청혼했지만 나중엔 헬레네와 클리타임네스 트라의 사촌인 페넬로페와 결혼하여 아들 텔레마코스를 얻는다. 아들이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어쩔 수 없지 트로이 원정에 참가하게 된 오디세우스는 정보 탐색과 전략 수립에 남다른 능력을 발휘하여 용맹스러운 지략가로 명성을 날린다. 그리고 목마를 만들어 마침내 트로이를 함락하는 데에도 큰 공헌을 했다. \*키코네스족와의 만남 트로이아 전쟁의 영웅 오디세우스는 포상으로 받은 여러 가지 전리품을 12척의 배에 싣고 부 하들과 함께 고향 이타케를 향해 항해하고 있었다. 출항하자 곧 불어 닥침 태풍으로 오디세우 스의 선당은 그리스 군 함대에서 떨어졌으며 먼저 트로이아와 동행을 맺었었던 키코네스 족을 약탈하기 위해 그들이 살고 있는 이스마로스로 갔다.

그곳에서 상륙한 오디세우스는 키코네스 족들과 격렬한 싸움을 하다가 몇몇 부하들을 잃고 말 았다. 그러나 떠나오면서 아폴론 신궁의 사제 마론으로부터 포도주 등 많은 선물을 받았다. 키코네스족이 반격해 오자 오디세우스 일행은 배를 띄워야 했다.

\*로토파고이인과의 만남 그들은 북풍을 타고 이타케로 가려고 했지만, 펠로폰네소스 남단의 말레이 곶을 지날 무렵 강 한 북풍과 조류가 배를 밀어내는 바람에 퀴테라 섬을 지나치게 되었고 아흐레 동안 표류한 끝 에 로토파고이인들의 땅에 닿았다.

로토파고이는 ‘로토스를 먹는 사람들’이하는 뜻이다. 그곳에 정찰하라고 보낸 오디세우스의 부 하 몇 명은 주민들이 환대하면서 내놓은 ‘로토스’를 먹었다. 그런데 이 식물을 먹으면 정신이 몽롱해져 모든 생각을 잊고 그곳을 떠나고 싶은 생각이 싹 사라져버렸다. 오디세우스는 그 부하들은 억지로 끌거 나와 다시 배에 태웠다.

>포세이돈의 아들, 폴리페모스

-항해를 계속하던 일행은 어느 날 배를 정박시키기에 좋은 항구가 있고 열매가 풍부한 땅에 닻을 내렸다. 오디세우스는 12명의 부하를 데리고 정찰을 하기 위해 배에서 내렸다. 그들은 얼마 동안 걸어 다니다 동굴을 발견했다.

-그 주인은 이마에 둥근 외눈이 달린 거인 키클롭스 족이었다. 우라노스와 가이아 사이에서 태어나 제우스에게 천둥, 벼락, 번개를 만들어준 삼 형제도 키클롭스라고 불리지만 오디세우 스 일행이 도착한 곳에 사는 키클롭스들과는 이름만 같을 뿐 서로 다른 존재들이다. -오디세우스는 12명의 부하와 함께 포도주 단지 하나를 갖고 동굴 속으로 들어갔다. 그 속에 는 여러 마리의 양과 염소가 있었고, 치즈가 가득 담겨 있는 단지도 놓여 있었다. 오디세우스 일행은 마음대로 들어가서 연회를 열고 있었는데 때마침 외출했다. 돌아온 집 주인을 보고 그 만 공포에 질리고 말았다. 포세이돈의 아들 폴리페모스로 그도 키클롭스였다. 그는 양 떼가 동굴 안으로 다 들어오자 바위로 동굴 입구를 막았다. 그리고 오디세우스의 부하 두 명을 맛 있게 잡아먹었다.

-다음 날 아침 폴리페모스는 밖에서 동굴 입구를 바위로 막아 일행을 가두어 놓고 외출했다. 오디세우스는 외눈박이 거인을 물리치고 탈출할 방법을 궁리했다. 그리고는 즉시 부하들에게



동굴 안에 있던 통나무 끝을 깎아서 뾰족하게 만들고 그 끝을 뜨겁게 달구어 놓으라고 명했 다.

-그날 밤, 외출해서 돌아온 폴리페모스에게 오디세우스는 이스마로스에서 얻어 온 포도주를 먹여 잔뜩 취하게 만들었다. 기분이 좋아진 폴리페모스가 이름을 묻자 오디세우스는 우데이스 라고 답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 키클롭스는 맛있는 것을 선물로 주어 고맙다고 그를 제일 나중에 잡아먹겠다고 빈정거렸다. -이윽고 폴리페모스가 잠에 곯아떨어지자 오디세우스 일행은 불에 달군 말뚝르오 거인의 하나 밖에 없는 눈을 찔렀다. 폴리페모스가 비명을 지르자 그 소리를 들은 다른 키클롭스들이 달려 와 누가 그런 짓을 했냐고 물었다. 하지만 폴리페모스가 ‘나에게 이런 짓을 한건 우데이스야!’ 라고 말했기 때문에 키클롭스들은 그가 헛소리를 한다고 생각하고 돌아가 버렸다.

-날이 밝자 오디세우스 일행은 장님이 된 폴리페모스의 허점을 틈타 탈출에 성공했다. 동굴에 있던 양떼에 풀을 뜯기기 위해 동굴 입구의 바위를 열었을 때 오디세우스와 부하들은 양의 배 밑에 매달려 나갔다. 폴리페모스는 혹시 오디세우스 일행이 도망칠까 양떼를 손으로 더듬었지 만 찾아낼 수 없었다.

-이렇게 해서 무사히 도망쳐 나왔지만, 오디세우스는 포세이돈의 분노를 사 향후 귀국길에 잇 따른 시련을 겪게 된다. 2.오디세우스의 모험

>아이올로스의 섬

-키클롭스 족의 나라를 탈출한 일행은 다시 항해를 계속하다 아이올로스 섬에 도착했다. 이 섬의 왕은 바람의 신으로서, 제우스로부터 바람을 마음먹은 대로 부릴 수 있는 힘을 부여받고 있었다. 그는 오디세우스에게 후한 대접을 한 뒤 섬을 떠날 때 거칠고 위험한 바람을 모아 가 죽자루에 담아 주면서 절대로 열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그리고는 일행이 항해하는 방향 으로 바람이 불도록 했다.

-일행이 탄 배는 순조롭게 바다를 미끄러져 나아갔다. 그러나 바람을 담은 가죽자루를 지키던 오디세우스가 잠들었을 때 그 속에 굉장한 보물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한 부하들이 그만 그것 을 열고 말았다.

-그러자 곧바로 거기서 역풍이 불어나왔고, 배는 거꾸로 가서 다시 아이올로스 섬으로 되돌아 오고 말았다, 아이올로스는 화를 내면서 그들의 어리석음을 질타했다. 이렇게 하여 오디세우 스 일행은 같은 바닷길을 다시 되짚어 가게 되었다.



>라이스트리고네스의 섬

-일행의 배가 어느 섬에 이르렀을 때 오디세우스는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 그래서 부하들에게 그 섬의 상황을 살펴본 다음에 오르자고 했다. 그런데 부하들은 경고를 듣지 않고 그냥 들어 갔고, 오디세우스가 탄 배만 경계하며 바다에 떠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섬은 식인 거인 라이스트리고네스 족이 사는 섬이었다. 거인들은 섬에 들 어온 배들을 공격하여 완전히 부수었다. 그리고 오디세우스의 부하들을 창으로 찔러 죽인 다 음 잡아먹기 위해 가져갔다.

-그렇게 해서 오디세우스의 배 한 척을 제외하고는 모든 배들이 침몰했고, 거기에 탄 부하들 은 수장되거나 라이스트리고네스의 먹이가 되었다. 오디세우스는 눈앞에 벌어진 사태에 아무 런 저항도 못하고 재빨리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

>마녀 키르케

-한 척의 배만 남은 오디세우스 일행은 키르케가 사는 아이아이섬에 도착했다.

키르케는 태양신 헬리오스의 딸이자 크레타 섬의 왕비 파시파에의 자매로서 이아손의 아내가 된 마녀 메데이아의 숙모가 된다.

그런데 이곳에 도착한 오디세[우스 일행은 라이스트리고네스의 섬에서의 두려운 경험 때문데 섣불리 닻을 내릴 수 없었다. 오디세우스는 아이아이에 섬의 정찰을 부하들에게 맡기고 자신 은 배에 남아 있었다.

-그런데 부하들은 좀처럼 돌아오지 않았다. 얼마 후 정찰을 나갔던 부하 에우리로코스가 숨을 헐떡이며 뛰어왔다. 그의 보고에 따르면 다른 부하들을 키르케의 궁전에 초대되어 융숭한 대 접을 받았는데, 그녀가 따라주는 술을 마신 후에 동물로 변신했다는 것이다. -부하들을 구하려고 키르케의 궁전으로 향한 오디세우스는 도중에 헤르메스 신을 만나 마법을 피하는 약초를 받았다. 궁전에 가까이 다가가자 갖가지 짐승들이 있었는데 모두 키르케의 마 법에 걸린 사람들이었다.

-오디세우스가 궁전으로 오자 키르케는 갖가지 산해진미와 술을 내놓았다. 그러나 헤르메스가 준 약초 덕분에 오디세우스에게는 키르케의 마법이 걸리지 않았다. 자신이 생긴 오디세우스가 크게 호통을 치자 그녀는 용서를 빌었다.

-오디세우스에게 반해 버린 키르케는 그의 말대로 부하들을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려 주었다. 그리고ㄴ 오디세우스에게 정성을 다해 대접했다. 오디세우스는 1년 동안 키르케의 섬에 머무 르며 키르케와 살았다. 둘 사이에서 아들 텔레고노스가 태어났다. ‘멀리서 태어난 자’ 키르케는 이후 오디세우스가 겪게 될 여정을 내다보고 큰 도움이 되는 조언들을 해 주었다. -키르케 섬에서의 생활은 쾌적했지만,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점점 커져만 갔다. 결국 오디세 우스는 키르케에게 작별을 고하기로 했다. 키르케는 이를 승낙하면서 그전에 명계에 가서 예 언자 테이레시아스(오이디푸스 왕의 이야기에도 등장하는 테바이의 예언가)의 이야기를 들어 야 한다고 충고했다.

-오디세우스는 ‘명계’라는 말에 두려움을 느꼈지만 키르케가 자세한 방법을 지시해 주었기 때 문에 명계로 가서 예언을 들을 수 있었다. 오디세우스는 키르케가 일러준 대로 세계의 끝에 있는 대양의 흐름을 타고 북쪽으로 항해한 끝에 구름과 안개에 싸려 햇빛이 들지 않는 어둠의 세계에 도착했다. 그는 그곳에 구덩이를 판 후 술을 붓고 제물을 바쳤다. 그러나 죽을 자들의 넋이 몰려들었다.

-마침내 테이레시아스의 넋이 나타나 오디세우스에게 앞일을 알려주었다.

고향에는 남의 나라 배를 타고 혼자서 돌아갈 것이고 부하들을 모두 잃게 될 것이다. 그리고 부인 페넬로페에게 청혼하는 자들을 모조리 죽일 것이며, 바다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행복 하게 살다가 생을 마감할 것이다.

오디세우스는 자신의 어머니와 트로이 전쟁의 영웅들과도 이야기를 나누고 다시 키르케에게 돌아갔다. >세이레네스의 섬

-키르케는 오디세우스 일행이 섬을 떠날 때 앞으로 가야 할 길과 위험을 극복할 방법에 대해 알려주었다. 일행은 이제 곧 그 위험한 ‘세이레네스의 섬’을 통과할 예정이었다. 세이레네스들 은 상반신은 여자의 몸이고 하반신은 새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세이렌은 반은 여자이고, 반은 새인 바다의 괴물이다. 그들은 강의 신 아킬로오스가 무사 여 신 스테로페와의 사이에서 낳은 딸로서 세 명의 자매들이다. 한 명은 리라, 한 명은 피리, 한 명은 노래를 불렀다.

-오디세우스는 키르케의 충고대로 부하들에게는 밀랍으로 된 귀마게를 착용하게 하고 자신만 은 노래를 들어보려고 돛대에 몸을 단단히 묶게 했다. 그리고 섬을 다 통과해 지나갈 때까지 무슨 일이 있더라도 풀어주지 말라고 일렀다. 이윽고 세이렌의 섬에 접근하자 노랫소리가 들 려오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에 매료된 오디세우스는 몸부림치면서 ‘오랏줄을 풀어라!’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부하들에게 그 소리가 들릴 리가 없었다.



>스킬라와 카리브디스

-그렇게 세이렌 섬을 별 탈 없이 통과했지만, 일행의 앞길에는 또 다른 위험이 기다리고 있었 다. 그것은 바다 괴물 스킬라와 소용돌이를 일으키는 카리브디스였다.

\*스킬라는 인간 여성의 하체에 6마리 뱀으로 된 머리와 날카로운 이를 가진 괴물이었다. 그녀 는 자신이 사는 동굴 앞을 지나가는 배의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먹고 있었다.

\*카리브디스는 스킬라의 맞은편에 사는 괴물로 바닷물을 마신 다음 다시 토해 낼 때마다 커다 란 소용돌이를 일으키고 있었다. 이 때문에 그 주위를 지나가는 배들이 숱하게 침몰했다. 이 들은 이탈리아와 시칠리아 사이의 메시나 해협에 있었다고 전해진다.

-문제는 그곳을 지날 때 두 괴물을 한꺼번에 피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었다. 특히 카리브 디스가 소용돌이를 일으킬 때 나는 큰 소리에 신경을 쏟다 보면, 스킬라가 언제 어디서 공격 해 올지 알 수 없었다. 오디세우스 일행도 소용돌이를 경계하는 동안 갑자기 스킬라가 나타나 부하 여섯을 잃고 말았다.



>헬리오스의 섬

-이후 일행은 바람을 타고 트리나키아 섬 쪽으로 흘러들었다. 이곳에는 태양신 헬리오스가 기 르는 보기 좋게 살찐 소와 양이 많이 있었다. 그럼에도 이 땅은 키르케와 테이레시아스가 피 해 가라고 한 장소였기 때문에 바로 배를 돌리려고 했다. 어떤 경우에라도 태양의 섬에 있는 가축들에겐 손대면 안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먹을 것이 전혀 없는 대다가 부하들이 적어도 하루 정도만 상륙하여 쉬고 싶다고 간 청하는 바람에 오디세우스는 할 수 없이 승낙했다. 단 가축들한테는 절대 손을 대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다. 그런데 다음 날부터 바람이 딱 멈추어 굶주리게 되었다. 결국 배고픔을 견 디지 못한 부하들은 소 한 마리를 잡아먹고 말았다.

-이 불경한 행동이 그들을 파멸로 몰아넣었다. 간신히 항해를 다시 할 수 있게 되어 일행이 섬을 출발하자, 화가 난 헬리오스의 부탁을 받은 제우스가 폭풍우를 일으키고 천둥과 번개를 배에 내리쳤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 남은 배 한 척도 부서지고, 부하들은 모두 흩어져 오직 오디세우스 혼자만 겨우 살아남아 부서진 배의 잔해 위에 몸을 실을 수 있었다.



>님프 칼립소

-오디세우스는 부서진 배의 돛대에 필사적으로 매달려 9일 동안이나 표류했다. 10일째 되는 날 그는 탈진한 상태로 오늘날의 지브롤터 건너편 모로코 해안의 오기니에 섬에 도달했다. 그 곳에는 ‘젊은 아가씨’라는 뜻의 요정 칼립소가 살고 있었는데 그녀는 오디세우스를 구하여 극 진히 보살폈다. 그 후 오디세우스는 그녀의 애인이 되어 이 섬에서 세월을 보냈다.(일설에 의 하면 9년) 그러나 고향에 있는 아내를 잊은 것은 아니었다. 오디세우스의 소망은 오직 고향 이타케로 돌아가는 것뿐이었다.

-그 무렵 올림포스의 신들 사이에서는 오디세우스에 대한 동정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었다. 특 히 아테나가 그를 동정하여 아버지 제우스에게 ‘오디세우스를 고향으로 돌려보내 주었으면 좋 겠다.’고 간청할 정도였다. 제우스는 소원을 받아들여, 헤르메스를 칼립소에게 보내 신의 결정 을 전달했다.

-칼립소는 매우 섭섭했지만 제우스의 뜻을 거역할 수 없었다. 그래서 마침내 정들었던 오디세 우스를 뗏목에 태워 보낸다. 그는 동쪽으로 뱃길을 잡았다.

그러나 포세이돈만은 아직 오디세우스를 요서하지 않고 있었다. 포세이돈은 큰 폭풍을 일으켜 뗏목을 부수고 그를 다시 바다 속으로 내던져 버리고 말았다. 오디세우스는 부서진 잔해를 붙잡고 목숨을 부지한 채 표류했다.

>나우시카아

-오디세우스가 구사일생으로 파도에 밀려 도착한 곳은 파이아케스 인들이 사는 코르키라 섬의 해안이었다. 알몸으로 해변에 밀려온 오디세우스는 기진맥진하여 강 하구의 덤불숲에 누워 곯 아떨어졌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처녀들의 웃음소리에 잠이 깼다. 그곳의 왕의 딸 나우시카아 와 시녀들이 강가로 빨래하러 나왔다가 공놀이를 하고 있었다.

-오디세우스는 나뭇가지로 벌거숭이 몸을 가리고 그녀들 앞에 나타났다. 그러자 처녀들이 놀 라 도망쳤지만, 나우시카아만은 그대로 있었다. 오디세우스는 나우시카의 도움을 받아 왕궁으 로 간다. 오디세우스는 신의 저주를 받은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 알키노오스 왕은 관대한 태도로 그를 맞이했다.

-알키노오스 왕은 귀국하기 전에 경기 대회와 연회를 열 테니 참가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제안 을 했다. 연회 석상에서는 음유 시인 데모토코스가 트로이아 전쟁의 영웅 이야기를 읊었다. 이를 들었을 때 오디세우스는 파이아케스 인들의 배를 타고 고국 이타케 섬으로 향했다. 배는 순조롭게 나가서 새벽녘에는 이타케 섬에 도착할 수 있었다. 파이아케스 인들은 잠들어 있는 오디세우스를 살며시 모래사장에 내려놓고 자신들의 나라로 돌아갔다. 포세이돈은 오디세우스 가 무사히 귀향항 것에 화가 나 파이아케스 인들의 배를 바위로 변하게 만들었다고 한다.

### 3.오디세우스의 귀국

>왕궁 입성

-눈을 뜬 오디세우스는 처음에는 그곳이 어디인지도 몰랐다. 그러나 곧 자신이 고향에 돌아온 것을 알고 감개무량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그의 앞에 아테나 여신이 나타나 지금 자보 왕 궁으로 가는 것은 위험하다는 충고를 했다.

\*아테나 여신의 충고 여신의 이야기에 따르면 오디세우스의 아내 페넬로페이아에게 수많은 구혼자들이 몰려와서 108명이나 되는 젊은이들이 왕궁에 손님으로 눌러앉아 재산과 식량을 축내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들 중에서 새 남편은 고르라고 페넬로페이아에게 성화였다. 왕비와 결혼하여 왕권 을 잡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오디세우스가 갑자기 나타나면 그들이 헤치려 둘 것이라고 했다. -페넬로페이아는 오디세우스가 트로이아 전쟁으로부터 귀국길의 모험을 하는 20년 동안 오직 그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구혼자들이 계속 괴롭히자 그녀는 궁리 끝에 구혼자들에게 오디세우 스의 아버지 라에르테스의 수의를 다 짤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그러고는 낮에는 부지 런히 베를 짜고 밤에는 몰래 풀어 시간을 벌고 있었다. 그러나 3년째가 되었을 때 이 속임수 가 들통이 나 버려 그녀는 대답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렸다.

오디세우스가 돌아온 것은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을 때였다. 그는 구혼자들의 횡포에 분 개해 즉시 그들을 없애고 싶었다. 그러나 그는 아테나의 도움 아래 구혼자들에게 복수할 기회 를 기다리기로 했다.

-오디세우스는 우선 옛날 자신에게 충성을 다했던 돼지치기 에우마이오스의 오두막을 찾았다. 그러나 에우마이오스도 처음에는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때 오디세우스의 아들 텔레마코스 가 에우마이오스의 오두막으로 왔다. 그래서 오디세우스는 자신의 신분을 밝혔다. 그렇게 아 들과 충성스러운 부하와의 재회가 이루어진 것이다.

-오디세우스는 아테나 여신의 계획에 따라 늙은 거지로 변신하여 왕궁으로 향했다. 아무도 그 를 알아보지 못했는데 그의 개 아르고스만이 주인을 알아보고 꼬리를 흔들었지만 늘고 병들어 곧 죽고 말았다. 오디세우스는 청혼자들 앞에 나타나 동냥을 하며 그들의 차림새를 관찰했다. 많은 청혼자들이 그에게 냉담했는데, 특히 가장 강력한 세력을 가진 안티노오스가 못되게 굴 었다.

-페넬로페이아는 여행을 많이 한 거지가 궁전에 나타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거지가 오디세우스 의 소식을 아는가 싶어 만나보려고 했지만 오디세우스는 저녁때 만나겠다고 미루었다. -저녁이 되자 텔레마코스는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궁전 안에 있는 모든 무기들을 숨겼다. 그 리고 오디세우스는 페넬로페이아를 만나 오디세우스를 잘 아는 크레타 섬 사람인 척했다. 이 야기가 앞뒤가 맞고 정확하다고 판단한 페넬로페이아는 그를 정중하게 대접하기로 마음먹고, 오디세우스의 유모 에우리클레이아에게 손님의 발을 따뜻하게 씻어주라고 일렀다. -오디세우스의 발을 닦으려는 순간 유모는 손님의 발목에 난 상처를 보고 깜짝 놀랐다. 어린 오디세우스를 길렀던 유모는 그의 몸 구석구석의 상처를 알로 있었는데, 그 상처는 오디세우 스가 어린 시절 외할아버지 아우톨리코스와 외삼촌들을 따라 파르나소스 산으로 사냥을 갔다 가 멧돼지 어금니에 찔린 상처였기 때문이다.

아지만 에우리클레이아는 오디세우스가 페넬로페이아가 눈치 채지 못하게 하라고 일렀기 때문 에 주인을 만난 기쁨을 표현할 수 없었다.

>아내 페넬로페이아와의 재회

-다음날 페넬로페이아는 활쏘기 경기 대회를 열었다. 그러면서 그녀는 출정하기 전 오디세우 스가 쓰던 강궁에 활시위를 걸어, 표적으로 삼은 12개의 도끼머리의 구멍을 꿰뚫는 자에게 시 집을 가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이는 시집을 가지 않겠다고 말한 거나 다름없었다. 도전자들 은 표적을 쏘기는커녕 활이 너무나도 강하여 애초에 화살을 당길 수도 없었던 것이다. -단 한 사람 거지 차림의 오디세우스만이 활시위를 맬 수 있었다. 그리고 활을 쏘아 12개의 도끼머리 구멍을 꿰뚫었다. 그리고 아들과 함께 구혼자들을 향해서 거침없이 활을 쏘아 그들 을 모두 쓰러뜨렸다. 청혼자들은 대항하여 했지만 무기는 모두 치워지고 없었다. 마침내 오디 세우스는 안티노오스를 죽이고 청혼자들을 도와주었던 하녀들도 궁전 안뜰에서 처형했다.

-마침내 오디세우스는 아내에게 정체를 드러내고 20년 만에 재회했다. 다음날 오디세우스는 시골에 가서 아버지 라에르테스와 재회했다. 그러나 희생당한 청혼자들의 부모들이 시골까지 내려와 복수하려고 했다. 다행이 아테나 여신이 개입해서 사태는 원만히 해결되고, 이타케 섬 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다.

**5.서양의 문화와 그리스 로마 신화**

>그리스 로마 신화는 서구의 문화와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서양 문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읽어야 할 만큼 그들의 문화와 역사에 지대한 영향 을 끼쳤다.



-서구의 여러 문학 작품이나 미술 작품 등의 예술 분야에는 그리스 로마 신화의 내용이 자주 등장하여 신화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없이는 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는 불가능하다.

>그리스 로마 신화는 우리 생활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연설이나, 신문, 대화 등에서 자주 비유로 등장하는데, 판도라의 상자나 나르키소스릐 수선 화, 아카로스의 날개, 페르세포네 때문에 생긴 4계절 등은 자주 회자되는 말들이며 아테나, 에 로스, 에코, 디오니소스 등 신들의 이름도 자주 인용되고 있다.

-또한 그리스 로마 신화의 현실과 초자연의 세계를 오가는 무수한 사건들은 풍부한 상상력과 창조력의 원천이 되고 있다.

이렇듯 그리스 로마 신화는 서구 문화와 역사와 깊은 관령을 갖고 있어 그 근원을 거슬러 올 라가다 보면 신화의 뿌리를 찾을 수 있다. 기원전 9~0세기부터 기원후 3~4세기에 걸쳐 그리 스어를 사용하는 여러 지방에 널리 퍼져 있던 불가사의한 설화와 전설의 세계가 오늘날의 세 계에 그대로 침투되어 같이 숨 쉬고 있는 것이다.